

바오로가족 기도서

바오로가족 기도서

바오로가족

성바오로

바오로가족 기도서

발행일: 2003.1.2

펴낸곳: 성바오로

주 소: 서울 강북구 송중동 103-36

전 화: 02-986-1361~4

등 록: 7-93호 1992.10.6

홈페이지: www.stpauls.kr

이메일: edit@paolo.net

LE PREGHIERE DELLA FAMILIA PAOLINA

Copyright © 1996 by Proprietà riservata della Casa Genralizia Societa San Paolo Roma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02 by ST PAULS, Seoul, Korea

E-book conversion by Fr. Nicholas Jo, S.S.P.

〈차례〉

초대의 글……3

일상기도……13

아침기도……15

- 삼중기도……15
- 부활 삼중기도……17
- 예수 성심께……18
- 주님의 기도……18
- 성모송……19
- 영광송……19
- 하루를 봉헌하는 기도……19
- 니체아 신경……20
- 사도신경……22
- 성모찬송……23
-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24
- 신덕송……24
- 망덕송……24
- 애덕송……24
- 믿음의 기도……25
- 희망의 기도……26
- 사랑의 기도……26
- 통회기도……27
- 겸덕을 구하는 기도……27
- 감사의 기도……28
-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28
- 지배적인 결점을 이기기 위하여……29
- 교황을 위하여……30
- 총원장을 위하여……30
- 설립자의 시성을 위하여……30
- 협력자들을 위하여……31
- 죽은 이들을 위하여……31
-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31
- 사도직을 위하여……31
- 성소를 위하여……32
- 하루를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32
- 식사 전 기도……33
- 식사 후 기도……33
- 식사 전 기도(가톨릭 기도서)……33
- 식사 후 기도(가톨릭 기도서)……34

저녁기도.....35

시편 129.....36

잠들기 전과 일어날 때의 기도.....38

미사의 지향.....41

말씀 전례, 성찬 전례.....42

감사의 제사, 언제나 실제적 신비.....44

예수-호스티아.....45

흠송, 감사, 기도.....45

미사 성제의 봉헌.....46

바오로인의 봉헌기도.....47

사목적 봉헌기도.....49

성소를 위한 봉헌기도.....50

영성체.....52

영성체 준비.....52

믿음의 기도.....52

희망의 기도.....52

사랑의 기도.....53

영성체 후 감사기도.....53

흠송의 기도.....53

결심의 기도.....54

청원기도.....55

나의 미사.....56

세례서약 갱신과 수도서원문.....59

세례서약 갱신.....61

서원 갱신.....63

성바오로수도회.....63

성바오로딸수도회.....64

스승예수제자수녀회.....64

선한목자예수수녀회.....65

예수사제회, 대천사 가브리엘회, 성마리아 영보회.....66

성가정회.....66

바오로 협력자회 회원 선서문.....67

바오로 가족의 매일기도.....69

묵상.....71

묵상 부분.....71

묵상 전/묵상 후.....73

성체 조배.....75

길 진리 생명의 방법.....78

흡송기도.....79

성서를 읽기 전에.....80

성서를 읽고 나서.....80

양심 성찰.....82

요한복음 서론.....84

나는 착한 목자이다.....86

참된 행복.....89

그리스도의 영혼.....89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기도.....90

시편 119, 1-5.....95

시편 119, 65-69.....96

시편 116, 10-19.....97

시편 51.....98

시편 23.....101

묵주기도.....103

기쁨의 신비.....104

고통의 신비.....108

영광의 신비.....112

성모 호칭기도.....116

성체 강복.....120

지존하신 성체.....123

강복 후.....124

고해성사.....127

고해성사.....129

고백하기 전에.....129

십계명.....130

성교 5규.....131

통회기도.....131

고해성사 예식.....132

감사의 기도.....134

주간기도.....137

주일: 스승 예수께.....139

 선한 목자 예수께.....144

월요일: 성바로 사도에게.....149

 성베드로와 성바로 사도에게.....152

화요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154

- 위대한 사랑의 기도.....157
- 수요일: 성요셉에게.....158
- 목요일: 수호천사에게.....163
- 금요일: 예수 성심께.....167
 - 예수 성심 호칭기도.....173
- 토요일: 사도의 모후께.....177
 - 선한 목자의 어머니신 마리아께.....184
 -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봉헌하는 기도.....188

매월의 기도 지향.....189

- 월피정.....191
 - 선종을 위한 기도.....192
- 십자가의 길.....195

영성수련.....217

- 영성수련.....219
 - 영성수련의 의의.....219
 - 일러두기.....221
 - 영성의 해.....223
 - 실천 사항.....224
 - 묵상.....225

성령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227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229
- 성령님께.....230
-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231
- 건강을 얻기 위하여.....232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235

- 성공의 비결.....237
- 성공의 비결(선한목자예수수녀회).....238
- 성소자를 얻기 위하여.....239
-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240
- 사제의 기도.....241
- 선한 목자 예수님께.....242
- 주님의 사제직은 나의 보루.....243

오소서, 스승 예수님……244

사도의 모후께……247

- 인류를 봉헌하는 기도……249
-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250
- 사도직을 봉헌하는 기도……251
- 사도의 모후께 드리는 기도……254
- 교회일치를 위해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255
- 성베르나르도의 기도……256
- 영보를 받으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께……257

성바오로에게……259

- 성바오로 사도에게 드리는 기도……261
- 인내를 얻기 위하여……262
- 나라를 위하여……262
- 가톨릭 출판물을 위하여……263
- 성바오로 호칭기도……264

사도직 기도……267

-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을 위하여……269
- 시청각 수단을 위한 기도……269
- 라디오와 텔레비전, 컴퓨터를 위한 기도……270
- 성가브리엘 대천사께……271
- 편집 전에……272
- 기술 사도직 전에……273
- 선교 사도직 전에……274
- 노동자의 기도……274
- 통신물을 읽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275
- 여행하기 전에(또는 사도직 출장을 가기 전에)……276
-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 협력자 양성을 위한 호칭기도 ……276
- 성바오로딸들의 참된 행복……281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인류……283

- 인류의 길……286

바오로 가족 9일기도……323

- 스승 예수 9일기도……325
- 사도의 모후 9일기도……331
- 성바오로 9일기도……335

| | |
|--------------------|-----|
| 선한 목자 예수 9일기도 | 340 |
| 선한 목자 어머니 마리아 9일기도 | 343 |
|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9일기도 | 346 |
| 성탄 9일기도 | 349 |

부록.....357

| | |
|---------------------|-----|
| 성공의 비결 노래 | 359 |
| 나는 알고 있노라 | 360 |
| 성령강림(1) | 361 |
| 성령강림(2) | 361 |
| 즈가리아의 노래 | 363 |
| 마리아의 노래 | 364 |
| 성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떼데움) | 365 |
| Ave maris stella | 368 |

대사.....370

| | |
|----------------------------------|-----|
|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 370 |
| 스승예수제자수녀회 | 371 |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 371 |
| 사도의 모후수녀회 | 372 |
| 예수사제회, 대천사 가브리엘회, 성마리아 영보회, 성가정회 | 372 |
| 바오로 가족 협력자회와 바오로 협회 | 372 |
| 영어 미사 통상문 | 374 |
| 라틴어 미사 통상문 | 411 |
| 이탈리어 미사 통상문 | 411 |
| 주(註) | 418 |
| 편집후기 | 448 |

초대의 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성화시키신 궁극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영원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되었으며 성화되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이 당신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물을 배려했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좋은 준비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1고린 10,31)¹⁾라는 성바오로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성덕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광은 언제나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어야 하며 이것은 하느님 나라의 생활을 미리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수단은 우리 전존재의 성화이다. 이 성화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요한 4,9)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사람은 그 가지다.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수액을 받아 살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말라버려 불에 던져질 것이다(요한 15,1-8 참조).

그리스도와 이러한 일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본받으며, 우리의 영성생활과 은총을 통해서 충만되어야 한다.

성덕을 향한 걸음

현세생활은 우리의 전존재, 즉 정신과 의지, 마음과 육신 모두를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의 확실한 거처는 영원에 있으며, 구원되어 항상 하느님과 함께 지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하느님 없이 지내든지 둘 중의 하나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일한 과제이다. 우리는 누구나 지상에서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련을 극복하여 승리의 화관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느님이 최고의 선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시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알고 섬기며 그분과 일치해야 한다.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적, 초자연적 은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천상 스승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6)라고 말씀하셨다.

수도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또 천국을 확실히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나아가 이미 서원을 한 사람은 자기 서약에 충실해야 할 뿐 아니라, 선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풍부한 수단으로 완덕에 나아가야 할 큰 의무가 있다.

열성적이고 항구한 영적 작업이 필요하다. 그 작업은 힘이 드는 만큼 숭고함과 위안을 가져다준다. 원죄 이후의 인간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 영적 작업은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영적 투쟁과 극기. 모든 위협과 죄악을 피함으로써 마귀와 세속의 행실에서 오는 악과 나쁜 내적

성향에서 오는 악을 제거해야 한다. “악을 피하라.”

2. 인간은 하느님과 초자연적인 일치로 될 것. 전존재, 지성은 생동하는 믿음으로, 의지는 덕 있는 생활로, 마음은 초자연적인 감정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일치되어야 한다. “선을 행하라.”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²⁾

현세와 영원의 모든 선은 하느님 안에 있다.

하느님과 우리의 일치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시다. 진리이시기에 스승이요 학자가 되시고, 길이시기에 왕이요 본보기가 되시며, 생명이시기에 대사제요, 제물이 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직무로써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천상 스승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셨다. 즉 “나는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네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네가 갈망해야 할 생명이다”(준주성범 3,56). 그분은 은총 중에 있는 영혼 안에 사시고, 은총 중에 있는 영혼은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신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설교하고, 어머니와 같이 신자들을 인도하여 성사로 성화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은총을 전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훌륭한 믿음의 투쟁

죄를 지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피조물을 가까이하는 죄로 인하여 영적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피조물을 멀리하고 하느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결심이나 참된 영적 노력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면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과 맞서 싸우고, 극기와 정결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거슬러 싸우며, 애덕과 청빈을 위해서 인색함과 안일함을 거슬러 싸운다. 말하자면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 위하여 낡은 아담을 벗어버리는 것이다(에페 4,24 참조).

사람 속에는 비록 욕망과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지만 그 중의 하나가 특히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지배적인 그 결점을 없애기 위하여 그와는 정반대되는 덕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잘 식별해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쉬우며 효과적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다음 순서를 따르면 좋다.

1. 연피정과 월피정 때 자신을 잘 살피고 고해사제의 지도에 따라 주요 결심을 정한다.
 2. 양심성찰에는 예방성찰, 특별성찰, 일반성찰이 있고 이러한 성찰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행해야 한다.
 3. “그와 반대로 하라.”라고 유혹하는 악한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 하루 내내 끊임없이 깨어 있도록 훈련한다.
 4. 매일 묵상, 영성체, 미사, 성체조배,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 결심을 새롭게 한다.
- 양심성찰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해주는 중요한 결실을 맺게 한다.

목상은 특히 의지력을 강하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해준다.

영성체는 우리 안에 은총을 증가시켜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견고하게 해준다.

영적 독서, 이와 유사한 훈화도 정신을 강화하는 데 특별히 목적이 있다.

성체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흠숭과 미사 성제는 지성, 의지, 마음에 세 가지 결실을 맺게 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세 가지 결실인 가르침, 용기, 은총은 결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 존재이고 완덕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데 있으므로 구태여 지성, 의지, 마음을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어떤 결심이든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포함한 것이라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누가 교만을 없애고 겸손을 닦고자 한다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된 생각을 우리 안에 길러야 하고, 우리 의지를 다하여 겸손한 생활을 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한 기도으로써 이 귀중한 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선이며 영원한 행복이신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것

사실 모든 신심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되고 유일한 신심으로 모아진다. 갖가지 다른 실천과 신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지상에서 미리 맛보고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완전한 보상이다. 지성은 주님을 뵈는 행복을, 의지는 복된 사랑을, 마음은 영원한 기쁨을, 육신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천상 스승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주겠다.”(루가 22,29)라고 말씀하셨다.

성바오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6-18)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아침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사도의 모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바오로 사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모든 죄악에서,

●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모든 죄악에서,

●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부활 삼종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예수 성심께³⁾

예수 성심이지어,
교회의 어머니, 티없는 마리아의 성심을 통하여
죄의 보속과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오늘 저의 기도와 활동, 기쁨과 고통을
미사의 희생제물⁴⁾에 합쳐 당신께 바치오며,
성령의 은총으로 성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총원장의 특별한 지향에 따라 이를 봉헌합니다.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루를 봉헌하는 기도⁵⁾

나의 하느님,⁶⁾ 저는 당신을 흠숭하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를 창조하시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지난 밤을⁷⁾ 지켜주셨으며
저를 바로로 가족으로⁸⁾ 인도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활동을 당신께 바치오니
이 모든 활동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⁹⁾에 맞게 하시고,
당신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저를 모든 죄와 악에서 보호하시고,
당신 은총이¹⁰⁾
늘 저와 저의 모든 친지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아멘.

니체아 신경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밀출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모찬송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저를 비추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

신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제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망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애덕송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믿음의 기도¹¹⁾

나의 하느님,
당신은 그르칠 수 없는 진리이시니,
당신이 계시하시고, 성교회가 믿도록
계시한 모든 것을 굳게 믿나이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같고 구별되시며
유일하고 참 하느님이신
당신을 확고하게 믿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육화하고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분은 공로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상급 혹은 영원한 별을 주시나이다.
이 믿음에 순종하여 항상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소서.

희망의 기도

나의 하느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당신의 약속에 의지하여
당신의 선하심으로
제가 행해야 하고 행하려는
선행을 쌓는 데 필요한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님, 영원히 당신을 즐기게 하소서.

사랑의 기도

나의 하느님,
당신은 무한히 선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시니
모든 것 위에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고
받은 모욕을 용서하나이다.
주님,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통회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멘.

겸덕을 구하는 기도¹²⁾

하느님,
저희가¹³⁾ 인간적인 활동에만¹⁴⁾ 의지하지 않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당신의 자비로써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가¹⁵⁾
저희를 모든 역경에서 보호하게 하소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오니
당신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계는 천국을 허락하소서.¹⁶⁾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의 기도

영원히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¹⁷⁾

나의 하느님,¹⁸⁾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저의 더 큰 선을 위하여

미리 보고 마련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뿐이오나

그것으로 넉넉합니다.¹⁹⁾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²⁰⁾ 받들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를 따르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희생제물에 합쳐

저의 온 존재를 당신께 제물로 바칩니다.²¹⁾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에²²⁾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비오니²³⁾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과 저의 성화를 위하여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지배적인 결점을 이기기 위하여²⁴⁾

스승 예수님,

당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의 지배적인 결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잠깐 묵상)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황을 위하여

주님, 당신의 보호로
우리 교황을 지켜주시고
그의 빛과 힘과 위로가 되어주소서.

총원장을 위하여²⁵⁾

주님, 총원장의 빛과 보호자가 되어주시어
그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축복을 풍부히 내려주소서.

설립자의 시성을 위하여

주님,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를 당신 교회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시어, 저희 성화와 사도직 수행에 모범과 전구자가 되게 하소서.

사도의 모후요,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소서.²⁶⁾

(청하는 은총을 생각한다)

주님, 저희가 청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협력자들을 위하여

주님, 저희의 협력자들과 은인들에게 당신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활동이 당신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죽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아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주소서.

(아무)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이시며,
동정 마리아의 참된 배우자이신 성요셉님,
저희와 오늘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녁때는 “오늘 임종하는…” 대신 “이 밤에 임종하는…”으로 한다)

사도직을 위하여

우리 보호자이신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와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소를 위하여

우리 영혼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²⁷⁾

하루를 거룩히 지내기 위하여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어머니 마리아님,²⁸⁾
제 머리 위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시어
제 지성과 마음과 오관을 지키시고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제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성화시키시어
나의 하느님이며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당신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게 하소서.
예수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식사 전 기도

주님, 당신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하여 먹고자 하는
이 음식과 저희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예수님 당신은 미사 성제 안에서
'쪼개어진 빵'이시니, 당신 생명으로
저희를 영적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날마다 당신 섬리로 주시는 음식을
사랑 안에서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식사 후 기도

주님, 저희에게 주신 이 음식에 감사드리오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저희를 부르신 하느님 아버지, 친교의 표지인
형제적 식사를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식사 전 기도(가톨릭 기도서)

†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식사 후 기도(가톨릭 기도서)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저녁기도

(삼중기도 혹은 부활 삼중기도)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흠숭하고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를 창조하시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만일 어떤 선을 행하였거든 받아들이소서. 잠잘 때에 저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구해주소서. 당신 은총이 늘 저와 저의 모든 친지들과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성모송·성모찬송·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양심성찰·통회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님

제 마음과 영혼을 드리나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님

임종 때에 저를 돌보아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님

제 영혼이 당신들 안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게 하소서.

시편 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은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²⁹⁾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잠들기 전과 일어날 때의 기도³⁰⁾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성모송 세 번)

“우리 구세주께서는 팔리시던 그 밤에 최후 만찬에서 당신 몸과 피로 성찬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이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세세에 영속화하고, 또한 그때까지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시려는 것이었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이다”(전례 47).

미사의 지향

미사 성제는 하느님을 흠숭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죄를 보속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네 가지 목적으로 봉헌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 성제를 드림으로써 하느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그때그때의 특별한 목적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흔히 미사의 은혜를 다음 네 가지로 구별한다. 즉,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산 이와 죽은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미사 성제에 참례하는 이들을 위함이며, 셋째는 특별한 것으로서 미사의 지향에 따라 지정된 영혼을 위한 것이고, 넷째는 아주 특별한 지향으로 사제를 위한 것이다.

미사에 참례하는 사람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리자인 사제와 함께 본인도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 전례, 성찬 전례³¹⁾

미사의 중요한 부분인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여 성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말씀 전례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성부의 말씀을 정성되이 듣는다. 성부께 대한 순명의 뜻으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온전히 맡기고, 끊임없이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2티모 3,16-17)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찬 전례에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성부께 자유롭게 바친 길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정결하고 가난했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언약으로 우리 자신을 바친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길로서, 그 길을 통해서만 성부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미사 성제가 성부께 바쳐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천상의 표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위대하신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디도 2,13)을 굳게 믿고 기다리면서, 미래의 하늘나라를 주시하며 성찬 전례를 통해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셔야 한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수액이 공급되듯이 하느님의 생명이 이 성찬 전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며, 또 이 성찬 전례는 우리가 사도직을 통해서 봉사하는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같은 식탁에서 생명의 빵을 받아먹음으로써 우리는 형제들과 일치를 더욱 굳게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성부께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간절한 원의를 채워드린다.

감사의 제사, 언제나 실제적 신비

미사의 희생제물은 매일 바쳐지고 그 내용은 언제나 같지만,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어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길, 새로운 영적 위안을 받는다.

미사의 첫째 부분인 말씀 전례에서 우리는 그 해의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요 진리와 윤리적 규범을 취할 수 있다. 교의와 덕행, 권고들은 성서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으로 자라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스승 예수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고,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온순하게 마음을 연다. 미사를 주의깊게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자들은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시한다.

예수-호스티아³²⁾

실체변화 때에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어 사제의 손을 거쳐 제대 위에 봉헌된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당신 상처를 보이시며, 그분을 흠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보속하시고 기도하신다. 예수께서는 오직 탄식과 말, 눈물로만이 아니라 갈바리아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성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의무를 미사 중에 완수하는 것이며,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성부께 영예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흠송, 감사, 기도

우리가 하느님을 흠송할 때에는 그분의 무한하신 속성과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하며, 일반적인 은혜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인류의 죄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어떤 미사에 참례하든지 교육적 측면에서 기인한 가르침에 우리의 신앙심을 일치시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시고, 사람은 모든 힘을 기울여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성체 준비와 감사는 성탄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성령강림일, 성모축일, 성인축일 등 미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미사에 참례할 때 말씀 전례가 지닌 특별한 가르침에 따라 만들어진 본기도에 일치하여 특별한 은총을 구하게 된다.

요약하면, 미사 성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성을 다해 믿어야 할 진리이고, 모든 힘을 기울여 따라야 할 길이며, 마음을 다하여 당신과 하나가 되어야 할 생명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미사 성제의 봉헌

지극히 거룩한 성삼이시여,
하느님의 말씀으로 단 한번 바쳐지고,
지금 당신 사제의 손을 통하여
제대 위에서 새롭게 바쳐지는 이 희생제물을 받아들이소서.
저는 사제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향에 따라
당신의 영광과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지기를 바라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하신 엄위를 흠송하고,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손상된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속하고,
교회와 저의 친지들 그리고 저를 위하여
당신 자비를 간청하나이다.

바오로인의 봉헌기도

(중재기도)

- ◎ 주님, 오늘 미사 성제를 드리는 사제들과 하나 되어 성체이신 예수님과 작은 제물인 저 자신을,
-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많은 오류와 나쁜 표양을 보속하고,
 - 이 강력한 수단에 속거나 유혹되어 아버지 당신 사랑에서 멀어져가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 이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이처럼 빛나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회심을 위하여,
 -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만을 따르기 위하여,
 -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확실한 길이며 완전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전하기 위하여,
 - 교회 안에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에 봉헌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많아져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 저작자와 기술자 그리고 보급자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되어,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도록,
 -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톨릭 창안이 점점 증가하고,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참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 저희 모두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과 신뢰로써 생명의 원천으로 나아가,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될 필요성을 느끼도록 당신께 바치오니,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빛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³³⁾

사목적 봉헌기도

- ◎ 주님, 오늘 미사 성제를 드리는 사제들과 하나 되어 성체이신 예수님과 작은 제물인 저 자신을,
- 교황과 주교와 사제들 안에 살아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행하는 모독을 보속하며,
- 참된 양우리에서 멀어져가거나 아직도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진 양들 위에 당신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져가게 하는 거짓 목자들의 회개를 위하여,
-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흠숭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하기 위하여,
- 저희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비추고 인도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 목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 위하여,
-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목자와 그들의 협력자, 특히 부모와 교사들이 거룩하게 되고 지혜와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 성소자들이 많아지고, 말씀의 효과가 증진되며, 기도와 표양의 사도직을 행하여, 어서 빨리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우리가 되기 위하여,
- ◎ 저희 모두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되어 언제나 감실 앞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당신께 바치오니, 빛과 믿음과 자비를 베푸소서.

성소를 위한 봉헌기도³⁴⁾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제와 함께 성체이신 예수님과 저 자신을,
- 당신 성자 안에서 사제직과 수도생활, 모든 성소의 창시자이신 당신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 성소를 소홀히 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부성적인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당신께 영광을 드림에 있어 부족했던 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봉헌하기 위하여,
-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를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 부르심의 응답과 성장에 알맞은 가족적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 부모, 사제, 교육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말과 영적 물질적 도움으로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 성소의 지침과 양성에 있어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 모든 가톨릭 신자가 모든 성소와 사도직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부르심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
- ◎ 저희 모두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되어 언제나 감실 앞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당신께 바치오니, 빛과 믿음과 은총을 베푸소서.

영성체

영성체 준비

믿음의 기도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로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너희는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³⁵⁾라는 당신의 초대를 듣습니다. 스승이신 주님, 당신을 믿사오니 저의 약한 믿음을 굳게 해주소서.

희망의 기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나에게 배워라.”³⁶⁾ 하고 당신은 저를 초대하시나 당신을 닮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분이고 저의 모범이십니다. 저를 당신께로 이끄시어,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덕행으로써 당신을 닮을 수 있는 은총을 베푸소서.

사랑의 기도

스승이신 예수님, “나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³⁷⁾ 고 당신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성사와 화해성사를 통해 당신 생명을 나누어주셨고 이제 당신 자신이 음식이 되어 저를 길러주십니다. 저는 영원한 행복이고 무한한 선이신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것 위에 사랑하오니, 제 마음을 차지하시어 세상의 부질없는 것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영성체 후 감사기도

흠송의 기도

저는 사람이 되신 말씀이시며, 성부의 외아들이고 빛이시요, 마리아 몸에서 나신 당신이 제 안에 계심을 흠송합니다. 진리이며 오직 한 분뿐이신 스승님, 겸손하신 모습으로 무지하고, 죄인인 제 안에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성부께 바치오니, 당신을 통하여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영원토록 찬미와 감사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의 지성을 비추시고, 교회의 양순한 제자가 되게 하시며,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성서를 바르게 알아듣는 지혜를 주소서. 저를 당신의 열렬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당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결심의 기도

예수님, 당신은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본받아야 할 완전한 모범이시니
심판 때에는 당신과 비슷하게 되어
당신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겸손과 순명의 천상 모범이시여,
당신을 닮게 하소서.
극기와 정결의 완전한 모범이시여,
당신을 닮게 하소서.
가난하고 인내로우신 예수님,
당신을 닮게 하소서.
애덕과 열정의 모범이시여,
당신을 닮게 하소서.

청원기도

저의 생명이고 기쁨이시며,
모든 선의 원천이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오니,
당신과 당신의 피로 구원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은 포도나무요, 저는 그 가지이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당신께 항상 머물고자 합니다.
당신은 샘이시니,
저의 성화를 위해
더욱 풍성한 은총을 내리소서.
당신은 저의 머리요
저는 당신의 지체이오니,
당신의 성령과 그 모든 은혜를 주소서.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로하고 구원하시며,
연옥 영혼들을 구하소서.
많은 사람들을 사도직에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세례서약 갱신과 수도서원문

세례서약 갱신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시기를 마치며, 마귀와 그 행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 예, 끊어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 예, 끊어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 예, 끊어버립니다.

〈또는 아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버립니다.

†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 예, 끊어버립니다.

† 죄의 뿌리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 예, 끊어버립니다.

†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서원 갱신

성바로수도회

저 ○○○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확고한 의지로써 저의 전 생애 동안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가까이 따르기 위해 그분께 저 자신을 봉헌하고, 창립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하기 위해 여기 모인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 준관구장의 수중에서 성바로수도회의 회헌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서 정결, 가난, 순명 그리고 사도직에 한해 교황님에게 충실할 것을 (1 년간, 종신토록) 서원합니다. 성바로 사도와 사도들의 모후이시며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며 완전한 애덕을 실현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저 자신을 이 수도회에 봉헌합니다. 아멘.

성바로딸수도회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를 보다 가까이에서 따르라고, 성바로딸수도회에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저(성명, 본명)는 온전한 자유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성별되기 위하여 저 자신을 온전히 성부께 봉헌합니다. 저는 저의 자매들과의 친교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한 복음 선포에 헌신하며, 설립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도의 모후 마리아와 성바로 사도께 신뢰하며 본 수도회 회헌에 따라 종신토록 정결, 청빈, 순명 서원을 갱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저를 도우시어 충실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영광을 드리고, 사도의 모후이시며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와 성바로 사도의 모범을 본받아, 스승 예수님을 보다 가까이에서 따르고,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하느님께 봉헌되기 위하여 완전한 자유로 저를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드리며,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스승예수제자수녀회의 회헌에 따라 서원합니다. 설립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하고, 정신과 활동에 있어서 나의 자매들과 일치하여 성체의 봉사, 사제직의 봉사, 전례의 봉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를 부르셨고, 충실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목자예수수녀회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수도회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더욱 가까이 따르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성명, 본명)는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완전한 자유의사로써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저를 축성하시도록 당신께 저 자신을 영원히 봉헌합니다. 저는 자매들과의 일치 속에서, 당신 백성 한 가운데에서 사목적 직무에 헌신하며, 설립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베드로와 성바로 사도께 신뢰하며, ○○장(총원장, 관구장, 대리인) 수녀의 수중에 의탁하며 여기 계신 모든 이 앞에서 선한목자예수수녀회의 규칙에 따라 평생 동안, 정결하고, 청빈하고, 순명하며 살 것을 서원합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히 충실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사제회, 대천사 가브리엘회, 성마리아 영보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는 하느님께 나 자신을 보다 긴밀히 봉헌하고, 스승 그리스도를 보다 가까이 따르려는 굳은 뜻으로, 예수사제회(또는 대천사 가브리엘회, 성마리아 영보회) 회규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들 앞에서, ○○○ 신부님의 손 안에서, 일 년 간(또는 이 년 간, 종신토록) 정결과 청빈과 순명을 서원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동정 마리아와 성바오로 사도의 전구를 힘입에, 전심으로 이 회에 나 자신을 바치고,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완전한 애덕으로 나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성가정회

우리(부부가 한 사람씩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 만일 서원할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면 저○○○라고 말한다.)는 천상은총의 도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이웃의 성화를 위해 삼위일체, 성가정, 성바오로 사도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고, 성가정회의 회규에 따라 ○○○신부님의 지도 아래 (일 년 동안, 이 년 동안, 전생애 동안) 결혼 정결과 가난,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약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총과 성가정의 중재로 완전한 애덕을 실행할 수 있기 위해 성가정회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바오로 협력자회 회원 선서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느님. 당신은 저를 바오로 가족의 은사와 정신대로 생활하도록 협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비오니, 저로 하여금 성바오로 사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와 형제 자매들의 성화를 꾀하고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복음을 꾀하며 저의 고유한 생활처지에 맞추어 지성과 마음, 의지와 힘을 다하여 충실히 살고자 합니다. 스승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바오로 사도의 도움으로 충실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오로가족의 매일기도

묵상

묵상의 목적은 의지를 강하게 하고 좋은 결심을 재확인하는 것이므로 매일 적어도 30분은 해야 한다.

사제나 다른 사람이 지도한다면 그 지도를 온순하게 따를 것이다. 혼자서 하게 된다면 각자에게 맞는 책을 선택하며, 특히 자주 영원한 진리와 복음서와 권위 있는 주석서에 있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묵상을 단순히 정신적 훈련이나 혹은 영적 독서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히려 많은 시간을 성찰, 통회, 결심, 기도에 할애해야 한다.

묵상 부분

묵상은 준비기도와 감사기도 외에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준비기도에서는 하느님 현존 앞에서 성령의 비추심을 구하며 굳세고 효과적인 결심을 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첫째 부분에서는 약간 설명이 있는 묵상 자료를 읽고, 관상해야 할 어떤 사건이나 신비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정신을 훈련하게 되면 천상 스승께서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진리를 밝혀주실 것이다.

자주 우리는 어떤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수난 이야기, 위대한 표양, 영원한 진리를 단순하게 관상할 것이다. 이 묵상을 충실하게만 한다면 천상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하며 필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함으로써 하느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충실한 종에게 허락하는 보상을 미리 맛본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하늘나라의 길잡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강한 원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드러내고, 지난 일에 대하여 양심성찰을 하고 죄를 뉘우치며, 앞으로의 결심을 하는 것이다.

셋째 부분에서는 주님께 항구하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한 탓으로 과거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느님, 저희가 인간적인 활동에만 의지하지 않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당신의 자비로써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가 저희를 모든 역경에서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³⁸⁾

묵상 전

천상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이 제 안에 현존하여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당신을 흠송하며,
지극히 높은 선이신 당신 앞에
겸손되이 비오니,
저의 지성을 비추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 묵상에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은총을 주소서.

묵상 후

스승 예수님, 이 묵상 동안에
내려주신 당신의 빛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저의 결심을 당신께 바치오니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성체조배³⁹⁾

성체 안에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실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를 비추고 가르치며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힘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마태 11.28)라고 말씀하신다. 성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종일토록 하는 다른 모든 선행보다 성체 앞에서 1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물론 어디서든지 하느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체를 방문하는 이에게는 예수께서 더 쉽게 은총을 내리신다.”라고 하였다.

성체조배를 충실히 하면 묵상과 미사 성제의 결실이 확고해지고 완전해진다. 다만 성체조배를 하는 동안 우리 영혼이 천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오로인의 삶은 감실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자신을 온전히 소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감실에서 이루어지고, 감실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⁴⁰⁾

성체조배는 우리의 영혼과 전존재가 예수님과 만나는 때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때이다.

제자가 천상 스승 곁에 머무는 때이다.

병자가 영혼의 의사를 만나는 때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때이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는 때이다.

나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분께 자신을 소개하는 때이다.

유혹당하는 사람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때이다.

눈먼 사람이 빛을 찾는 때이다.

벗이 진실한 벗을 찾아가는 때이다.

길잃은 양이 천상 목자에게 발견되는 때이다.

마음이 혼란한 사람이 길을 발견하는 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분을 만나는 때이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만나는 때이다.

미친한 사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을 만나는 때이다.

괴로운 사람이 위로자를 만나는 때이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때이다.

성체조배는 구유 곁에 있는 목자들, 시몬의 잔칫집에 간 막달레나,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 사마리아인, 자캐오, 필립보, 사도들, 특히 예수님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과 부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담화를 한 것과 같다.

성체조배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성부의 사제, 속죄의 제물, 메시아, 하느님의 말씀, 선한 목자, 길 진리 생명,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찾아가는 때이다.

성체조배는 전생애와 모든 사도직에 영향을 주고 방향을 짓게 하는 행위이다.

다른 모든 행위의 결실을 한데 모아 수확을 거두는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살기 위한 위대한 수단이다.
방향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함양시키는 수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게 하는 비결이다.
예수님과 성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느끼는 때이다.
향구함을 보증해 주는 때이다.
참된 성체조배는 모든 시간, 일, 생각,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이다.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일상적인 것까지도 그 힘을 미치는 수액이나 생명수이다.
영성을 형성시켜서 그것을 살고 전하게 한다.
기도 정신을 형성하여 모든 일을 기도로 변화시켜 주고 성장시켜 준다 (UPS, II pp. 101-111).

길 진리 생명의 방법

성체조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께 대한 신심을 특히 권고한다.

성체조배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기 같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첫째 부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적 지식과 믿음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부분: 길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덕행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셋째 부분: 생명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영적 작업에 필요하거나 특별한 필요성에 따른 은총을 얻기 위함이다.

이러한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달리 하는 경우라도 첫째 부분의 영적 독서, 둘째 부분의 그 날 중요 양심성찰, 셋째 부분의 묵주기도⁴¹⁾는 결코 생략할 수 없다.

흡송기도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시니
당신을 흡송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 때문에 극히 상심하셨으니
마음을 다해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인자하시니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은총을 주소서.

성서를 읽기 전에⁴²⁾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가 성바오로 사도와 교회의 정신으로
당신 사랑의 숭고한 지식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이 설교한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주소서.

성서를 읽고 나서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을 믿사오니
제 믿음을 더해주소서.
길이신 주님,
당신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라 명하셨으니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성서를 선물로 주셨으니
저는 당신께 기도하고 흠송하며
찬양하고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기억하고 보존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양심성찰

양심성찰은 스승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시하는 눈길과도 같은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상을 통해 그분의 덕을 배우고, 우리의 인격을 그분의 인격에 견주어보고,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양심성찰 때에는 스승을 바라보고, 귀기울이고, 살펴보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제자의 자세를 취한다.

양심성찰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이다.

양심성찰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죄를 통회하며, 앞으로의 결심을 더 굳게 해주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양심성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예방성찰은 아침에 행하며, 그때 결심을 새롭게 하고 그 날의 계획을 세운다.

일반성찰에서는 십계명과 복음적 권고, 주요 덕행, 자기 신분에 따르는 직무와 의무에 관하여 성찰하고, 특히 의지의 정도와 기도의 정신을 살펴본다.

그리고 특별성찰에서는 영성생활의 결심과 계획에 관해서 살펴본다.

바오로인들은 중요한 양심성찰을 성체조배⁴³⁾ 때에 하기로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심성찰을 하겠다는 것이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잘못에 대해 겸손한 태도로 지성, 의지, 마음을 다해 양심성찰을 하는 것이다.

양심성찰에는 다음 몇 가지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롭고 자비로운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문다. 그분은 선행을 헤아리시고 행한 악을 용서하시며, 영적 진보에 필요한 은총을 마련해 주신다.
2. 자기 행위에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 특히 영적으로 진보했는지 퇴보했는지를 잘 살핀다.
 - 가) 의지력과 기도의 강도
 - 나) 주요 결심
 - 다) 덕행과 의무
3.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통회를 하고, 받은 은혜와 획득한 승리, 쌓은 공로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해야 한다.
4. 굳은 결심과 우리를 용서하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
5. 보속으로 하는 극기나 기도.

양심성찰은 직접 하느님께 하는 일종의 영적 고백이다.

요한복음 서론(요한 1,1-18)⁴⁴⁾

¹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²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³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⁵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⁶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⁷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⁸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⁹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¹⁰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¹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¹²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¹³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¹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¹⁵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¹⁶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¹⁷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¹⁸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요한 10,1-18)

¹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판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² 양 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³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⁴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⁵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⁶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⁷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⁸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⁹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¹⁰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¹¹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¹² 목자가 아닌 삷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버린다.

¹³ 그는 삷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¹⁴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¹⁵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¹⁶ 나에게서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¹⁷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¹⁸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서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참된 행복(마태 5,3-10)

- ³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⁵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⁶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 ⁷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 ⁹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 ¹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혼⁴⁵⁾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방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수난은 저를 격려하소서.
오, 선하신 예수님, 저를 들어 허락하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악한 원수에게서 보호하소서.
저의 임종 때에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당신께로 오게 명하시어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기도(요한 17,1-26)⁴⁶⁾

¹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주십시오.

²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³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⁴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⁵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주십시오.”

⁶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었습니다.

⁷ 지금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⁸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⁹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¹⁰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¹¹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¹²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¹³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⁴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세상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¹⁵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¹⁶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¹⁷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¹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¹⁹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⁰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²¹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²²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³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²⁵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²⁶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편 119,1-5

후렴⁴⁷⁾: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되시며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심을 아나이다. 알렐루야.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균곤하게 살도록 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편 119,65-69

후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셨도다. 알렐루야.

야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셨사옵니다.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게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주소서.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빛나갓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꺾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편 116,10-19

후렴: 스승님께서는 이제 나의 때가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를 지내겠노라고 말씀하셨도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야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잔을 받들고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

야훼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야훼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야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당신의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사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야훼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너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

야훼의 성전, 그 울 안에서 바치리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편 51

후렴: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내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하느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별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천번 만번 옳사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주소서.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꺼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의 눈을 나의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꽃꽂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주소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빛나갔던 자들이 당신께로 되돌아오리이다.
하느님, 내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이 험로 당신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당신은 제물을 즐기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느님, 내 제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니,
어지신 마음으로 시운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그때에는 번제와 제물을 올바른 제사로
기뻐 받으시리니,
송아지를 잡아 당신 제단에 바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계: 주님, 저희 죄대로 갚지 마시고

응: 저희의 잘못대로 갚지 마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당신 백성을 굽어보시어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자비로 저희가 받아야 할
벌을 거두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시편 23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웁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묵주기도⁴⁸⁾

묵주기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신비를 생각하게 하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각 가정과 모든 사람을 위해 무수한 은혜를 얻게 하는 기도이다.⁴⁹⁾

어른이나 어린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이다. 하기 쉬우면서도 성모님에게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모님 자신이 원하신 기도이다.

묵주기도는 삶의 모든 필요와 신심행위에 도움이 되고, 죽음에 임해서는 큰 위로가 된다.

많은 교황들이 무수한 은사를 허락하면서까지 장려했고, 모든 성인이 실천한 신심행위이다. 매일 묵주기도 15단 중 적어도 그 3분의 1을 하고, 매일 그 3분의 2를 하면 더 좋고, 매일 15단을 전부 한다면 매우 좋다. 축복한 묵주를 밤낮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전하자.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묵상 주제를 바꾸어가며 각 신비를 묵상한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항상 사도직을 위한 축복과 성덕을 청하도록 하자.

기쁨의 신비

1. 가브리엘 대천사가, 동정 마리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하느님의 어머니로 간택되었음을 알리자, 마리아는 자기를 다만 주님의 종이라 하며 받아들이셨습니다(루가 1,26-38 참조). 겸덕을 청합시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메시아.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특은.

열매: 겸덕.

지향: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말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성체: 실존

순수한 사랑: 애덕의 정.

2.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도와주러 급히 떠나셨습니다(루가 1,39-40 참조). 이웃에 대한 마리아의 애덕을 구합시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는 생명이시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은총의 중개자이신 마리아.

열매: 이웃에 대한 사랑.

지향: 어머니들을 위하여.

말씀: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성체: 성체조배.

순수한 사랑: 애덕 행위.

3.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께서,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구유 안에 누워 계셨습니다(루가 2,6-7 참조). 가난의 덕을 배우고, 그 덕을 구합시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님은 길이시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열매: 가난.

지향: 어린이들을 위하여.

말씀: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

성체: 영성체.

순수한 사랑: 사랑은 성체에서 양분을 취한다.

4. 마리아께서는 아무런 의무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성전에 드리시고, 정결례를 법대로 완전히 행하셨습니다(루가 2,22-39 참조).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의 순명을 생각하고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님은 영원한 사제입니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는 모든 덕의 모범.

열매: 순명.

지향: 사제들을 위하여.

말씀: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성체: 영성체 준비.

순수한 사랑: 사랑은 묵상을 통하여 타오른다.

5. 소년 예수님은 삼일 동안 성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머물며 성부께 관한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루가 2,41-51 참조). 성소를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성심.

열매: 죄를 미워함.

지향: 교육자들을 위하여.

말씀: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성체: 영성체에 대한 감사.

순수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고통의 신비

1. 예수님은 계폐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겸손되이 확신을 가지고 항구히 기도하시자, 천사가 그를 위로했습니다(마태 26,36-46; 마르 14,32-42; 루가 22,39-46 등 참조). 기도의 정신을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인내하시는 예수님.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일생은 계속되는 순교였다.

열매: 하느님의 뜻.

지향: 유혹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 예수님은 세 번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체: 보속.

순수한 사랑: 켜 있는 등불.

2. 예수님은 돌기둥에 묶여, 사람들의 많은 부정한 죄를 대신 보속하기 위해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마태 27,26; 마르 15,15; 요한 19,1 등 참조). 정결의 덕을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우리 죄를 대신 보속하시는 예수님.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동정.

열매: 오관의 정결.

지향: 완고한 사람을 위하여.

말씀: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였다.”

성체: 독성죄.

순수한 사랑: 남의 잘못을 용서함.

3.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많은 악한 생각과 감정을 보속하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마태 27,29; 마르 15,17 등 참조). 정신과 마음의 순결을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성덕.

열매: 내적 순결.

지향: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 “유다인의 왕 만세!”

성체: 성체의 원수들.

순수한 사랑: 생각과 감정의 사랑.

4.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루가 23,26-33; 요한 19,16-17). 고통 중에 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님은 중개자이시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공동 구속자이신 마리아.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완성함.

지향: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성체: 거룩한 키레네의 시몬.

순수한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5.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은 세 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시다가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시기 위해 운명하셨습니다(마태 27,33-56; 마르 15,23-41; 루가 23,33-49; 요한 19,18-37 등 참조). 갈바리아 희생을 계속하는 거룩한 미사성체를 사랑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시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이시다.

열매: 하느님의 사랑.

지향: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체: 미사성제.

순수한 사랑: 제물로 바쳐진 인간.

영광의 신비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을 상징합니다(마태 28,1-15; 마르 16,1-18; 루가 24,1-49; 요한 20,1-30 등 참조).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하느님이신 예수님.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천상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열매: 믿음.

지향: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성체: 지극히 거룩한 성사의 승리.

순수한 사랑: 사랑의 승리.

2. 구세주께서는 찬란한 영광 중에 승리자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마르 16,19; 루가 24,50-53; 사도 1,9-10 등 참조). 우리도 세상에서 벗어나 천상의 것만을 바라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왕으로 선택되신 예수님.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영적 승천.

열매: 희망.

지향: 수도자들을 위하여.

말씀: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체: 영성체를 자주 함.

순수한 사랑: 사랑은 영원하다.

3. 성령께서 사도들을 비추고 위로하고 성화시키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사도 2,1-4 참조). 성령의 선물, 특히 지혜와 굳셈과 열정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사도의 모후.

열매: 열정.

지향: 교회를 위하여.

말씀: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성체: 성체와 적극적 삶.

순수한 사랑: 애덕은 성령의 열매.

4.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는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시고, 찬란한 영광 중에 영혼과 육신으로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셨습니다(시편 45,14; 루가 1,52; 교회헌장 59 등 참조). 우리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 안에 죽기 위하여 거룩히 사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예수님은 임종자들의 위로이시다.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 공경.

열매: 선종.

지향: 죽은 이들을 위하여.

말씀: “마리아께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즐거워하도다.”

성체: 첫영성체와 병자성체.

순수한 사랑: 하느님 사랑의 위대함.

5. 마리아께서는 모든 은총의 분배자요,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오신 어머니로서 하늘과 땅의 모후의 관을 받으셨습니다(묵시 12,1 참조). 우리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향구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묵상자료

묵주기도 안의 예수: 심판자이신 예수님.

묵주기도 안의 마리아: 마리아의 힘.

열매: 향구함.

지향: 사회 홍보수단의 사도직을 위하여.

말씀: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성체: 천상 영광의 보증.

순수한 사랑: 영혼 안에 계시는 하느님.

성모 호칭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주의 성모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그리스도의 어머니
 천상 은총의 어머니
 티없으신 어머니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순결하신 어머니
 흠없으신 어머니
 사랑하올 어머니
 탄복하올 어머니
 슬기로우신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공경하올 동정녀
 찬송하올 동정녀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상지의 옥좌
즐거움의 샘
신비로운 그릇
존경하올 그릇
지극한 사랑의 그릇
신비로운 장미
다윗의 망대
상아탑
황금궁전
계약의 궤
하늘의 문
셋별
병자의 나움
죄인의 피난처
근심하는 이의 위안
신자들의 도움
천사의 모후
성조의 모후
예언자의 모후
사도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증거자의 모후
동정녀의 모후
모든 성인의 모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묵주기도의 모후
가정의 모후
평화의 모후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체강복

성체조배는 가능하면 매일 성체가 현시된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 성체강복을 받기 전에 다음의 준비를 한다: 성체 노래와 짧은 성서 낭독을 하고, “지존하신 성체 앞에”를 노래한 후 성체강복이 이어진다.

1월은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달이다. 성체강복 직전에, 스승 예수께 바치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다음 기도를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당신의 진리와 성화의 길을 가르쳐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 사랑으로 외아들을 세상의 스승으로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천상 지혜에 동화되어 초자연적인 것을 더욱 쉽게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월은 성요셉에게 공경을 드리는 달이다. 성요셉에게 바치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다음 기도를 한다.

성요셉을 당신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모든 재산 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성요셉의 충실한 수호에 우리 구원의 시작을 맡기신 전능하신 하느님, 그의 친구로 구원사업을 완성시키는 데 충실하게 협력하는 당신 교회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월은 지극히 거룩하신 사도의 모후 마리아께 공경을 드리는 달이다. 사도의 모후께 바치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다음 기도를 한다.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를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 모인 당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느님, 동정 마리아의 친구로 저희를 축성하시어 당신을 충실히 섬기게 하시며, 당신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말과 표양으로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월은 성바오로 사도에게 공경을 드리는 달이다. 성바오로 사도에게 바치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다음 기도를 한다.

간택된 그릇인 성바오로 사도님,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한 설교자시나이다.

기도합시다. 당신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바오로 사도를 택하신 우리 주 하느님, 성바오로가 왕과 나라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 그 믿음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주시고, 당신 교회가 항상 백성들의 어머니요 스승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성체

지존하신 성체 앞에 꿇어 경배드리세.
묵은 계약 완성하는 새 계약을 이뤘네.
오묘하온 성체신비 믿음으로 알리라.

영원하신 성부성자 위로자신 성령께
구원받은 환희로써 영광찬미 드리세.
무한하신 권능권세 영원무궁하리라. 아멘.

†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천상으로부터 음식을 내려주셨도다.
◎ 온갖 단맛을 다 가져다주셨도다.⁵⁰⁾

기도합시다. 이 기묘한 성체성사로 당신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가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도록 당신의 성체와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생생한 믿음으로 공경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또는,

기도합시다. 하느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이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 백성이 구원의 샘에서 은총의 물을 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우리의 하느님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흠숭하도록 당신 사랑의 불꽃과 믿음의 빛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부활의 신비를 기념하는 저희가 구원의 결실을 얻도록 당신 자비로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강복 후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천상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당신 품 안에 다시 받아들이시는 성사이다. 또 이 성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없애줄 뿐 아니라 다시 죄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고, 결점을 고치게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고해성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보는 것이 좋으나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하는 습관을 들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고해사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고해성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기도, 성찰, 통회, 결심, 고백, 보속 등을 잘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결심이 따른 통회이다.

고해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주님의 기도'를, 죄인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에게는 '성모찬송'을, 수호천사에게는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친다. 이런 기도들은 우리 죄를 잘 알아내고 죄를 깊이 뉘우치며, 진실되어 고해할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함이다.

양심성찰 때는 생각, 원의, 감정, 말, 행위, 빠뜨린 일에 대해, 또 십계명과 교회의 규정(아래의 목록), 영적 물질적 자비 행위, 신분에 합당한 의무에 대해, 특히 신심, 공부, 사도직, 가난, 지난 연피정의 결심에 대해 거스른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결심에 머물면서 행한 일, 결함, 진보한 것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십계명

- 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 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사.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오. 사람을 죽이지 마라.
- 육. 간음하지 마라.
- 칠. 도둑질을 하지 마라.
- 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 십.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마라.

성교 5규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 참례할 것.
2. 정한 날의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것.
3. 첫 고해와 영성체를 한 신자는 일년에 적어도 한 번(부활 전·후) 고해, 영성체할 의무가 있다.
4. 교회 유지비를 부담할 것.

5. 교회 정신 및 교회법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킬 것.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대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의 결과요, 그로 인해 은총과 많은 공로와 천국을 잃고, 연옥과 지옥의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라.

통회기도

인자하신 주님,
저는 제 탓으로, 제 큰 탓으로 많은 죄를 지어
당신 은혜를 저버린 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저를 판가름하려 부르시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나의 예수님,
당신 성혈의 공로로써 저를 용서하소서.
죄인의 피난처이신 마리아님,
저를 자비로이 받아들이소서.
앞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기회까지도 피하기로 굳게 결심하나이다.
특히 저의 주요 결심을 갱신합니다.

고해성사 예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 아멘.

고해한 지 (며칠, 몇 주일, 몇 달) 됩니다.

(알아낸 죄를 낱알이 고백한다.

죄를 고백한 다음)

-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제는 고해자에게 훈계하고 보속을 준다. 필요하다면 고해자에게 다음의 통회기도를 바치게 할 수 있다.)

-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사제는 고해자 머리 위에 두 손이나 오른손을 펴 들고 사죄경을 외운다.)

- †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는 성부와 □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 아멘.

† 주님을 찬미합시다.

●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주님, 제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당신은 저를 벌하셔야 합당하오나, 거룩한 이 고해성사의 무한한 자비로 저를 용서해주시니, 당신의 선하심에 무엇이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의 은총으로 다시는 당신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께 지은 수많은 잘못을 선행과 사랑으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거룩하신 동정녀와 하늘의 천사와 성인들이여, 저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오니 당신들도 저를 위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선을 행하는 데 항구하고 항상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결심은 완전해야 한다. 즉 생각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 성화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을 사랑하는 데는 그를 좋게 생각하고,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에게 선을 행하며, 그가 잘 되도록 말해야 한다.

주일: 스승 예수께

첫 주일은 스승이고 중개자이신 예수께 바치는 날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성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한다. 종말의 실재, 특히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생각하자.

1. 천상 스승 예수님, 생명을 주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성부께서 보내주신 당신을 사람이 되신 말씀으로 흠송합니다. 당신은 창조되지 않은 진리요,⁵¹⁾ 유일한 스승이시며,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⁵²⁾ 저희의 이성을 밝혀주시고,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불러주셨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생각을 다해 당신과 교회를 믿고 따릅니다. 스승 예수님, 당신 지혜의 풍부하심을 저희에게 보이시며, 성부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어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영원히 뵈게 하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 천상 스승 예수님, 저희는 당신을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⁵³⁾이시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흠송합니다. 당신 친히 모범이 되어주시고, 높은 완덕의 표양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저희를 불러주셨기에,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이 지상에서 하신 갖가지 일을 관상하고, 당신의 배움터에서 가르쳐주신 것을 온순하게 따르겠습니다. 저희를 이끄시어 당신의 뒤를 따라 걷게 하시며, 자신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당신의 뜻만을 찾게 하소서. 저희 안에 활기찬 희망을 증가시켜주시어 심판 때엔 당신과 비슷하게 되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원의를 더욱 크게 해주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3. 천상 스승 예수님,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욱 풍부하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로⁵⁴⁾ 당신을 흠송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참된 생명을 얻어 세례 때에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를 통하여 당신 생명으로 길러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사시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사랑을 위하여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소서.⁵⁵⁾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사랑을 더해주시어, 언젠가 무덤에서부터 영광의 삶으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 속에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의 신비체요 구원의 유일한 궤인 교회 안에 살아 계시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그르칠 수 없고 결점이 있을 수 없는⁵⁶⁾ 어머니이신 교회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 인류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⁵⁷⁾ 되어 주심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청하오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꺼지지 않는 교회의 빛으로 나오고,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교회의 품안으로 돌아와, 온 인류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주소서.⁵⁸⁾ 교회를 들어 높이시고 교황을 도와주시며 성직자들과 당신께 봉헌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주 예수님, 저희의 바람은 바로 당신의 바람이오니, 하늘나라에서 승리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⁵⁹⁾ 하나의 양우리와 한 목자만이 있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5. 천상 스승 예수님,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당신 강생의 동기를 노래한 천사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의 사도직에⁶⁰⁾ 저희도 참여시키고자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한 열정의 불이 저희 안에 타오르게 하소서.⁶¹⁾ 예수님, 저희 안에 사시어 저희의 모든 능력이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고통, 출판과 말, 표양과 활동의 사도직으로 당신을 빛내게 하소서.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시며, 설교자, 교육자, 저작자들을 비추시고⁶²⁾ 그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시어,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일도록 지성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⁶³⁾

스승이신 주님, 오시어 어머니며, 스승이요, 모후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다스리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묵상 전후에 스승 예수님께 드리는 화답송 하나를 읽거나 노래한다.

스승이시여, 저희가 알거니와 스승은 진실되시며, 또 하느님의 길을 진실히 가르치시나이다. 알렐루야.

마리아의 노래(364면)

선한 목자 예수께

1. 인류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은 양떼 가운데 항상 계시고자 성체 안에 현존하여 계십니다. 당신은 양들을 기르고 보호하시며, 천상 양우리로 인도해주십니다. 저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리와 사랑의 가르침으로 살아갑니다. 양들은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고 사랑으로 따릅니다. 오류와 무지의 어둠 속에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 진리대로 이끌어주소서.

복음 선포자와 교리교사, 그리고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사도들을 증가시켜 주소서. 저희 마음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인류를 찾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흠어진 양들을 불러모아 길러줄 목자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앞장서 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당신은 계명과 권고를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신 영원한 빵으로 양육됩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을 당신의 길로 다시 불러들이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시며, 연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해주소서. 모든 사람이 우리 영혼의 목자요 보호자이신 당신을 따르게 해주소서. 당신만이 길ियो,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3.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죄많은 양들을 살리시려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 죄도 없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세례와 견진, 고해와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 생명을 저희에게 주소서. 모든 사람이 성령과 함께 살게 하소서!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당신의 양우리에 다시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피로 얻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고, 모든 사람에게 일치와 구원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저는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당신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바치나이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 예수님, 당신을 으뜸가는 목자로 흠송합니다. 당신은 교황과 주교, 사제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 목자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제들을 보내주소서.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시고, 저희에게는 그들의 열의에 협력하는 은총을 주시고, 당신이 목자로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는 날 당신의 양들 가운데 있게 하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5. 하늘로부터 사랑의 불을 가져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 마음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하고자 하는 열망과 형제들에 대한 큰 사랑이 타오르게 하소서. 저희를 당신의 사도직에 참여시켜주소서. 저희 안에 사시어 말과 고통, 사목활동과 훌륭한 삶의 모범을 통하여 당신을 빛내게 하소서.

온순하고 충실한 양으로서 교회의 사목활동에 합당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가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천상 목자님, 오시어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어서 빨리 하나의 양떼와 한 목자만이 있게 하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월요일: 성바오로 사도에게⁶⁴⁾

첫 월요일에는 성바오로 사도를 알고 기도하며, 좋은 성소자들을 얻고 양성시키며, 우리와 협력자들에게 필요한 사도직 정신을 청하기 위하여 성바오로에게 다가간다.

1.⁶⁵⁾ 예수님, 성바오로 사도에게 베푸신 큰 자비로, 포악한 박해자를 교회의 열렬한 사도로 변화시킨 당신께 찬미드립니다.⁶⁶⁾

위대하신 성바오로 사도님, 저에게 은총에 온순히 따르는 마음과⁶⁷⁾ 주요 결점에서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은혜를 얻어주소서.⁶⁸⁾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⁶⁹⁾ 예수님, 성바오로를 거룩한 동정의 표양과⁷⁰⁾ 설교자가 되게 하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⁷¹⁾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신 성바오로님, 제 지성과 마음과 감각을 지키시어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힘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봉헌할 수 있게 하소서.⁷²⁾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⁷³⁾ 예수님, 성바오로를 통하여 완전한 순명의 표양과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⁷⁴⁾

위대하신 성바오로 사도님, 모든 웃어른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은혜를 얻어주시며, 순명함으로써⁷⁵⁾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⁷⁶⁾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⁷⁷⁾ 예수님, 성바오로의 행적과 말씀으로 참된 가난의 정신을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⁷⁸⁾

위대하신 성바오로 사도님, 가난의 복음 정신을 저희에게 얻어주시어⁷⁹⁾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당신을 본받고, 하늘나라에서는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⁸⁰⁾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⁸¹⁾ 예수님, 성바오로에게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⁸²⁾ 그의 열정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⁸³⁾

저희의 벗이신 성바오로 사도님, 착한 사도들에게 약속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⁸⁴⁾ 저희에게 사회 커뮤니케이션, 기도, 모범, 활동, 말씀의 사도직⁸⁵⁾을 수행할 열렬한 원의를 얻어주소서.⁸⁶⁾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상 전후 또는 성체조배 중 다음 화답송을 읽거나 노래한다.

진리의 설교자시며, 이교 백성들의 스승이신 성바오로님, 당신을 간택하신 하느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의 노래(364면)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에게

1. 선한 목자 예수님,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를 교회의 으뜸가는 목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거룩한 직무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거룩한 사도들이여, 저에게 회개의 은혜와 성소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전구해 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선한 목자 예수님, 성베드로와 성바오로에게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주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거룩한 사도들이여,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전구하시어 저의 온 힘을 주님께 봉헌하는 은혜와 정결한 마음을 얻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3. 선한 목자 예수님,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를 설교자요, 가난의 모범으로 세우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저희의 힘있는 보호자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마리아께 전구하시어, 가난을 사랑하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4.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에게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인 순명의 정신을 얻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5. 선한 목자 예수님, 영광스러운 순교로, 거룩한 사도들의 삶을 빛내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저희의 수호자들이여, 착한 사도들에게 마련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좋은 표양, 고통, 사목활동의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화요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첫 화요일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명복을 빌어주고, 우리를 위해서는 연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바치는 날이다.

1. 나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당신은 정의로우시기에 죄나 그 벌을 다 기워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을 위해 연옥을 마련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은 자비로우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드리는 기도, 특히 미사의 희생제물을 받아들이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제 안에 이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2.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전구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을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하늘나라 군대의 우두머리이신 성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 당신께 바치는 찬미의 기도와 희생을 받아들이시어 그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그들에게...

3. 선하신 스승 예수님, 제가 마땅히 감사와 사랑을 드려야 할 분들, 즉 부모, 은인들, 수도회 회원들, 친척들을 위하여 당신께 간구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던 분들, 즉 사제, 수도자, 위정자, 장상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거둬 청하오니, 잊혀진 영혼들과 스승 예수와 사도의 모후와 성바로 사도에게 신심 깊었던 영혼들을 어서 빨리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불러들이소서.

주님, 그들에게...

4.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 거룩함, 죽으심으로 사람을 많은 죄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이 원인이 되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 영혼들이 언젠가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도록 맡깁니다. 현세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당신이 베풀어주신 모든 선이, 사도직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오늘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소서.

주님, 그들에게...

5. 인자하신 예수님, 괴로우셨던 당신의 수난과 제게 베풀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청하오니, 저의 많은 죄로 말미암아 현세에서나 후세에서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용서해주소서. 주님, 저에게 보속의

정신과 섬세한 양심을 주시고, 알면서 범하는 모든 소죄까지도 미워하게 하시며, 대사를 얻기에 필요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약속하오니, 무한히 선하신 주님, 제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당신을 관상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열정을 복돋워주소서.

주님, 그들에게...

목상 전후 또는 성체조배 중 다음 화답송을 읽거나 노래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요한 17,24 참조).

위대한 사랑의 기도

나의 하느님, 당신의 더 크신 영광을 위하여 제가 앞으로 행할 모든 선행 중에, 속죄의 가치가 있는 것과 죽은 후에 받을 기도를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로에 합쳐 당신께 드리며, 연옥 영혼들에게 양보하오니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모두 사용하소서.

수요일: 성요셉에게⁸⁷⁾

첫 수요일은 세 가지 목적으로 성요셉에게 바쳐진 날이다. 온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보호를 청하고, 우리 각자를 돌보시고 이 달에 임종하는 모든 사람이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모든 필요에 하느님의 섭리를 청한다.

1. 구원사업에 충실한 협력자 성요셉님, 아직도 많은 오류와 악습에 젖어 있는 가련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양순한 도구로서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시절을 돌보시며, 그분을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 사제, 천상 스승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가장 온순히 따르신 성요셉님, 당신께 청하오니 저희에게 성소자와 그들을 양성시키려는 열의를 얻어주소서. 저희가 귀중한 선물인 하느님의 부르심에 관대하고 항구히 응답하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요셉님, 저희에게 당신의 내적 정신을 얻어주소서. 당신은 사랑과 노동으로 일관된 침묵과 모든 종교적 사회적 규정의 이행과 하느님의 뜻에 온순히 따름으로써 지극히 높은 성덕과 천상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주님께 빌어주소서,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더해주시고, 사추덕을 고취시켜 주시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 성요셉님, 저희는 당신을 노동자의 모범, 가난한 이의 벗,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민자들의 위로자, 섭리의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보편적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은 나자렛의 목수이셨고, 저희를 위해 겸손한 노동자가 되신 하느님 아들에게 노동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성요셉님, 당신의 기도로 정신적, 윤리적, 물질적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소서.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법과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정신, 정의와 평화에 입각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예수님의 양부 성요셉님, 베들레헴, 이집트, 나자렛에서 예수님의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에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셨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아들로서 드린 사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흠숭하셨고, 그분은 당신께 순종하고 돕고 따르셨습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다정한 대화를 나누셨으며, 일과 극심한 고통과 따뜻한 위로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비오니, 죄를 지어 다시는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잃지 않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저희가 예수님께 항상 자신을 고백하고 친교를 잘 나누며, 이 세상에서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도록 하고, 강하면서 부드럽게 사랑하도록 하며, 하늘에서는 그분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정배이신 성요셉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저의 사랑하올 어머니이며 스승이며 모후이신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얻어주소서. 하느님의 뜻으로 당신의 사명은 마리아의 사명에 합쳐졌으며, 마리아와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셨을 뿐 아니라 덕과 노동, 공로에서도 거룩한 경쟁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같이하셨습니다. 성요셉님,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 빌어주소서. 또한 저희에게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더 잘 알고 본받고 사랑하며, 그분께 항상 기도하는 은혜를 얻어주시어 그분의 모성애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6. 임종하는 이의 보호자이신 성요셉님, 임종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의 임종 때에 당신의 도움을 받고자 간청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생애를 보내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도움을 받는 형언할 수 없는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를 돌연한 죽음에서 구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당신을 본받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이탈하여 죽음의 순간을 위해 매일 보화를 쌓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병자성사를 잘 받게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통회의 정을 북돋워주시어, 저희가 평화로이 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7. 모든 교회의 보호자 성요셉님, 교황과 주교단,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신자들을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그들의 성화를 위해 빌어주소서.

교회는 당신이 기르신 성자 예수의 피로써 얻은 결실이오니, 교회의 발전과 자유와 확장을 위해 저희의 기도를 당신께 바칩니다. 위험했던 아기 예수의 생명을 헤로데의 손에서 구하시듯이, 교회를 오류와 악과 지옥의 세력에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우리가 되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게 하소서.

성요셉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상 전후 또는 성체조배 중에 다음 화답송을 읽거나 노래한다.

보라, 주인이 자기 집안에 둔 충직하고 슬기로운 종이로다.

마리아의 노래(364면)

목요일: 수호천사에게

첫 목요일은 수호천사를 알고, 우리가 물질적 정신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악마의 유혹에서 구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염려하고 애쓰는 수호천사에게 바치는 날이다.

1.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창조하시는 당신 손에서 제 영혼이 탄생했을 때부터 저를 '비추고 지키고 인도하며 다스리도록', 한 천사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호천사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매일 저를 동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감과 영육의 끊임없는 위험에서 보호하심과 주님께 드리는 당신의 힘 있는 기도는 저에게 큰 위로이며 확고한 희망이 되나이다.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저를 비추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고 다스리소서.
아멘.

2. 항상 주님을 관상하시고, 제가 당신과 같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수호천사님, 저는 여러 번 당신의 권고를 듣지 않았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으며, 늘 가까이 계심을 자주 잊었사오니 주님께 용서를 청해주소서.

저를 지켜주시는...

3. 모든 덕에 충실하고 강하신 수호천사님, 당신은 성미카엘 대천사의 지휘 아래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이기신 분들 중의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한 번 있었던 전쟁이 땅에서는 아직도 계속되며, 악의 우두머리와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거슬러 싸우는 하느님의 도성인 교회를 위하여 티없으신 사도들의 모후께 기도해 주소서. 성미카엘 대천사님, 당신을 따르는 모든 천사와 함께 이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마귀의 계략과 함정에 맞서 저희의 힘이 되어주소서. 주님께서 악마를 굴복시켜주소서. 하늘나라 군대의 지휘관이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탄과 다른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 보내소서.

저를 지켜주시는...

4.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님, 저작자, 기술자, 시청각 기술을 이용하여 말씀의 보급에 힘쓰는 사람들과 모든 이용자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고 진리로 인도하며 참된 사랑을 얻어주소서. 주님께 청하여 이 기술적 사도직에 필요한 성소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사명에 함께 해주소서. 활동과 기도와 회사로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소서. 시청각 기술 세계를 비추고 지키고 인도하며 다스리어, 시청각 기술이 현세의 삶을 향상시키고 인류가 영원한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데 쓰이게 하소서.

저를 지켜주시는...

5. 주님의 모든 천사님, 당신들은 지존하신 성삼을 흠송하고, 끊임없이 찬미와 찬양을 드리며, 저희의 잘못을 기워 갚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과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며,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끊임없이 노래하십니다. 청하오니 모든 인류가 참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드님과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알게 하소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소서.

위정자, 노동자, 고통받는 사람들 위에 보호의 손길을 펴시고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구원을 얻어주소서.

저를 지켜주시는...

묵상 전후 또는 성체조배 중에 다음 화답송을 읽거나 노래한다.

저희를 수호하는 거룩한 모든 천사님, 무서운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도록 저희를 싸움에서 보호하소서.

마리아의 노래(364면)

금요일: 예수 성심께⁸⁸⁾

첫 금요일은 예수 성심을 알고 존경하며 베풀어주신 큰 은혜, 즉 복음, 성체, 교회, 사제직, 수도생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⁸⁹⁾에 보답하기 위해 바치는 날이다.

저희의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 앞에 엎드려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신 것이 없는 당신의 성심을 흠송합니다. 저희를 위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선물, 특히 복음서, 성체, 교회, 사제직, 수도생활, 어머니이신 마리아, 당신의 생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 천상 스승 예수님, 복음서를 주신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우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하신 당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당신은 복음서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비를 저희에게 드러내셨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셨으며 구원의 수단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복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교회의 정신대로 듣고 읽으며, 당신이 복음을 전하실 때 가지셨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존경을 받고 환영받게 하소서. 세상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법과 관습과 가르침을 따르게 하소서. 당신이 땅 위에 가져오신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붙고 비추며 뜨겁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2. 천상 스승 예수님, 성체를 주신 큰 은혜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자애로우신⁹⁰⁾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물며, 미사 성제 때에 당신의 수난을 새롭게 하고, 영성체 때에는 당신을 저희 영혼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숨어 계신 하느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성심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길게 하소서. 이 성사 안에 계신 당신을 매일 방문하고, 거룩한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자주 영성체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3. 천상 스승 예수님, 교회를 주신 큰 은혜에 대하여 당신의 지극히 어지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초자연적인 생명을 전해주는 어머니이십니다. 교회는 당신의 신비체로서 당신이 하시던 것과 같은 구원의 사명을 땅 위에서 계속하고 있는 구원의 귀요, 그르칠 수 없고, 결점이 있을 수 없으며 공변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성혈로 성화시키시듯이 저희도 교회를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상이 교회를 알고, 모든 양은 당신의 양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모두가 겸손되어 당신의 나라에 협력하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4. 천상 스승 예수님, 사제직을 제정해 주셨으니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올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성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듯이 당신은 사제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교리와 법과 은총의 보화와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사제들을 사랑하고 경청하며, 그들이 인도하는 당신의 길로 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사제들이 세상을 정화하고 부패를 막는 소금, 세상의 빛,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되며, 당신 성심에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하늘에서는 그들이 구해낸 많은 영혼들이 기쁨의 화관이 되어 그들을 에워싸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5. 천상 스승 예수님, 봉헌생활로 불러주심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여 복음적 완덕의 길로 불러주시고, 친히 그들의 모범과 도움과 값음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성심이여, 수도자들의 성소를 증가시켜 주시고, 그들이 복음적 권고를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교회의 가장 향기 높은 꽃밭이 되고, 당신께 기쁨을 드리고 기도하며, 모든 사도직에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6. 천상 스승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저희의 어머니요, 스승이요, 모후로 주신 은혜에 대해 지극히 자애로우신 당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저희 모두를 마리아의 손에 맡기시고, 그분께 넓은 마음과 뛰어난 지혜와 위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청하오니, 온 인류가 마리아를 알고 사랑하며, 마리아께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인도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마리아의 손에 맡기셨던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마리아의 손에 맡기오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영원히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7.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도 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당신의 지극히 온유하신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의 피, 상처, 채찍, 가시, 십자가, 그리고 기울어진 당신의 머리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제 마음에 말해줍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저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서 당신의 큰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⁹¹⁾라고 항상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이 당신과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어지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묵상 전후 또는 성체조배 중에 다음 화답송을 읽거나 노래한다.

아들아, 너의 온 마음을 내게 다오. 그리고 너의 눈은 나의 길만을 찾아라.

마리아의 노래(364면)

예수 성심 호칭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영원한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성심
 동정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성심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성심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예수 성심
 하느님의 성전이신 예수 성심
 지존하신 이의 장막이신 예수 성심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신 예수 성심
 사랑의 불가마이신 예수 성심
 나눔과 베품의 그릇이신 예수 성심
 자비와 인정이 넘치시는 예수 성심
 모든 덕행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
 지극한 찬미를 받으실 예수 성심
 모든 마음의 중심이요 임금이신 예수 성심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예수 성심
 천주성이 충만하신 예수 성심
 성부의 기쁨이신 예수 성심
 풍부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성심

죽은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예수 성심
모든 이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 성심
생명과 성덕의 샘이신 예수 성심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성심
극도의 모욕을 당하신 예수 성심
저희 죄로 찢기신 예수 성심
죽기까지 순명하신 예수 성심
창에 찢리신 예수 성심
모든 위로의 샘이신 예수 성심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성심
평화요 화해이신 예수 성심
죄인들의 제물이 되신 예수 성심
주님께 바라는 이들의 구원이신 예수 성심
주님을 믿으며 죽는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모든 성인의 즐거움이신 예수 성심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 마음이 어질고 겸손하신 예수님
-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자의 성심을 보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바친
성자의 찬미와 보속으로 마음을 푸시어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토요일: 사도의 모후께⁹²⁾

첫 토요일은 모후시요 어머니시며 스승이신 마리아를 더 잘 알고, 사랑하며 본받고 기도하기 위해 바치는 날이다.

1. 하늘과 땅에서 가장 사랑하올 모후님, 성부의 큰 사랑을 받는 따님이며, 성자의 지극히 높으신 어머니요, 성령의 영화로운 정배이신 마리아님, **당신의 믿음과 겸손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기에 완전한 정결을 보존하시면서도 저희의 스승이요, 세상의 참된 빛이며, 창조되지 않은 지혜이시고, 모든 진리의 샘이며, 진리의 첫째 사도이신 구세주의 위대하신 어머니가 되셨으니**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그 특은을 존경하며 찬미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말씀'이신 책을 세상에 읽으라 주셨습니다. 당신이 누리셨던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숭고한 특권을 받으신 데 대하여 지존하신 성삼을 찬미합니다. 청하오니 제가 천상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열렬한 제자가 되며, 교회의 성실한 자녀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모든 오류를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사도좌 주위에 모이게 하소서. 착한 의견의 어머니, 상지의 옥좌, 모든 성인의 모후님, 학자들과 설교자들과 글쓰는 사람들을 비추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모든 천사의 모후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시고, 티없이 잉태되시고, 피조물 중에 축복을 받으신 이며, 살아 계신 하느님의 감실이시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당신께 요한 사도를 아들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 특히 사도들을 아들로 주셨던 그 괴롭고도 엄숙한 순간을 기억하소서.** 그때 십자가를 따르고 사도직과 예수님의 사랑에 몸바친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감미로운 애정이 당신 마음에 흘러 넘쳤겠나이까? 마리아님, 당신과 당신 아드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당신 모성애로 사도들과 선교사, 사제와 동정자들의 영광스런 무리를 증가시켜 주소서. 그들 안에 거룩한 생활, 건전한 관습, 굳은 신심, 깊은 겸덕, 견고한 신앙심, 더 열렬한 애덕이 빛나게 하소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 순교자들의 위대한 모후, 셋별이며, 죄인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시며 사도들을 쉼처하기 위해 성령과 그 칠은을 구하고 얻으며, 다락방에서 사도들의 스승이시며 위로자요 어머니로 계시던 그때를 생각하시어 기뻐하소서.** 하느님의 마음을 언제나 감동시키시는 당신의 겸손되고 능한 기도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귀한 보혈로 지옥에서 구해내신 영혼들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재촉하고, 가난한 인류의 영적 비참함이 저희를 자극시키어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게 하소서. 저희가 유년, 청소년, 장년, 노년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드넓은 아프리카, 광대한 아시아, 유망한 오세아니아, 많은 시련에 부대낀 유럽, 그리고 두 개의 아메리카 대륙은 저희가 가장 동경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표양과 말, 기도와 출판, 영화와 라디오, 텔레비전과 컴퓨터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한 사도직이 아무리 어려운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일할 많은 관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소서. 교회의 어머니, 사도의 모후, 우리의 변호자이신 마리아님,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탄식하며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인자한 어머니, 하늘의 문, 평화와 기쁨의 샘, 신자들의 도움, 임종하는 이의 위로, 실망한 이의 희망인 마리아님, **예수님의 복된 팔에 안기어 하늘로 오르시기 위해 이 땅을 떠나시던 그 행복한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아름다우시도록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천사와 성인, 증거자와 동정녀, 사도와 순교자, 예언자와 성조들보다도 더 많은 영광을 받고 계시오니, 저도 비록 합당치는 못하오나 잘못된 구렁 속에서 누우친 목소리로 그들과 하나 되어 감히 당신을 찬미 찬양합니다. 마리아님, 제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⁹³⁾ 회심의 생활을 하여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시며, 언젠가 하늘에서 당신을 찬미하는 성인들의 소리에 제 소리도 합쳐지게 하소서. 저를 당신께 봉헌하고, 또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며, 여기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계신 앞에서 세례 때에 했던 그 약속을 갱신하고 여러 번 죄에 떨어지게 한 자애심을 극복하며, 주요 결점과 끊임없이 싸우기로 한 제 결심을 새롭게 하여 당신 성심께 바칩니다. 죄인의 피난처요, 셋별이며, 근심하는 이의 위로자이신 마리아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준비하시어 큰 죄인을 큰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바다의 별, 감미로운 여왕, 우리의 생명, 평화의 모후 마리아님, **지존하신 성삼께서 당신을 하늘과 땅의 어머니요, 모든 은총의 분배자요, 지극히 사랑하을 어머니로 화관을 씌워주신 그 날은 참으로 위대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큰 승리였고 천사와 성인, 이 세상과 연옥영혼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습니까! 마리아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며,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 후에 하늘에서 당신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의심치 않으나 다만 당신께 기도하는 데에 항구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오니 저에게 항구하는 덕을 얻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소서. 마리아님, 욕정과 마귀와 세속이 저를 유혹하오니 저를 당신과 예수님의 품 안에 잘 보호하소서. 어머니,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잠시도 떠나지 마소서. 아침에 첫 눈길을 당신께로 보내고, 낮에는 당신 망토에 싸여 걷고, 저녁에는 당신의 눈길 아래서 잠들게 하소서. 당신은 순진한 어린이들에게는 평화로운 웃음을 지으시고, 투쟁하는 젊은이에게는 힘이 되시며, 일하는 어른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노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제 일생을 전부 당신께 바치오니, 이제와 특히 임종의 고통 중에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가 숨을 거둘 때에는 저를 꼭 붙잡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의 당신 옥좌 앞에 이를 때까지 놓지 마소서. 나의 모후요, 변호자며, 어지신 마리아님, 저에게 거룩한 인내를 얻어주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묵상 전후 또는 성체조배 중에 다음 화답송을 읽거나 노래한다.

저희의 스승이며 모후이신 마리아님, 당신 아들인 추수 주인에게 추수에 많은 일꾼을 보내게 하소서.

알렐루야.

마리아의 노래(364면)

선한 목자의 어머니신 마리아께

1.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업적을 모든 세대가 기리게 하소서. 당신은 동정ियो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요 선한 목자의 어머니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기르고 사랑하고 경청하고 따르셨으며,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지켜보셨습니다. 교회와 복음, 성사와 수도생활, 영원한 생명이 그분과 당신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천상교회의 기쁨이요 희망이며 순례하는 교회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오니 저를 비추시고, 온순하고 충실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선한 목자의 어머니요,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갈바리아에서 당신이 받으신 고통을 관상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분의 양떼와 교회의 목자들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신은 믿는 모든 사람과 사제들을 맞아들이고자 마음을 여셨습니다. 당신은 초대교회를 붙들어주셨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켰으며, 모범으로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항상 하느님 백성을 돌보시어 당신을 통하여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많은 성인이 나게 하시며, 악의 세력을 눌러 이기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더욱 온순하고 신심 깊고 굳센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한 전구로 한 목자 아래 하나의 양우리만 있게 하소서. 교황을 격려하시고, 신앙의 스승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며, 영혼의 모든 목자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과 당신의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이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는 길 잃은 양이오니 죄인들의 피난처시여, 저를 구하소서. 하늘나라의 길을 찾고 있사오니 착한 의지의 어머니, 저를 비취주소서. 저는 겁 많고 연약하오니 능하신 동정녀여, 저를 당신의 두 팔에 안아 데려가 주소서. 저는 이리에게 쫓기는 어린 양이오니 구세주의 어머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소서. 당신 태중의 아들이신 성체 예수님으로 저를 양육하소서. 저는 목자 예수님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마리 양이오니 선한 목자 마리아님, 항상 더 당신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받으시어 양순하고 충신했던 양무리에 들게 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수도자들을 증가시키시어,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 참된 신심의 스승, 하느님 곁에서 전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보속, 기도, 애덕과 사도직 활동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형제들을 인도하며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수도서원에 충실하고 나날이 진보하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인들의 어머니요, 수도자들의 모후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은 우리의 목자시니 아직도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는 흩어진 당신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무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나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빈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임종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성인들이 많이 나게 하고 사도들과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소서. 어머니, 당신은 저희가 눈물의 골짜기에 살고 원수들 가운데서 걸으며, 부서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애로운 눈길을 저희에게 보내소서. 인류가 당신 아닌 누구에게 희망을 두오리까. 마리아님, 인류를 길 진리 생명이시요, 모든 사람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이끌어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봉헌하는 기도

사랑하올 나의 예수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매월의 기도지향

월피정

한 달 중 어느 하루를 정하여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숙고한다. 피정 중에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새로운 달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세우며 선종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의탁한다.

월피정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영적 열의의 가장 좋은 표지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자기 의무와 대피정 때 세운 계획에 성실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월피정은 첫째 주일에 한다. 토요일 오후에 훈화와 묵상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나 성체조배를 하며, 다음 날 아침에 또 묵상을 한 다음 고해성사가 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날 저녁에 묵상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두 번째 묵상과 훈화를 한 다음, 정오에 마칠 수도 있다.

첫번째 묵상은 영원한 진리에 대해, 훈화는 각자의 의무에 대해, 마지막 묵상은 기도(성사, 신심, 신심업의 실천⁹⁴) 등에 대한 것이 좋다.

월피정을 사제가 지도하지 않을 경우, 각자가 비슷한 시간표를 따르면서 동일한 주제를 따라 권하는 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

특별한 결심에 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피정을 할 때에는 우리를 완덕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인자하심에 신뢰하는 깊은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에페 1,4).

월피정과 성체조배는 그 달을 거룩히 지내게 해줄 것이다.

선종을 위한 기도

창조주시오 구세주이신 주님, 저는 당신의 뜻에 따라 죽음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충실한 자녀로서 죽어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세례 때의 약속과 수도서원을 정신적으로나마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죄를 보속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영원으로 옮겨가는 모든 상황이 몹시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께 바칩니다. 선종의 위대한 모범이셨던 분들에게 자비로이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께는 그분과 함께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어머니 마리아께는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시길 청하며, 성요셉께는 저도 그분과 비슷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생을 거룩히 사는 은혜를 청합니다.

임종의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 고통의 마리아님, 성 요셉님, 다음의 은총을 청합니다.

죽음에 영원이 달려 있사오니 주님의 계명과 신분에 따른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반드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위독할 때에는 고해성사, 병자성사, 영성체 및 전대사를 받도록 해주소서.

하느님의 영광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삶에서 최대의 결실을 거두고, 받은 은총에 따라 저의 성소에 충실히 응답하게 하소서.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매일의 기도, 특히 전례에 따라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자주 받게 해주소서.

스승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나이다.

스승 예수님, 저는 당신께 희망을 두나이다.

스승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스승 예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구하나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님,

제 마음과 영혼을 드리나이다.

예수, 마리아, 요셉님,

임종 때에 저를 돌보아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님,

제 영혼이 당신들 안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

갈바리아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과 천상 아들을 관상하시며 우리와 죄인들을 염려하시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통회의 기도를 바치자.

성바오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해준 위대한 설교자이니 그에게 ‘십자가의 길’을 잘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청하자. 성바오로는 서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1고린 2,2).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고통의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은 죄를 뉘우치고 특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원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성부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악당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형벌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사랑으로 당신의 가족을 굽어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⁹⁵⁾

지극히 인자하신 나의 예수님, 지극히 거룩한 당신 발 앞에 겸손되이 엎디어 당신의 무한한 선을 배반하였음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마음을 다해 죄의 용서를 청합니다. 당신을 또다시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하며 죽을 때까지 당신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주예수님 높이달린, 십자곁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⁹⁶⁾

제 1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빌라도가 내린 불의한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마태 27,3-26; 마르 15,5)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보속으로 저의 죽음과 이에 따르는 모든 고통, 근심,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섭고슬픈 성모성심, 수난칼에 깊이 찢려,
참혹하게 뚫렸네.

제 2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어깨에 십자가를 메신 스승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루가 14,27)

천상 스승님, 저의 욕정을 이기며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저를 이끌어주소서. 그 길은 좁으나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의 인도자요 위로자인 당신께 의지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여인중에 복된성모, 독생성자 수난하니,
그고통이 크시네.

제 3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계제마니 동산에서 지극한 근심에 시달리시고,(마태 26,38) 채찍질과 가시관의 고통과 단식으로 지치신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첫번째로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육신과 세속의 많은 유혹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넘어지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아들수난 보는성모, 맘을에는 비통중에,

하염없이 우시네.

제 4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고통으로 마음이 찢린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은 수난 속에서도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신 것이 없는 두 성심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이며, 당신들을 더 잘 알고 사랑하며 본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당신들의 것이 되도록 제 마음을 바칩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예수모친 이런고통, 받으심을 보는우리,
누가울지 않으리?

제 5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인들은 거짓 동정심으로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마태 27,32).

저도 저의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완성하며 사람들의 구원에 협력하겠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저를 작은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을 죄에서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하시며, 연옥영혼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십자가상 아들함께, 고통받는 성모보고,
누가통곡 않으리?

제 6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베로니카, 경건한 동정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포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예수께서는 그 수건에 당신 얼굴을 새겨주심으로써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건한 제자에게서 속죄하는 사람의 모범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엄위하심을 손상시킨 저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속해야 할 의무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저와 보속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극히 거룩한 당신 성심의 덕을 새겨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아들예수 우리죄로, 채찍모욕 당하심을,
애처로이 보시네.

제 7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람들이 모욕(마태 26,67-68)’ 하고 ‘군중이 배척하는 자(루가 23,21)’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힘에 겨워 십자가 아래 두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선하신 스승님, 당신은 저희가 악의로 또는 기회를 피하지 않아 거듭 지은 죄를 보상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엄위하심을 손상시키고, 당신 아드님의 죽음과 저의 영적 멸망의 이유가 된 죄를 미워하고, 앞으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기진하여 버려진채, 죽어가는 아들보고,
성모슬피 우시네.

제 8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루가 23,28)

저의 많은 죄와 나쁜 표양과 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으니 겸손되이 저를 낮춥니다.
예수님, 활동과 표양, 말과 기도로 다른 사람의 죄를 험담는 데까지 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사랑의샘 성모시여, 저에게도 슬픔나눠,
함께울게 하소서.

제 9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의 완고함으로 다시 죄를 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세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완고함은 지성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회하지 않고 죽는 위험으로
이끅니다.

주님, 항상 제 자신을 살피고 양심성찰에 충실하며, 열의를 갖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마음에 주예수님, 사랑하는 불을놓아,
타오르게 하소서.

제 10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갈바리아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서는 옷 벗김을 당하시고, 쓸개와 몰약을 섞은 신 포도주를 마시는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마태 27,34-36)

저희의 야심과 탐욕의 죄가 예수님께 어떤 고통을 드렸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 가장 크고 영원한 행복인 당신만을 찾기 위하여, 모든 허영과 세속적인 만족에서 더욱더 멀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성모여 못박히신, 주의상처 내마음에,
깊이새겨 주소서.

제 11 처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형집행인들은 슬픔에 잠긴 성모님이 보는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요한 19,18)

감각의 충실한 절제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저를위해 상처입고, 수난하신 주님고통,

제게나눠 주소서.

제 12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세 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요한 19,30; 루가 23,46)

예수님의 죽음은 거룩한 미사 때 매일 제대 위에서 되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서 가지셨던 마음으로 저도 자주 미사에 참여하도록 거룩한 미사에 대한 신심을 북돋워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사는동안 주님함께, 십자가고통 아파하며,
참아받게 하소서.

제 13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을 받아 안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상처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관상하셨습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마리아님, 저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매일 특히 임종 때에 돌보아주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성모따라 십자곁에, 저도서서 한مام으로,
슬피올게 하소서.

제 14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향액을 바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배반당하고 죽을 것이다.”(마태 20,18-19 참조)

주 예수님, 당신은 무덤에 묻히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쳐 얻으신 그 영혼들은 얼마나 소중한니까? 이제 저도 당신의 구원사업에 협력하고자 당신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가죽어 세상틀때, 천국영광 주예수님,
만나뵈게 하소서.

제 15 처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예수께서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루가 18,33).”라고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부활을 생생한 믿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저희의 부활을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기 위하여 매일 새로운 생활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마침 노래

- 구세주 그리스도님,
십자가의 힘으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 베드로를 바다에서 구하신 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당신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 지상에서는 당신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하늘나라에서는 구원의 열매를 즐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황의 뜻대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친다.
십자가의 길 기도에는 전대사가 따른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정식으로 14처가 마련된 곳에서 해야 한다.
- 나) 아주 오랜 관습에 따르면 열네 개의 독서를 하고 그 독서 끝에 어떤 기도를 덧붙인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각 신비마다 특별한 묵상을 하지 않고-을 하도록 한다.
- 다) 한 처에서 다른 처로 옮겨가면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도를 공동으로 하여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같이 옮겨다닐 수 없으면 지도자만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적어도 30분간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독서와 묵상을 하면 같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Manuale delle Indulgenze, Ed. Vaticano, 1968, n. 63 참조).

영성수련

기도서에 있는 모든 신심업은 스승 예수 신심을 따르는 바오로적 정신을 가지고 있듯이 영성수련도 그러하다. 영성수련은 해마다 행하는 중요한 기도의 때이므로, 기도하기에 적합한 집과 여러 날 동안 지내기에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영성수련의 의의

영성수련은 일정한 기간(3일, 5일, 8일, 30일) 동안 신앙, 사랑, 신심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데 전념하고, 좀더 거룩한 생활과 하늘나라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로 마음을 들어 높이고 그분과 일치하도록 힘쓰는 데 있다.

영성수련에는 회심을 위한 영성수련 이외에 완덕, 성소, 수도생활과 사제생활을 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영성수련을 하는 일반적인 성격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사적이든 공적이든 언제나 전반적으로 신앙쇄신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영성수련의 목적은 각자의 신분과 성소, 환경에 따라 인간 전체-지성, 의지, 마음-를 성화시키는 데 있으므로 교의, 윤리, 예배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영성수련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첫째, 교의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위해 신경에 내포되어 있는 신앙의 근본요소를 깨닫고 심화시킨다.

둘째, 윤리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올바른 인간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수도생활, 성직생활 및 계명과 복음적 권고에 대한 근본요소를 숙고한다.

셋째, 예배 부분으로 마치 좋은 올리브나무에 야생 올리브 가지가 접붙여져(로마 11,17 참조) 사랑의 열매를 맺듯이 예배, 즉 넓은 의미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우리가 정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기까지.”

일러두기

영성수련은, 독서를 하거나 강론을 듣는 일 또는 약간의 기도를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무엇보다도 영성수련은 깊이 기도하면서 숙고해야 하는 때이다. 묵상하고 성찰하며 심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내적 작업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희망, 통회, 원의, 보속, 봉헌, 순명, 청원, 결심, 기도 등의 행위를 훈련해야 한다.

이론적인 연구, 교양 혹은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마지못해서 행하는 침묵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은총의 작용에만 내맡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씨앗을 뿌릴 땅을 일구고, 그것이 싹트고 자라서 여물 때까지 힘껏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서 났다고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2고린 3,5).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필립 2,13). 그러므로 거룩한 기도와 실천에 전념하도록 우리의 힘, 지성, 마음, 상상, 기억, 혀, 귀, 눈 등 온 존재를 투신해야 한다.

영성수련은 강론이나 독서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위에 열거한 적극적인 작업이 없이는 할 수 없다. 영성수련의 결실은 그 목적을 향한 우리의 영적, 육체적 힘의 분배와 잠심에 비례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처음부터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영성수련의 위대한 수호자 성이냐시오 로올라는 “가능한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택하며, 친구들이나 친지들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멀리 떠나 있을수록 크나큰 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는 영성수련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 쉬자.”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다.

오로지 하느님 안에 머물 것! 방문, 편지, 오관의 방황, 친구들과 담화도 피하며, 오직 내적, 외적 고독에 머물 것. “천상적인 묵상으로 이끌어주는” 침묵은 잠심의 원동력이다. 침묵은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하는 영혼은 경건한 침묵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여,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느님께 이끌리어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것이고, 성아우구스티노처럼 “주님, 저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당신을 알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바치게 될 것이다.

영성수련의 세 가지의 이점, 즉 지성은 진리에 더욱 쉽게 열중하게 되고, 마음은 은총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며, 의지는 영성수련의 목적에 더욱 손쉽게 도달하게 된다.

영성의 해

학교에는 학기가 있고, 사회에는 회계연도가 있고, 전례에는 전례주년 등이 있듯이, 영성수련에도 영성의 해가 있다. 이 해는 영성수련을 시작하는 때부터 다음 영성수련 때까지를 말한다.

학교에서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선생이 매일, 매월, 매년 실행 계획표를 작성하듯이 피정자는 영성수련을 하는 동안 일 년간 내적, 외적으로 실천해야 될 영성생활 계획을 세운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인, 수도자, 사제의 완덕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길(의지), 진리(지성), 생명(마음)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온전히 결합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라시게 되도록 우리 인격 완성에 도달해야만 한다.

실천사항

영성수련의 요지와 그 결실에 대해 성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나그네이며, 그 출발점은 죄이고 종착점은 하느님이시다. 그분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에게는 지성과 의지와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려면 그분이 설교하신 진리를 묵상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면 강생에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분의 일생을 관상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랑을 배제하고, 성부와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한다.

묵상

인간을 쇄신시키고 고양시키는 영성수련은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계시된 진리를 묵상함으로써 오류와 무지를 없앤다. 둘째, 하나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묵상함으로써 악습을 없앤다. 셋째, 넓은 의미에서 기도와 은총의 수단들을 묵상함으로써 죄와 인간적인 애착을 없앤다.

이렇게 할 때 교의, 윤리, 예배라는 근본적인 노선 안에서 신앙의 틀이 우리 앞에 마련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다다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길은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이시다.

수도생활의 연륜이 많은 수도자일수록 셋째 부분인 일치의 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주어진 주제에 관한 가르침이나 의지적인 묵상 형식에 치중하기보다는 관련된 신비에 대해 능동적 관상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지성, 의지, 마음, 내외적 감각 등을 총동원시켜 관상할 것이다(UPS, I, 183-191).

성령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⁹⁷⁾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성삼위이시여,
교회와 제 영혼 깊은 곳에 현존하시면서 일하시는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이제와 영원히 나의 어머니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통하여
저를 온전히 당신께 맡기고 드리고 봉헌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 자녀로서 저를 맡기고 드리고 봉헌합니다.
스승 예수님, 당신께 형제 자매요 제자로서
저를 맡기고 드리고 봉헌합니다.
성령님, 당신께 살아 있는 성전으로서
봉헌되고 성화되기 위하여
저를 맡기고 드리고 봉헌합니다.
성삼위의 현존 안에 머무시는 교회의 어머니며
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전례와 성사를 통하여 성삼위와
더욱 친밀한 일치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주시어
저의 온 생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께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이신 성령님,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저와 이웃 안에 계신 당신을 자주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주교와 사제의 서품식에, 그리고 수도자의 봉헌식과 신자들의 견진성사 때 은총을 더욱 풍성히 내리시어
그들에게 빛과 성덕과 열심을 더해주소서.

진리의 성령님,
당신께 저의 지성과 상상과 기억을 드리오니,
저를 비주소서.
제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소서.
제 안에 지혜와 지식,
통찰과 의견의 은혜를 더해주소서.
성화시키시는 성령님,
제 의지를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저를 이끄시어
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도록 제 힘이 되어주소서.
세계 군침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오니,
제 안에 신적 생명을 보존하시고 증가시켜 주시며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⁹⁸⁾

성령님, 성령강림의 모후의 전구로 비오니,
저의 경솔함, 무지, 망각, 고집, 편견, 오류, 진리의 배척으로 흐려진 지성을 치유해 주시어,⁹⁹⁾
모든 것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심어주소서.
무관심, 불신, 나쁜 경향, 욕정, 감각, 애착 등의 감정에서 치유해 주시어,
모든 것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감성과 경향을 심어주소서.¹⁰⁰⁾
무기력, 경망스러움, 항구하지 못함, 태만, 완고함, 악습에 물든 저의 의지를 치유해 주시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도록 제 안에 새로운 사랑을 심어주소서.
통달의 은혜로 지성을,
슬기의 은혜로 지혜를,
의견의 은혜로 현명함을,
효경의 은혜로 정의를,
지식의 은혜로 지식을,
균셈의 은혜로 영적 힘을,
경외심의 은혜로 절제를 주시어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¹⁰¹⁾

건강을 얻기 위하여¹⁰²⁾

만물을 지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며,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성령님,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온 우주에 생명을 주시고 활기를 불어넣어주시는 주님, 저를 온갖 질병과 모든 악의 유혹에서 구해주시어 건강을 보존토록 해주소서.

저는 당신의 은총으로, 언제나 하느님의 영광과 저의 선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봉사에 저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지식과 통찰의 은혜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과 의사들을 비추시어, 생명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악의 원인을 잘 알아 효과적인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소서.

병약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주시는 어머니,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하느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신 당신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당신의 능하신 전구로 저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성공의 비결¹⁰³⁾

스승 예수님,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와 우리 아버지 성바오로를 통하여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약속을 받아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높으신 뜻에 합당하게 되고 당신이 바라시는 완덕과 하늘나라 영광에 도달해야 하며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사도직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 지식, 사도직, 청빈 등 모든 면에 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 진리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선이십니다. 저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당신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는 생활과 사도직,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이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만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착한 정신, 은총, 지식, 선을 행하는 수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무한히 선하신으로 저희의 특별한 성소의 필요에 따라 저희의 영적 작업, 공부, 사도직, 청빈의 결실을 배가시켜 주소서.

저희는 당신을 의심치 않고, 저희의 항구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스승님,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바오로 사도에게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지상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충실히 본받고 하늘에서는 영광 속에 그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성공의 비결(선한목자예수수녀회)

주 예수님, 마리아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약속을 받아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높으신 뜻에 합당하게 되고 당신이 바라시는 완덕과 천상 영광에 도달해야 하며 사목 사도직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신, 지식, 사도직, 청빈 등 모든 면에 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 진리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선이시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당신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는 생활과 사도직,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이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정신, 은총, 지식, 선을 행하는 수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과 저희의 특별한 성소의 필요에 따라 영적 작업, 공부, 사도직, 청빈의 결실을 배가시켜 주소서. 저희는 당신을 의심치 않고 저희의 항구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목자님,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에게 하셨음과 같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지상에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를 충실히 본받고 하늘에서는 그들과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소자를 얻기 위하여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신 천상스승 예수님, 저희는 “아버지께 추수에 일꾼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당신의 권고를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성소자들을 위하여’ 성소를 계발하는 강한 열의를 일으켜주소서. 당신 성혈로 구속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될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을 많이 하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맞아들일 수도회와 공동체를 증가시키시어 빛과 따스함이 깃든 곳, 신심의 근원, 성인들의 정원이 되어 “하느님께 영광,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노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성소의 수호자이고 어머니시며, ‘하느님의 간택을 받으신’ 마리아님, 저희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¹⁰⁴⁾

스승 예수님, 저의 지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소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당신의 배움터로 이끄소서.
스승 예수님, 그릇됨과 헛된 생각과 영원한 어둠에서 저를 구하소서.
성부와 저희 사이의 길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만 기대하나이다.
성덕의 길이신 예수님, 제가 당신을 충실히 본받게 하소서.
길이신 예수님, 저를 하늘에 계신 성부와 같이 완전하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제 안에 사시어 저도 당신 안에 살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제가 당신과 헤어지지 않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저를 당신 사랑의 기쁨 속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저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길이신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위한 모범과 표상이 되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은총과 위로를 가져가게 하소서.

사제의 기도

천상 스승 예수님, 저의 성소와 사제직을 제정해 주심에 대해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을 성심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성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은 사제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고귀한 가르침과 법과 은총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맡기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제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길 진리 생명이 되어주소서. 제가 언제나 세상을 정화시키고 보존하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사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되게 하소서.

지금 사제성품에 따르는 의무와 결심을 새로이 하며, 겸손과 신뢰로 당신께 더 충실하고자 하오니 받아주소서.

저의 사제직을 충만히 살기를 열망하면서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고자 준비하며 정결, 청빈, 순명의 복음적 권고도 지키기를 서약합니다.

천상 스승 예수님, 언젠가 하늘에서 구원된 영혼들의 큰 무리가 저를 에워싸게 하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

길 진리 생명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당신의 양들을 인자로이 바라보소서. 당신 복음의 지혜로 저희를 비추시고, 당신 모범으로 굳세게 해주시고, 성체로 길러주시며,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소서.

저희 성소에 따라 기도와 활동으로 교회의 목자들의 가르침과 열정에 온순히 협력하고, 그들 안에서 당신께 드린 모독을 보속하고자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장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참된 수도 정신을 주시고,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처럼 단순하고 현명하며 굳세고 절제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제 머리 위에 거룩한 손을 얹으시어 영성생활과 사도직 생활에서 당신을 본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제직은 나의 보루

당신의 사제직은 저의 보루이오니,
저는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일하나이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힘을 얻어 결실을 맺나이다.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은총을 얻고자,
아버지의 종이 되어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제단 위에서 바치시는 그 뜻에 맞추어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고자'¹⁰⁵⁾ 하는
정신을 제게 전해주시도록
저를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당신은 대사제이시니,
이 가난한 사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후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저 세상에서 보여주시리라 알고 있나이다. 아멘.

오소서, 스승 예수님¹⁰⁶⁾

오소서, 스승 예수님. 저희가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는 환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는 베다니아에서 경건한 제자 마르타와
마리아에게서 받으셨던 위로와 속죄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모시는 기쁨 속에서,
마리아가 누린 저희의 관상생활을 더 깊게 해주시고,
마르타의 성실하고 근면한 정신에 따른
저희의 활동생활을 받아주소서.
당신이 베다니아 가정을 사랑하고 성화시키듯이
저희 수도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성화시켜 주소서.
베다니아 가정에 벗이요 손님으로 머무시면서
성체와 사제직, 당신 생명을 선물로 준비하시며
당신의 마지막 지상생활을 보내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성체, 사제직, 전례에 봉사하는 저희의 사도직을 성화시킴으로써
당신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아멘.

인류를 봉헌하는 기도

인류의 공동 구속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의 성혈로 구원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오류의 어둠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소서. 추수할 것은 항상 많으나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마리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당신께 맡기신 자녀들을 가련히 여기소서.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를 증가시켜 주시고, 열심히 슬기로운 새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당신 모성애로 지켜주소서. 예수님과 요한 사도를 돌보시고, 성령강림일에 사도들을 위로하시던 때를 기억하소서.¹⁰⁷⁾ 당신은 첫 사도들과 모든 시대의 사도들의 조연자이십니다. 당신의 힘 있는 기도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새로운 성령강림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성화시키시고 거룩한 열의를 일으켜주소서.

당신 은총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실망할 때에는 지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열의를 풍부히 갚아주소서.

마리아님, 모든 이가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톨릭 교회의 온순한 자녀가 되며, 어머니요, 스승이요, 모후로 당신을 우러르고 찬미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메아리치게 하소서. 이로써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이르겠나이다.

성모송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

어머니요, 스승이요, 모후이신 마리아님, 당신이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배움터에서, 사랑하고 기르고 성화시키고 지도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저도 받아들여주소서.

당신은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이 부르시는 자녀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총과 빛과 특별한 위로를 주시나이다.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생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셨나이다. 이것은 교훈과 모범과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에 저도 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나이다. 마리아님, 저에게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을 더 잘 알고, 본받고, 사랑하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부당한 죄인이며, 당신의 부탁이 없이는 그분의 배움터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저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소서. 영적 작업에 바쳐진 이 해에 저의 지성을 비추시고, 의지를 굳게 하시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에 의지하여 마침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사도직을 봉헌하는 기도

모든 사도직의 모후요, 스승이요, 어머니신 마리아님, 당신은 하늘에서 천사와 성조들, 사도들과 순교자들, 증거자들과 동정자들의 모후이십니다. 당신은 언제나 의인들과 죄인들을 인자로이 바라보시며, 항상 모든 사람의 구원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마리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당신을 저의 어머니가 되게 하였고, 당신 마음에 온 인류를 위한 염려와 사랑의 불을 놓으신 일을 생각하소서. 당신의 천상 아들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도직 분야에서 일할 거룩한 성소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복돋워주며, 양성시켜 주소서.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거룩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오늘 모든 펜과 기계, 창안과 매일의 힘든 노동을 당신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께 저희의 힘과 지혜, 의지와 마음을 바칩니다. 어머니, 저희는 모두 당신의 것이오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바칩니다. 첫 사도들에게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내리게 하소서. 저희 지혜를 비추어 고귀한 성소를 깨닫게 하시며, 의지를 굳게 하시어 마음에 불을 놓으소서. 글쓰는 사람, 기술자, 말씀의 보급에 힘쓰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사랑하게 하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이시여, 저희를 실망시키려는 악마의 머리를 밟으시어 당신께 바쳐진 저희가 결코 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마리아님, 당신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되오니 저희 가운데 머무르소서.

모후이신 마리아님, 모든 사도직 수단이 당신 것이오니,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출판물이 사목적인 내용을 지니고, 그 안에 실려 있는 진리에 알맞은 형태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신 성바오로의 정신으로 복음이 이 세상을 밝히고 전파되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마리아 당신을 복되다고 일컫게 하소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인 당신 말씀을 들려주소서. 세상에 당신 성령을 보내시어, 진리가 하나요, 스승이 한 분뿐이시며, 믿음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배움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은 저희와 함께 계시면서 여기서 비추고자 하시니, 저희가 언제나 죄를 참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와 회사와 활동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오소서, 예수님, 저희 안에 사시며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소서.

자기 성소에 충실했던 사람처럼 저희도 평안히 죽음을 맞게 하시고, 심판 때에는 부지런하던 일꾼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광스런 사도들에게 약속된 천상의 화관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하여 세세대대로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게 하소서. 아멘.

사도의 모후께 드리는 기도¹⁰⁸⁾

자비로우신 예수님, 저희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마리아님,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예수님을 인류에게 주시고, 갈바리아에서 저희 모두를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명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같습니다. 저는 죄와 잘못과 태만에 놀려 가장 큰 희망이신 어머니께 피신합니다. 당신의 어지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이 연약한 자녀를 당신의 크신 모성애로 돌보소서.

저는 모든 것, 특히 회개와 죄의 용서와 성덕을 구하오니, 많은 은총을 받았으나 죄를 범하여 불행하게 된 당신 자녀들 가운데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소서. 이들은 더욱더 당신 자비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가련한 저를 그들 가운데에 받아들여주시어, 죄인을 사도로 변화시키는 큰 기적을 행하소서. 이것은 하나의 유례없는 기적이 될 것이며,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과 저의 어머니이신 당신을 위해서도 새로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요, 스승이요, 사도의 모후이신 당신께 모든 것을 바라나이다. 아멘.

교회일치를 위해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우리의 어머니요, 스승이요, 모후이신 마리아님, “추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그들이 아버지도 목자도 스승도 없이 혼돈 속에 헤매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주시라고 당신을 사도로 삼으셨으니, 저희는 당신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겠나이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당신을 통하여 온 힘을 다해¹⁰⁹⁾ 모든 성소와 사도직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모든 믿는 사람이 당신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열심한 사람이 열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통하여 합당하게 되고, 모든 사도들이 성인이 되며,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 서 계시던 당신은 저희 모두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나이다.

당신과 예수님, 그리고 성바오로를 본받는 사도적 마음을 저희에게 얻어주시어, 언젠가 하늘에서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 주위에 모일 수 있게 하소서.

스승이요, 모후이신 마리아님, 당신 자녀들인 저희를 축복하소서.

성베르나르도의 기도¹¹⁰⁾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그 누구도 당신의 변호를 요청하고, 당신의 도움을 애원하며, 당신의 보호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는 것을 세상에서 일찍이 들은 적이 없나이다. 저도 이같은 마음으로 당신께 달려드오니, 동정녀들 중의 동정녀이신 어머니, 당신께 나아가 죄인으로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나이다. 말씀의 어머니, 저의 기도를 못 들은 체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 허락하소서.

영보를 받으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께

마리아님,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복되다고 일컫나이다.

당신은 대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으셨기에, 그가 예고한 위대한 일이 모두 당신에게 이루어졌나이다.

마리아님, 제 영혼과 제 전존재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동정이신 당신 태중에서 하느님 아들이 강생하실 것을 믿으셨기에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나이다.¹¹⁾

그러므로 그 날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복된 날이 시작되었으며, 인류는 천상 스승, 유일하고 영원한 사제, 속죄의 호스티아, 우주의 왕을 모시게 되었나이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니, 마리아님, 저희에게도 성인을 낳고 구원을 주며 교회와 복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하고 생생한 믿음을 얻어주소서.

당신이, 복된 당신 아드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거룩하게 생각한 것처럼, 저희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소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바로에게

성바로 사도에게 드리는 기도

당신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가르치신 거룩한 사도님, 당신의 자녀요 제자인 저희 위에 어지신 눈을 드리주소서.

저희는 천상 스승과 사도의 모후 마리아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에서만 모든 것을 기대하나이다. 이방인의 박사여,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희망으로 구원되며, 오직 사랑만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소서. 간택된 그릇이여, 주님의 은총이 저희 안에 헛되지 않도록 온순히 응하게 하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로서 언제나 당신을 좀더 잘 알고 사랑하며 본받게 하소서. 거룩한 사도들을 많이 일으키시어 세상에 참 사랑의 뜨거운 바람이 일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을 알고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저희가 저희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시오니, 스승이요 아버지인 성바로의 능한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의 자비로 저희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해주소서.

인내를 얻기 위하여¹¹²⁾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다가 열렬한 사도가 되신 영광스러운 성바오로 사도님, 당신은 세상 끝까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옥고와 채찍질과 돌로 맞음과 파선과 갇은 박해를 당하시고, 마침내 당신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병고와 시련과 불행을 하느님이 주시는 자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천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 충실하고 열심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이방인의 스승이신 성바오로님, 사랑의 웃음을 머금고 주님의 강복을 받은 이 한국 땅과 그 백성을
굽어보소서.¹¹³⁾ 당신은 관대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평화의 포옹으로 반기고 맞아들이셨나이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사랑의 하느님 나라를
세우라고 당신을 재촉하시나이다.

성소를 일으키고 복음의 일꾼을 위로하시며, 모두가 온순한 마음으로 천상 스승을 따르게 해주소서.

우리 민족이 항상 더 그리스도 안에서 길 진리 생명을 찾고 그분의 빛을 빛내며,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찾게 하소서.

거룩한 사도님, 저희 모두를 비추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소서. 아멘.

가톨릭 출판물을 위하여¹¹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 성바오로님, 에페소에서 당신은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저서들을 없애기 위해 혼신을 다 바치셨으니 오늘도 저희를 굽어보소서.

믿음을 저해하는 출판물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보배로운 믿음과 순수한 관습을 앗아가기 위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사도님, 당신께 청하오니 글쓰는 사람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그릇된 가르침과 죄를 조장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글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양떼에게 끼치는 악을 혐오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소서. 저희에게 은총을 얻어주시어 언제나 최고 목자의 말씀에 온순히 따르며, 사악한 출판물에 결코 물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교회의 발전과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저서를 장려하고, 전하게 하소서. 아멘.

성바로 호칭기도

- 천주 성부의 사랑이여,
- 저희를 구원하소서.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여,
- 저희를 생활하게 하소서.
- 성령의 통교여,
- 저희를 성화시키소서.
- 지극히 복된 바로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하느님의 자비를 행하신 이여,
 - 하느님의 아드님을 뵈은 이여,
 - 그리스도의 간택된 그릇이여,
 - 이방인을 위한 진리의 설교자요, 사도며, 박사여,
 - 놀라운 기적으로 사도직을 인정받은 이여,
 - 교회의 가장 충실한 교역자여,
 - 그리스도의 복음과 당신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여,
 - 옥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신 이여,
 -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여,
 -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활동하신 이여,
 -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여,
 - 옥고와 노고에 시달리신 이여,
 - 상처와 위협으로 고통을 겪으신 이여,
 - 살아 계시는 동안 낙원에 붙들려 올라가신 이여,
 - 당신 사명을 빛내신 이여,
 - 당신 사명을 완수하고 영예의 월계관을 기다리신 이여,
- 하느님의 어린양, 박해자 바로로를 회개시키신 이여,
- 저희를 용서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사도 바로로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신 이여,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순교자 바로로를 영광스럽게 하신 이여,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간택된 도구이신 성바로 사도여,
- 당신은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한 설교자이시나이다.

기도합시다.

당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오로 사도를 선택하신 우리 주 하느님, 성바오로가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전한 믿음의 빛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가 항상 백성들의 어머니요, 스승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을 위하여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의 길진리 생명이신 스승으로 세우셨으니,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언제나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멀티미디어 사도직을 위한 성소를 일으켜주시고, 교회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활동과 희사로 공헌하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소서. 아멘.

시청각 수단을 위한 기도

스승 예수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발명하도록 인간의 지혜를 비추어주셨으니 당신을 찬미 찬송하나이다. 이 수단은 사도직과 문화와 인간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듯이 저희를 위하여 창조된 이 모든 발명도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당신의 놀라운 일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많은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는 위험에서 구해주소서.

이 수단의 책임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들이 언제나 좋은 씨를 뿌리고 원수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소서. 모든 시청자와 관객을 비취주시어 생명의 샘을 찾게 하시고 오류와 죄에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저희는 이 수단들의 온갖 남용을 보속하기 위하여 매일 저희의 노동과 오늘 지상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미사를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시청각 수단을 저희의 성화와 사도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스승 예수님, 사도의 모후 마리아와 성바오로 사도의 전구로 청하오니, 세상이 당신을 인류의 길 진리 생명으로 알게 해주소서.

라디오와 텔레비전, 컴퓨터를 위한 기도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주님,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희는 영원한 생명과 오늘의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풍부한 선을 베풀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 자비로 저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어, 모든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결코 영적, 혹은 인간적 멸망으로 이끄는 일 없이 그들을 선도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 라디오와 텔레비전, 컴퓨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스승 예수님, 이 수단들의 악용에 대한 보속과 탄원으로 저희의 기도와 매일의 사도직을 당신께 바치오니,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성가브리엘 대천사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인류의 구원과 강생의 소식을 알리고자 천사들 가운데서 성가브리엘 대천사를 택하셨음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강생의 알림을 받아들이셨기에 당신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나 인류의 대부분이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나이다.

시청각 수단,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수호자이신 성가브리엘 대천사님, 스승 예수님께 청하여 교회가 이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믿어야 할 천상 진리를 설교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리키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모든 사람의 향상과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수단이 결코 인간을 멸망시키고 오류에 빠뜨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소식을 온순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성가브리엘 대천사님, 저희와 시청각 수단의 사도직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편집 전에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지셨던 지향대로 저의 이 펜과 사도직 활동을 당신께 바칩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모든 피조물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길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온순히 따르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기술 사도직 전에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를 널리 펴고자 하신 스승 예수님, 저희와 저희의 사도직에 어지신 눈을 드리우소서.

가장 뛰어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주셨으니 당신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노동하고, 가르치고, 고통당할 때 가지셨던 그 뜻대로 저희의 노동을 당신께 드립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과 바오로께서 하셨듯이 저희도 사람들의 구원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스승 예수님,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지혜와 사랑으로써 효과적으로 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선교 사도직 전에

스승 예수님, 당신이 팔레스티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지셨던 같은 지향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저의 선교 사도직을 당신께 바칩니다.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의 거룩한 손을 제 머리 위에 얹으시어 제 걸음을 인도하소서.

성바오로 사도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를 온순하게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노동자의 기도

거룩한 노동자이며 노동자들의 벗이신 예수님, 노동의 세계에 당신의 어지신 눈길을 보내소서. 당신은 지적, 정신적,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떤 유혹과 고통과 피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물어보소서. 저희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보시고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신 당신의 부르짖음을 생각하소서. 기술자와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의 전구와 그의 공로를 보시어 저희를 위로해주소서.

저희에게 당신이 노동하실 때 가지셨던 지혜와 덕과 사랑을 주소서. 믿음과 평화, 절제와 검소한 정신을 주시어 언제나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적 풍요로움과 하늘나라를 찾게 하소서. 교활한 방법으로 당신 섭리에 대한 신뢰와 신앙의 선물을 앗아가려는 이들에게서 저희를 구하소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착취자들에게서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회법이 생기도록 영감을 주시고, 모든 사회 계층의 협력으로 정의와 사랑이 꽃피게 하소서.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유산인 하늘나라와 점진적인 향상을 보장하며, 사회교리의 스승인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하소서. 아멘.

통신물을 읽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는 통신 사도직을 하기 전에)

스승 예수님, 제 지성을 비추시어 제게 글을 쓰는 사람이나 제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올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당신 뜻대로 대답하게 하소서. 그들과 제 마음을 준비시키시어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만을 찾게 하소서.

여행하기 전에

(또는 사도직 출장을 가기 전에)

진리이신 예수님, 마지막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나 오직 당신 사랑 안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저를 비취주소서.

길이신 예수님, 저의 인도자가 되시어 충분히 자제하고, 한눈팔지 않으며 끊임없이 절제하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저와 저의 동반자,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나 기쁨과 구원이 되어주소서.

수호천사님, 앞장서 가시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아멘.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 협력자 양성을 위한 호칭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 천주 성령님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
 - 선한 스승이신 예수님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 예언자들이 기다리던 예수님
 - 사도들의 스승이신 예수님
 - 복음사가들의 박사이신 예수님
 - 교부들과 학자들의 빛이신 예수님
 - 성인들의 모범이신 예수님
 - 마음의 생명이신 예수님
 -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 그리스도와 우리의 어머니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상 은총의 어머니
 - 슬기로운 어머니
 - 사도들의 모후
 - 상지의 옥좌
 - 성모세
 - 성다윗
 - 성이사야

모든 거룩한 예언자

성마르코

성마태오

성루가

성요한

성바오로

성베드로

성야고보

성타대오

모든 거룩한 사도들과 복음사가

모든 거룩한 사도적 교부

성아타나시오

성바실리오

성예로니모

성암브로시오

성아우구스티노

성요한 크리소스토모

성대그레고리오

모든 교부

성베르나르도

성알베르토

성토마스

십자가의 성요한

성프란치스코 드 살

성알폰소

모든 거룩한 학자

성녀 데레사

성녀 가타리나

○ 하느님의 모든 성인성녀

●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소서.

○ 모든 악과 모든 오류에서

● 주님, 저희를 구하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상 지혜에 대한 무관심에서

당신의 거룩한 강생의 신비로

당신의 설교로

당신의 십자가와 수난으로

당신의 부활과 승천으로

빠라끌리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의 무류성과 영속성으로

- 한 목자 아래 한 우리 되기를 구하오니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주님을 섬김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구하오니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주님, 저희를 용서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 **저희에게 당신의 진리와 성덕의 길을 가르쳐주소서.**

기도합시다.

당신 사랑으로 외아드님을 온 우주의 스승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나라의 신비를 잘 알아듣도록 당신 아드님의 천상 가르침에 동화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바로딸들의 참된 행복

평화와 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어머니인 교회의 마음을 지닌 교회의 딸들은 행복합니다.

수도원의 신비로운 침묵 속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며,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하느님의 보행자¹¹⁵⁾들은 행복합니다.

교회의 길을 전혀 배우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이 천사¹¹⁶⁾들은 행복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각 가정에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집배원들은 행복합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사제적 열의에 협력하는¹¹⁷⁾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목자, 동방박사, 성전, 제자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마리아를 본받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와 함께 고통과 기도와 활동으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성바로딸들은 행복합니다.

세상 곳곳의 길들이 한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축복받은 이들아,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¹¹⁸⁾

주님,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견게 하시고, 영원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을 성바로딸들에게 내려주소서. 아멘.

구원의 길 위에 있는 인류

‘인류의 길’ 기도문이 담긴 소책자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1947년 성탄이 임박했을 때 바오로 가족의 모든 회원에게 ‘성탄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본떠서 만든 기도이다. ‘십자가의 길’에는 구세주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묵상만 있는 데 비해, 알베리오네 신부가 제시한 ‘인류의 길’ 기도는 우주적 차원을 담고 있다. 인간의 운명, 즉 그의 ‘길’은 창조와 자연 계시에서 시작하여 성서의 초자연적 계시를 거쳐,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다시 교회의 생활로 이어지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으로 끝맺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계시가 담겨 있는 기도이다. ‘인류의 길’ 기도는 30처로 되어 있는데, 각 처는 신학적 명제(진리)와, 그 명제를 구체적 삶 안에 동화하기 위한 하나의 청원(길)과 하나의 기도(생명)가 있다.

각 처마다 성체조배와 개인묵상 때에 이용하기 쉽도록 해당되는 성서구절을 참고로 덧붙였다.

인류의 길¹¹⁹⁾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 기도는 성체방문 때, 특히 매달 첫째 주일에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시작이신 하느님께서로부터 와서 마침이신 하느님께서로 돌아가며,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안에서 확실한 길이신 그분께로 인간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 현세와 영원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모든 자녀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기다리고 있다. 각자는 마리아를 통하여 길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사도직 정신으로 길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1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서는 마음을 모아,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고 결정하셨다.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창조의 걸작품으로 여겨졌으니, 그녀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마침이 되었다.

나의 주님, 저는 온전히 전능하신 당신 사랑의 작품입니다.

삼위일체이신 나의 하느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행복과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저를 지으셨으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어, 지상낙원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질서에 고양되었고 위대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영원한 복락에 허락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느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창세 2,7-8 참조)¹²⁰⁾

무한히 선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은 인간에게 자연적 생명 뿐만 아니라, 은총으로 초자연적 생명도 부여하셨나이다.

당신은 인간을 양자로 삼으시어 당신 행복으로 불러주셨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채워주셨나이다.
당신 은총의 위대한 보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비취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천상의 선물과 특권을 잃어버렸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대속자이며 구속주이신 아들을 예견하시면서, 한 여인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창세
3,1-24 참조)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인간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들은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 안에서 하느님 자녀들의 새로운 세대를 탄생시킨 성령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인류의 희망이신 새 하와는 찬미를 받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인류가 불어났다. 때가 이르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속자를 맞아들일 준비를 시키셨다.
하느님께서 신앙 깊은 아브라함을,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복된 아들이신 세상의 구세주를 기다리는 백성의
으뜸으로 뽑으셨다.(창세 12,1-9; 22,1-19 참조)

나의 하느님, 자애롭고 지혜로우신 당신의 섭리에 감사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오류의 어둠 속에 당신 진리의 빛을 비취주시고,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서 당신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우상숭배가 많은 가운데서도 인류는 지상의 어떤 곳에서 항상 당신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키워왔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다. 하느님께서 이룰 지키는 사람에게 계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구속자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의인들과 성조들은 구원되었다. 이렇게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기둥에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았다.(출애 20,1-21; 민수 21,4-9¹²¹ 참조)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은 늘 죄를 짓고 방황하는 인류 곁에 계시면서 길을 제시하고 희망을 심어주셨나이다. 또한 당신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은총을 주셨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6

하느님께서 선택된 민족 가운데서 예언자와 성서 저자들을 계속 일으키시다. 그들은 올바른 사람에게는 빛이 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경종이 되며, 연약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들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했고 교회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1사무 1,19-28; 사도 9,1-19 참조)

나의 하느님, 모든 백성과 함께 당신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드리나이다.
당신은 피조물에게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새겨주셨고, 인간 양심에는 당신의 법을 새겨주셨으며, 성서에는 당신의 영원한 약속을 새겨주셨나이다.
당신은 영원토록 충실하고 언제나 자애로우시니, 사랑하올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저의 지성을 열어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7

하느님께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느님 어머니가 되실 것을 제안하시다. 마리아는 당신 태중에 말씀이 육화되는 놀라운 사명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 참 사람, 언약된 메시아, 천상 스승, 영원한 사제이시다.(루가 1,26-38; 2,1-7; 히브 8,1-13 참조)

예언자들에게 하신 당신 언약을 지키신 주님,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 안에 내리신 성령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진리와 성덕과 은총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 육화하신 천상 아드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권능과 사랑의 이 신비를 흠송합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이 있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8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나시다.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다. 덕행과 진리와 선을 가르치는 그분의 학교가 시작되었다. 인간을 하느님께로 들어 높이시려고 인간이 되기까지 당신을 낳추셨다. 그분은 인간을 멸하기도 하고 부활시키기도 하실 분으로 오셨다.(루가 2,8-39 참조)

양선하고 겸손하신 천상 스승님, 모든 사람의 흠송과 찬미와 경배를 받으소서.
당신은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며, 당신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육화하신 아들이시니,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저희는 하느님의 양자가 되나이다.
당신은, 당신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단죄가 됩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9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 가정, 종교, 사회적인 덕을 실천하신다. 그분은 인간과 가정, 사회를 재건하신다. 하느님의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신다. 겸손과 순명, 기도와 노동의 생활로 이끌어주신다.(루가 2,39-52 참조)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주신 천상 스승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악마와 욕정으로 초래된 인류의 파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만일 저희가 지상에서 당신처럼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의 행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주님, 당신을 알고 본받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0

나자렛에서 모범의 학교를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학교를 시작하시다. 그분은 산상설교에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사랑의 새 계명을 설교하심으로써 하느님을 계시하시다.
(루가 4,14-30; 6,20-38 참조)

당신을 길 진리 생명으로 선언하신 천상 스승님,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드리나이다.
저는 당신을 제가 거쳐가야 할 길이지요, 믿어야 할 진리이시며, 열망해야 할 생명으로 받드나이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이오니,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 저는 당신 안에 머물고자 하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제자를 뽑으시어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사명을 세상에서 계속하고 확장하게 하신다. 믿는 이들의 백성이요 당신의 신비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교회의 으뜸으로 삼으시어 교회 안에 길 진리 생명이 존속하도록 사목적 배려에 맡기셨다.(루가 6,12-19¹²²; 마태 16,13-19 참조)

예수 그리스도님, 사제로 하여금 또다른 당신이 되게 하셨으니, 찬미를 받으소서.
저희의 어머니요 스승이요 인도자인 교회를 세우셨으니 찬미를 받으소서.
베드로 위에 그르칠 수 없고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셨으니 찬미를 받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17,18)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성화시키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2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과 탄원의 호스티아로서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시고, 지상에서는 은총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죽으시다. 정의와 자비가 서로 만나니,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화해하시고, 하늘나라를 다시 열으시며,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셨다.(시편 85,10-13; 에페 2,14-18 참조)

사제이시고 호스티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은 완전한 희생제물이시요 탁월한 사제이시나이다.
당신 안에 구원과 부활과 생명이 있나이다.
당신 성혈은 구원의 샘이시니, 제 위에 쏟아 부으시어 저를 씻어주소서.
당신 성혈이 세상에 흘러넘쳐 세상이 정화되고 구원되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3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베드로와 열두 사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시다. 이 지상에서 사십 일을 더 머무시는 동안 크나큰 신비를 드러내보이시고, 구세주로서 당신 업적을 완성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천상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루가 24,36-53 참조)

인간으로 죽으시고, 하느님으로 살아나신 예수님,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 부활의 진리로써 당신 가르침을 확증하셨나이다. 믿음은 제 구원의 근원이오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단죄받은 것입니다.

제 안에 생생하고 활동적이고 빛을 발하는 믿음을 심어주소서. 더욱더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변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4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지상 대리자로 삼으시어 모든 믿는 사람들과 목자들을 맡기시고, 무류권과 교도권, 성사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요한 21,15-23 참조)

베드로 안에 현존하며 가르치시며 이를 확고히 다지고 구원하시는 스승 예수님, 찬미를 받으소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는 당신과 함께 있고, 베드로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는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지성으로 의심하고, 의지로 반역하며 마음으로 죄를 지어 당신에게서

떨어져나갔나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길 진리 생명이 됨을 믿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5

성령이 마리아와 사도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은 지혜와 굳셈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 여정이 시작되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며,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사도 2,1-13 참조)

성부 곁에 계시면서 교회를 비추고 성화시키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상 스승님, 찬미를 받으소서.

마리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강림을 새로이 하시고, 시대마다 사도를 일으키시며, 그들에게 지혜, 지성, 지식, 의견, 효경,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의 영을 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6

사도들과 사제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한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한다. 교회는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공존하지 못한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루가 10,1-16; 11,14-23 참조)

당신 진리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신 천상 스승님, 찬미를 받으소서.

말씀은 저를 비추어주셨고,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켜주셨으며, 신뢰와 사랑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당신 말씀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하나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소서. 마리아님,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마음을 갖추게 해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7

길은 두 개다. 하나는 넓고 쉬우나 멸망으로 가는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있다. 다른 길은 좁으나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쓴다. 첫번째는 사상, 윤리, 예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확실한 신앙, 계명, 기도에 정진하는 길이다. 선택은 각자에게 있다.(마태 7,13-14 참조)

천상 스승님, 저를 비추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빛과 표양과 은총을 부족함 없이 주셨나이다.
세상과 마귀와 육정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과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나이다. 저는 생명의 길로 따르고자 하오니 저를 구해주소서. 당신께로 제 마음을 이끌어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8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항상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어야 한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교회는 신앙의 스승으로서 성서와 성전 안에 내포된 계시를 해석하며,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들에 대해 무류권을 갖고 있다.(루가 10,16; 9,48 참조)

천상 스승님, 찬미를 받으소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키우며 살게 하소서.
믿음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고 구원될 수도 없나이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을 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나이다. 교회를 반대하는 교리를 따를 때 신앙을 잃게 되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9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덕의 스승이다. 구원받으려면 교회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규범, 자기 신분에 따른 의무와 복음적 권고를 생활화할 때 성인이 될 것이다. 교회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제안하며 끊임없이 가르친다.(사도 2,42-47; 4,32-35 참조)

항상 저의 길이 되시고자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시는 천상 스승님,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걷나이다.

당신과 멀어질 때에 그들은 교회와 당신의 말씀, 당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흩어져버릴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말씀은 찬미를 받으소서.

방탕한 모든 자녀가 다시 아버지와 당신의 어머니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기도와 영성생활의 스승이다. 교회는 성사들을 전수받고 이를 관리한다. 세례성사는 생명을 주고, 견진성사는 굳세게 해주고, 고해성사는 회복시켜 주고, 성체성사는 양육시켜 주고, 병자성사는 치유하고, 혼인성사는 인간사회를 보장하고, 성품성사는 교회의 지속성을 확고히 한다.(1고린 14,1-25 참조)

교회가 관리하는 성사들을 제정하신 천상 스승님,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천상 덕으로써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나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가지처럼 저희는 성사들을 통하여 당신 안에서 살고 일하나이다.

이 성사들을 통해 당신께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1

미사 성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미사 성제를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영속된다. 미사 성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에 항상 머무시고, 당신 현존의 결실을 전해주신다. 미사 성제를 통하여 사람은 지성, 의지, 마음이 그분과 일치된다.(1고린 11,23-34 참조)

최후의 만찬 때 신앙과 사랑과 은총의 신비인 이 성사를 제정해주신 천상 스승님,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호스티아이신 예수님,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천상 아버지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며 보속과 탄원의 기도를 바치나이다.

성체를 재현하고 보호하며 분배하는 사제를 세워주셨으니 찬미를 받으소서.

그는 당신 신비의 교역자요 분배자이시나이다.

저는 성체적 삶을 살고자 하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2

교회는 마리아에게 맡겨졌다. 창조와 구속사업, 은총의 분배와 영광의 경지에서 마리아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신다. 마리아는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 모든 선은 마리아를 거치게 되고, 마리아에게서 생명이 나온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시다.(요한 19,25-27; 갈라 4,4-5 참조)

어머니에게서 자연적 생명이 나오듯이 마리아에게서 초자연적 생명이 나오게 하신 나의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분은 꽃을 피우는 뿌리이시요, 당신 태중에 복된 열매를 맺으신 어머니요, 동트는 새벽이시나이다. 마리아께서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 또한 가시므로 어머니를 발견하는 사람은 아들 또한 발견하게 되나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은 안전한 지름길이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저희의 본보기가 되셨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3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속생활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 생활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피하고, 신앙을 생활화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교적 전례에 참여한다. 그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신분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 착한 자녀, 좋은 시민,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살아간다.(골로 3,1-25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재건하고자 하신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천상 삶을 본받으라고 인간을 부르셨나이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존중하는 일상적 덕행실천에서 구별되나이다.

이들은 자주 인류의 은인이기도 하나이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생명이신 하느님을 본받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4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 즉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은 교회 교도권의 해석을 따라 복음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적인 공동생활은 진리와 질서, 평화와 진보를 꾀하는 인간적이고 복음적인 것이며,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1베드 2,1-17 참조)

천상 스승님, 당신의 지혜를 흠송하나이다.
당신은 세상과 교회가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협력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나이다.
당신은 모든 백성의 일치를 원하셨으니,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피로 구속되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 안에서 현세적이고 영적인 최대의 진보를 꾀할 수 있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5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베드로가 하나이듯이 하나인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있으나 신앙과 통치와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고, 보편성, 사도성, 로마정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았다.(에페 1,22; 5,23; 사도 8,1; 11,22; 갈라 6,10; 1데살 5,15; 1고린 1,10 참조)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인 교회를 세우신 스승 예수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피로써 교회를 얻어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당신의 모범을 따라, 저도 교회가 널리 퍼지도록 믿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고통을 바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머니인 교회의 합당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6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법을 주시고, 진리를 제시하시며, 영적 예배를 요구하시지만 인간을 자유롭게 놓아주신다(요한 4,24). 그러나 시련의 생활이 끝나면 하느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영혼에게 빛을 비추시어 자신이 행한 것과 소홀히 한 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 연옥, 지옥의 세 가지 중에서 판결이 날 것이다.(창세 2,3; 신명 11,26; 30,15-19; 예레 21,8; 로마 6,22; 14,18 참조)

당신을 위해 저를 창조하신 나의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 손수 저를 빚으셨으니, 심판관이시요 아버지신 당신 품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영원은 저에게 달려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구원된다는 것을 절감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은총인 빛과 위로가 많이 필요하오니 당신께 희망을 두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7

지옥은 하느님을 거역한 사람이 받는 영원한 벌의 상태나 장소를 말한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느님을 잃게 될 것이며, 악을 추종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공심판 후에 육신도 쾌락을 누린 만큼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번의 대죄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루가 16,19-31 참조)

나의 하느님, 오늘 저를 비추어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알고서 자발적으로 지옥에 갈 수 있으며,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피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나이다. “주님, 지옥불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죄가 진짜 악이오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심할 수 있나이다. 죽음보다도 죄를 더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8

하늘나라는 순명한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상급이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았기에 그분을 영원히 모시게 될 것이며, 영적 선을 추구하였기에 이를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뜻을 행한 대가로 하느님을 뵈게 되는 곳이고, 사랑한 대가로 하느님 안에서 즐기는 곳이다.(이사 65,17-25; 묵시 2,7;

22,2-5; 루가 18,28-30; 마르 10,30 참조)

천상 스승님, 제 영혼 깊이 희망을 심어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며, 성부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자 오른편에 계시는 동정 마리아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인들을 관상하나이다. 필요한 것은 은총과 협력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9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각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최종적인 평가가 날 것이며, 심판관이 나타나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지막 판결을 듣게 될 것이다. “축복받은 이들과, 내 아버지의 나라로 오너라.” “저주받은 이들과, 영원한 불 속으로 가거라.” 의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날은 인류역사의 종말이요, 주님의 날이요, 진리와 정의의 날이다.(마태 25,31-46 참조)

천상 스승님, 당신의 영원한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구원이 찬양받을 것이며, 의인들의 공로가 인정받을 것이며 모든 악인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사회적 의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0

구원은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 선교 협력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달한다.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17,18; 20,21 참조) 교회는 양과 어린 양들을 하늘나라의 양우리에 자애로운 마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양떼를 모으고 돌본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1 디모 2,3-7 참조)

천상 스승님, 추수할 것이 많으니 당신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 하나의 양우리에 한 목자만이 있기를 원하시는 당신 성심의 탄식을 알아듣게 하소서. 내적 생활의 사도직, 고통과 기도의 사도직, 표양과 출판의 사도직, 말씀과 성소의 사도직, 진리 안에 사랑의 사도직. 마리아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구원에 대한 강한 원의를 일으켜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경을 외거나 노래한다.(기도서 20면)

바로 가족 9일기도

스승 예수 9일기도

후렴: 우리들의 유일하신 스승 예수를 어서 와 경배하세.

1.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 속을 거닐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 14,6; 8,12 참조)

□후렴

2. 너희가 나를 스승이며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 과연 그러하노라. 나 너희에게 표양을 주어 내가 너희에게 행함과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기 위함이다.(요한 13,13-15 참조)

□후렴

3. 너희는 스승이라는 말도 듣지 말라. 대저 너희 스승은 하느님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마태 23,10.8 참조)

□후렴

4.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밖에는 되지 못하리라.(루카 6,40 참조)

□후렴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니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요한 15,5 참조)

□후렴

6. 나는 생명의 빵이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니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되리라.(요한 6,48-51 참조)

□후렴

7.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게 되리라.(마르 16,15-16 참조)

□후렴

독서와 반성: 마태 23,1-10; 요한 14,1-11; 히브 1,1-16 중 하나를 선택함.

찬미가

천상 스승께

나는 길이다

1. 그리운곳 고향찾아 찬류계곡 헤매이는
무상길손 인생에게 그리스도 확실한길.
2. 인간모습 취하심은 효력강한 모범일시
우리당신 자취따라 항상가게 하옵소서.
3. 아해우는 동굴가난 나자렛집 노동의땀
역센나무 십자고통 무언교육 주시도다.
4. 당신길을 따라가는 교회안의 자녀들께
천국상속 주옵시며 당신모범 주옵소서.
5. 자모께서 인도할이 죽음어둠 압도막고
귀양자께 희망주어 천국땅에 심으소서.
6. 영원진리 예수님은 우리의길 우리생명
당신께와 성부성령 항상영화 권능영광. 아멘.

나는 진리다

1. 유일한빛 그리스도 불안한맘 비추시면
불신오류 물러가고 진리태양 비취오리.
2. 당신빛을 잃은세상 암흑중에 싸였으니
신앙과다 사론사랑 마음마다 내리소서.
3. 모든혀가 당신찬송 연극예술 문학신문
문자마다 폐지마다 당신찬송 할지어다.
4. 하늘가는 복음음파 모든사람 모든곳에
진리원음 전하옵고 당신영광 노래하리.
5. 당신이름 기치아래 방방곡곡 교회승리
모든민족 모두모아 일치화목 케하소서.
6. 영원진리 예수님은 우리의길 우리생명
당신께와 성부성령 항상영화 권능영광. 아멘.

나는 생명이다

1. 영생의샘 그리스도 마음마다 생명주어
죽음의벽 분쇄하고 새생명을 빛내도다.
2. 천국복된 자리에서 귀양자에 생명줄분
열린가슴 풍부하게 무상인간 생명주리.
3. 몰로다시 난우리를 신비체에 넣어주사
천상은총 칠성사샘 풍성토록 베푸시다.
4. 원조범죄 큰상처로 상처깊은 우리본성

- 이에모범 새워지고 천국보상 받게되다.
5. 평화안에 인류번성 화목안에 세계흥성
행복하온 가정에는 무죄의꽃 웃음피리.
6. 영원진리 예수님은 우리의길 우리생명
당신계와 성부성령 항상영화 권능영광. 아멘.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 당신의 진리와 성덕의 길을 가르쳐주소서.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스승이여, 우리가 알거니와 스승은 진리이시며, 또 하느님의 길을 진실히 가르치시나이다.

마리아의 노래(364면)

후렴

기도합시다.

당신 사랑으로 외아들을 온 우주의 스승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나라의 신비를 잘 알아듣도록 당신 아들의 천상 가르침에 동화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의 모후 9일기도

후렴: 교회의 어머니시요 스승이시며 사도의 모후여, 알렐루야, 알렐루야.

1. 나는 너를 여자와, 또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창세 3,15 참조)

□후렴

2.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니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니라.(루가 1,35 참조)

□후렴

3. 첫 아들을 낳았으나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도다.(루가 2,7 참조)

□후렴

4.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프리다.(루가 2,34-35 참조)

□후렴

5.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이 분이 네 어머니”라 하셨도다.(요한 19,26-27 참조)

□후렴

6.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인들과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도다.(사도 1,14 참조)

□후렴

7. 항상 동정이신 천주의 모친 마리아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영광스러이 천국에 올림을 받으셨도다.

□후렴

독서와 반성: 사도 1,12-14; 2,1-4

찬미가:

사도의 모후 노래

1.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
한데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칠은을 기다리네.
2. 성령 오심을 고대하며 함께 기도하던 마리아
모여 있던 이들보다 은총을 충만히 받으셨네.
3. 성령의 사랑 안으사 은혜로 가득 찬 마리아
자녀인 우리에게도 천상 은혜 나누어 주소서.
4.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께 나아가
은총의 넓은 강이신 어머니께 물을 청하라.
5. 마리아는 성덕의 은총 사도에게 나눠주시며
형제들을 이끌도록 우리에게 은총 주시리라.
6. 동정녀에서 나신 예수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원히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멘.

○ 사도의 모후님,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우리들의 스승이며 모후신 마리아여, 당신 아들인 추수 주인에게 추수에 많은 일꾼을 보내게 하소서. 알렐루야.

마리아의 노래 (364면)

□후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느님,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청하오니, 우리를 축성하시어 당신을 충실히 섬기게 하시며, 당신 사랑에 위대한 업적을 말과 표양으로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바로 9일기도

후렴: 진리의 설교자시요 이교백성들의 스승이신 사도 바오로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모두 감옥에 가두었도다.(사도 8,3 참조)

□후렴

2.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로다.(사도 9,4-5 참조)

□후렴

3. 하느님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도다.(갈라 2,8-9 참조)

□후렴

4.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만한 일도 여러 번 있었도다.(2고린 11,23)

□후렴

5.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리라.(2고린 12,9 참조)

□후렴

6.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내 안에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총은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1고린 15,10 참조)

□후렴

7.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2티모 4,7-9 참조)

□후렴

독서와 반성: 성바로 서간 중에서

찬미가 (1)

뛰어난 박사 우리들의 지도자
너와 함께 우리 맘도 하늘로
장막에 가려진 우리 신앙 밝혀지고
사랑만이 지배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예와 영광이
권력과 즐거움 삼위에게 있으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치 가운데
무궁세에 끊임없이 영원히. 아멘.

찬미가 (2)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열렬한 교회를 세우니
땅에는 그의 생생한 편지
하늘에는 그의 기쁨과 월계관을 바치는 바오로

어둠 속을 헤매는 세상을
그의 편지로 밝혀 주면서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영원한 어둠에 도전하는 바오로

바오로를 통해 인간에게
생명의 아버지와 스승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과 찬미를.

○ 간택된 그릇이신 바오로 사도님,

● 온 세상의 진리의 설교자시여.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진리의 설교자이신 바오로님, 이교 백성들의 스승이여, 당신을 간택하신 하느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리아의 노래 (364면)

□후렴

기도합시다.

당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오로 사도를 선택하신 우리 주 하느님, 성바오로가 왕과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믿음의 빛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가 항상 백성들의 어머니요, 스승으로서 드러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 9일기도

초대송: 주님은 나의 목자.

독서와 반성: 예레 23,1-6; 예제 34,1-31; 이사 40,9-11; 1베드 2,21-25; 히브 13,20-21; 요한 10,1-18

찬미가

후렴: 선한 목자요, 참된 음식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를 양육하고 지켜주시며, 이 지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소서.

1. 시온이여, 구세주를 찬미하라. 너희의 지도자요, 목자이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 목청 돋우어 구세주 찬미하라. 주님을 찬미하고 찬미하며 영원히 찬미하라.

□후렴

2.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음식, 당신께 드리는 찬미의 노래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도다. 열두 제자를 만찬에 부르시어 형제의 사랑 안에 당신 내어주시도다.

□후렴

3. 찬미의 소리 울려 퍼지고, 내 마음은 기쁨과 평화 속에 즐겨 용약하는도다. 보라, 이는 양들의 음식이요, 나그네와 자녀들의 음식이니 헛되이 버리지 말지어라.

□후렴

4. 이사야의 희생제물, 파스카의 어린양, 성조들의 만나의 상징이신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저희를 양육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저희도 성인대열에 끼어 천상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하소서.

□후렴

응송

- 당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 부활하셨도다.
- 양들을 위한 사랑으로 생명을 바치셨도다. 알렐루야.
- 우리의 부활이신 그리스도, 죽음을 당하셨도다.
- 양들을 위한 사랑으로 생명을 바치셨도다. 알렐루야.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선한 목자로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아는도다. 알렐루야.

마리아의 노래 (364면)

□후렴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당신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양떼를 앞장서셨으니, 당신 신자들의 겸손한 양떼가 안전하게 당신 곁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어머니 마리아 9일기도

초대송: 당신 집에

독서와 반성: 사도 1,12-14; 요한 19,25-27

후렴: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의 교회를 비추시고 인도하소서.

1. 성부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몫을 택한 사람이 내 어머니요 형제로다.

□후렴

2. 날마다 당신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그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리라.

□후렴

3.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 이는 세세대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도다.

□후렴

응송

-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도다.
- 마리아님,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도다.
- 당신을 교회의 어머니로 삼으셨도다.
-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의 교회를 비추시고 인도하소서.

마리아의 노래 (364면)

□후렴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동정 마리아에게 당신 백성이고 당신 목장의 양떼인 저희를 맡기셨사오니,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지상에서는 당신을 우리의 목자로서 따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목장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9일기도

초대송: 거룩한 사도들에게 노래를 부르세.

독서와 반성: 사도 15,6-12; 사도 20,17-35; 갈라 2,15-21; 1베드 5,1-5; 마태 16,13-19; 요한 21,15-19.

찬미가

교회의 기둥인 사도들의 찬미노래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도다.

그리스도의 순교자, 흘린 피와 말씀으로
이룩된 성교회가 당신을 우러르네.

생명의 문을 열고 닫는 베드로 바오로
우리 묶는 끈을 끊고 악에서 해방시키소서.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들의 사랑은 온 세상을
빛내고 로마를 순교의 피로 꾸미셨네.
세상의 심판관, 기쁜 소식 전달자인 사도들이여,
우리 기도 들으시어 기적을 일으키소서.

구세주 그리스도 성부 성령은 세세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응송

-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도다.
-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도다.
-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이
-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셨도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도다.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주님,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이교인의 스승 바오로로 하여금 저희에게 당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주소서.

마리아의 노래 (364면)

□후렴

기도합시다.

성베드로와 성바오로의 설교로 교회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첫 열매를 주신 우리 주 하느님, 그들의 전구로 저희를 도와주시어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탄 9일기도

후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어서 와 경배하세.

1. 기뻐하라 시온의 딸이여, 즐거하라 예루살렘의 딸이여, 보라 주님 오시니 그날 크옵신 빛 빛나며, 산은 감미로움을 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언덕에 예언자 오시어, 예루살렘 세우시리라.

□후렴

2. 보라, 다윗 가문에서 나시어, 옥좌에 앉은 천주시며 사람이신 자를 너희는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지어다.

□후렴

3. 보라 이스라엘의 성자, 왕관을 쓰고 오시리니, 나의 보호자이신 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강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후렴

4. 보라,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리니 만일 조금 늦더라도 오실 것을 기다리라.

□후렴

5. 주는 목장에 내리는 비처럼 그날엔 정의가 흥하고 평화는 풍부히 넘쳐흐르리라, 세상의 모든 왕이 주앞에 굴복하며, 모든 백성은 저를 섬기리라.

□후렴

6. 우리 위해 한 아기가 탄생하였으니, 강력한 천주라 불리리라. 그는 조상 다윗 어좌에 앉아, 그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권은 그의 어깨 위에 있도다.

□후렴

7. 천주의 도읍인 베들레헴이여,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탄생하리니, 그는 영원의 날부터 탄생하였고, 온 세상은 그에게 찬미를 드리며 그가 올 때부터 지상에는 평화가 있으리라.

□후렴

(성탄 전날 밤에는 다음 노래를 첨가한다.)

내일 세상의 죄악이 소멸되리니, 세상의 구세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리라.

□후렴

독서

16일 창세3,1-14 로마1,18-26
 17일 창세3,14-20 로마5,12-21
 18일 창세17,15-23 로마4,14-23
 19일 신명15,13-20 사도3,18-26
 20일 이사28,14-20 로마10,5-11
 21일 1사무2,1-10 루가1,26-39
 22일 신명7,6-21 에페2,12-22
 23일 이사7,10-16 마태1,18-25
 24일 미가5,1-5 루가2,1-8

제1독서와 묵상

시편

1. 하늘과 땅은 즐겨 용약하며, 산들은 노래를 부르라.
2. 산들은 즐거움에, 언덕들은 기쁨에 넘치라.
3. 우리 주께서 오시어, 괴로운 자를 붙잡히 여기시리라.
4.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구름은 의인을 비같이 내려보내고, 땅은 열리어 구세주가 나게 하라.
5. 주여 우리를 기억하사,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소서.
6.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구원을 베푸소서.
7. 주여 황야의 바위에서 시온 땅의 산까지 세상을 다스릴 어린양을 보내소서.
8. 주여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당신 얼굴 보이시면 구원을 얻겠나이다.
9. 주여 오시어 평화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즐기겠나이다.
10.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의 길을 알고, 당신 구원이 모든 민족에서 알려지기 위함이다.
11.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당신 힘을 일으키며 오소서.
12. 주여 빨리 오시어,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13. 구하오니 당신은 하늘을 열고 오소서, 모든 산은 당신 앞에서 부서지리다.
14. 케루빔 위에 앉으신 주님, 오시어 당신 얼굴을 보이소서.
15.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2독서와 묵상

찬미가

1. 어둠을 뚫는 밝은 소리, 악몽 사라지게 하네.
 예수 높은 곳에서 오니, 우리 용서 빌지어다.
2. 어린양은 무상으로 우리 빛을 갚기위해
 보냄을 받으셨도다. 통회 눈물 빌지어다.
3. 창조주 종의 몸 취하여 그가 만든 자 잃지 않고

- 자기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4. 조찰한 모친 태중에 하늘의 은혜 내리사
남자 모르는 동정녀 천주 성자 잉태하다.
 5. 순결한 동정녀 품 안은 천주의 성전되고,
허물없으신 동정녀 천주 성자 잉태하다.
 6. 성부와 외아들 성자께 영광이 있어지다.
위로자신 성령께도 영원무궁 이르도록. 아멘.

후렴과 마리아의 노래

후렴: 16일: 보라, 세상의 주 왕이 오시어 사로잡힌 우리를 풀어주시도다.

마리아의 노래 (364면)

17일: 오, 상지여, 지극히 높은 자의 입에서 나와 권능과 양순으로 끝까지 다스리소서. 오소서, 전지하신 자여, 지혜의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주소서.

18일: 오, 이스라엘 사람의 인도자신 굳센 천주여,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나이 산에서 그에게 법을 주신 이여, 오소서, 당신 팔을 펼치사 저희를 구하소서.

19일: 오, 이새의 순이여, 당신은 백성들의 우러름이되사, 모든 왕들이 당신 앞에서 묵묵하며 백성들은 기도할지어다. 오소서, 지체치 말고 오소서. 저희를 구하소서.

20일: 오, 다윗의 열쇠여, 이스라엘 왕의 지팡이. 당신이 여시면 닫을 이 없고 당신이 닫으시면 열 이 없으니 오소서, 암흑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포로들을 옥에서 구하소서.

21일: 오, 영원한 빛이여, 비추임은 의덕의 태양이시니 오시어 비취주소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22일: 오, 민족의 왕, 모든 이가 바라던 자여,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시는 모퉁이 돌이여 오소서. 당신이 만든 자를 구해 주소서.

23일: 오, 임마누엘 우리의 왕이신 자여, 만민의 바람이시며 입법자이신 구세주여, 오소서 천주이신 주여, 저희를 구하소서.

24일: 태양이 하늘에 떠오를 때 지붕에서 나오듯이 만왕인 성부께서 나오심을 우리는 보리라.

기도합시다.

오 주님, 늦지 않고 빨리 오시어, 당신 자비에 의탁하는 이들이 당신 오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천상의 은총으로 저희를 도와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공의 비결 노래

1. 나의 약속을 받으소서

나의 한계를 아오니
나는 약하고 가난한 몸
용서하소서 오만을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우리 생명
부활하신 스승 그리스도
오, 예수여 당신은 아시니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
오, 예수여 당신은 아시니
아무 것도 아닌 무능한 우리

2.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여 당신만 찾나이다
주님 뜻과 주님 영광
모든 형제의 평화를
당신은 나에게 지혜와 굳셈과
성화의 은혜 주소서
오, 예수여 감사합니다
사도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도
오, 예수여 사랑 주소서
마리아와 함께 당신께 가리다

나는 알고 있노라

나는 알고 있노라
내 믿는 그분을 알고 있노라
그날까지 능하신 주
내게 맡겨 주신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노라

주여 당신은 나를 살살이 보고 아시나이다
앞거나 서거나 매양 나를 아옵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으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령강림(1)

1. 임하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여 임하소서
고귀하온 은총으로 모든조물 돌보소서.
2. 우리들의 위로자여 천주주신 선물이라
모든생명 근원이며 타는사랑 주시도다.
3. 칠은주실 성령이여 세상오신 사신이라
우리맘에 임하시어 당신칠은 베푸소서.
4. 우리명오 비추시고 우리맘에 사랑주사
우리들의 질병고통 즐겨참게 하옵소서.
5. 우리원수 멀리쫓아 참된평화 주옵시며
당신인도 순히들어 재앙면케 하옵소서.
6. 우리신덕 굳게하사 성부성자 알게하며
당신또한 양위에게 발하심 알게하소서.
7. 성부대전 영광이여 부활하신 성자께와
위로자신 성령에게 무궁영광 있어지다. 아멘.

성령강림(2)

1.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2.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3.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4.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5.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6.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7. 허물은 씻어 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8. 굳은 맘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길 이끄소서.
9.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10.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즈가리아의 노래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심이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 되리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마리아의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하셨음ियो,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떼데움)

-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노래부르오니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엄위하신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다.
-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지없이 엄위하신 아버지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사람을 구원하시려, 몸소 사람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품을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 죽음의 가시를 쳐버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며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당신 종들
저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저희도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다음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차지하신 백성에게 강복하소서
 당신 백성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이끌어주소서.
- 나날이 주님을 기리는 저희가
 영원히 주님 이름 기리오리다.
 주님,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어
 오늘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소서.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께 바라는 영생을 얻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주님께 바라오니
 부끄럼이 없으리이다, 영원히.

- 성부와 성자를 성령과 함께 찬송하오니,
 ● 영원히 찬미와 찬양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의 자비는 끝이 없고, 선하신 보배는 무한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지존하신 당신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 자비를 믿고 은혜를 청하는 모든 이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들이 청하는 바를 들어
 허락하시어 후에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ve maris stella

1. Ave maris stella,
Dei Mater alma,
Atque semper Virgo,
Felix coeli porta.
2. Sumens illud ave
Gabrielis ore,
Funda nos in pace,
Mutans Hevae nomen.
3. Solve vincla reis,
Profer lumen caecis:
Mala nostra pelle,
Bona cuncta posce.
4. Monstra te esse matrem:
Sumat per te preces,
Qui pro nobis natus,
Tulit esse tuus.
5. Virgo singularis,
Inter omnes mitis,
Nosculpis solutos,
Mites fac et castos.
6. Vitam praesta puram,
Iter para tutum:
Ut, videntes Iesum,
Semper collaetemur.
7. Sit laus Deo Patri,
Summo Christo decus,
Spiritui Sancto,
Tribus honor unus. Amen.

대사

바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각 수도회의 요청에 따라 성청 내사원은 1978년 1월 27일에 아래와 같이 전대사를 승인하였다.

성바로수도회와 성바로딸수도회

1. 전수도회: 스승 예수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사도의 모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바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수도회 설립일.

2. 각 공동체: 각 공동체의 주보성인 대축일, 유해 또는 그 일부가 안치되어 있는 성인이나 복자의 축일, 교회법에 따른 공식 방문 때.

3. 회원 개인: 수련기를 시작하는 날, 첫서원 날, 종신서원 날, 서원 25주년, 50주년, 60주년, 75주년.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전수도회: 스승 예수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사도의 모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바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성베르나르도 축일, 수도회 설립일.

각 공동체 및 회원 개인의 경우는 성바로수도회와 같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전수도회: 성령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선한 목자 예수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성베드로와 성바로 사도 대축일, 성비오 10세 기념일, 선한 목자 어머니 마리아 대축일, 수도회 설립일.

각 공동체 및 회원 개인의 경우는 성바로수도회와 같다.

사도의 모후수녀회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스승 예수 대축일, 사도의 모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바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수도회 설립일.

예수사제회, 대천사 가브리엘회, 성마리아 영보회, 성가정회

스승 예수 대축일, 사도의 모후 대축일, 성바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수도회 설립일, 성가브리엘 대천사 축일(성가브리엘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성마리아 영보회).

바오로 가족 협력사회와 바오로 협회

국제 가톨릭 성서협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부, 시청각기술사도직, 모든 성소를 위하여 기도와 고통과 사랑을 바치는 모임, 연령회, 그리스도인 가정 협회는 다음과 같은 축일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스승 예수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성바오로 대축일, 사도의 모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성모승천 대축일, 성요셉 대축일.

주의 사항

1) 위에 언급한 대사를 얻기 위한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외에도 종교상의 의무의 충실을 다짐하고 결심을 새로이 해야 한다(역주: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바치거나 다른 기도 바친다).

2)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영어 미사 통상문(THE ORDER OF MASS)

INTRODUCTORY RITES

Greeting

C :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 : Amen.

C : ①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②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③ The Lord be with you.

A : And with your spirit.

Penitential Rite

C : Brethren (brothers and sisters), let us acknowledge our sins, and so prepare ourselves to celebrate the sacred mysteries.

①

A : I confess to almighty God and to you, my brothers and sisters, that I have greatly sinned, in my thoughts and in my words, in what I have done and in what I have failed to do; (And, strike their breast, they say)

through my fault, through my fault, through my most grievous fault;

therefore I ask blessed Mary ever-Virgin, all the Angels and Saints, and you,

my brothers and sisters, to pray for me to the Lord our God.

C : May almighty God have mercy on us, forgive us our sins, and bring us to everlasting life.

A : Amen.

C : Lord, have mercy. A : Lord, have mercy.

C : Christ, have mercy. A : Christ, have mercy.

C : Lord, have mercy. A : Lord, have mercy.

②

C : Have mercy on us, O Lord.

A : For we have sinned against you.

C : Show us, O Lord, your mercy.

A : And grant us your salvation.

C : May almighty God have mercy on us, forgive us our sins, and bring us to everlasting life.

A : Amen

③

C : You were sent to heal the contrite of heart: Lord, have mercy.

A : Lord, have mercy.

C : You came to call sinners: Christ, have mercy.

A : Christ, have mercy

C : You ar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to intercede for us: Lord, have mercy.

A : Lord, have mercy.

C : May almighty God have mercy on us, forgive us our sins, and bring us to everlasting life.

A : Amen.

Glory to God

C :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 : and on earth peace to people of good will.

We praise you, we bless you, we adore you, we glorify you,

we give you thanks for your great glory,

Lord God, heavenly King, O God, almighty Father.

Lord Jesus Christ, Only Begotten Son,

Lord God, Lamb of God, Son of the Father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receive our prayer;

you ar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ave mercy on us.

For you alone are the Holy One, you alone are the Lord,

you alone are the Most High, Jesus Christ,

with the Holy Spirit, in the glory of God the Father. Amen.

Opening Prayer

C : Let us pray.

① We ask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and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② We ask this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

③ We ask this through Christ our Lord.

④ Grant this through Christ our Lord.

LITURGY OF THE WORD

First and Secons Readings : At the end of the reading,

Reader : The word of the Lord.

A : Thanks be to God.

Gospel Reading:

At the beginning of the reading,

C :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rk, Luke, Matthew, John)

A : Glory to you, O Lord.

At the end of the gospel,

C : The Gospel of the Lord.

A : Praise to you, Lord Jesus Christ.

Homily

Profession of Faith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the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Prayers of the Faithful

At the end of the prayers,

A : Lord, hear our prayer

LITURGY OF THE EUCHARIST

Preparation of the Gifts

C : Blessed are you, Lord God of all creation,

for through your goodness we have received the bread we offer to you:

fruit of the earth and work of human hands,

it will become for us the bread of life.

A : Blessed be God for ever.

C : By the mystery of this water and wine
may we come to share in the divinity of Christ,
who humbled himself to share in our humanity.

C : Blessed are you, Lord God of all creation,
for through your goodness we have received the wine we offer you:
fruit of the vine and work of human hands, it will become our spiritual drink.

A : Blessed be God for ever.

C : With humble spirit and contrite heart may we be accepted by you, O Lord,
and may our sacrifice in your sight this day be pleasing to you, Lord God.

C : Wash me, O Lord, from my iniquity and cleanse me from my sin.

Invitation to Prayer

C : Pray, brethren, that my sacrifice and yours may be acceptable to God, the almighty
Father.

A : May the Lord accept the sacrifice at your hands for the praise and glory of his name,
for our good, and the good of all his holy Church.

Prayer Over the Offerings (Turn to the appropriate day)

Eucharistic Prayer

C : The Lord be with you.

A : And with your spirit.

C : Lift up your hearts.

A : We lift them up to the Lord.

C :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A : It is right and just.

Eucharistic Prayer II

Preface;

C : It is truly right and just, our duty and our salvation,
always and everywhere to give you thanks, Father most holy,
through your beloved Son, Jesus Christ, your Word through whom you made all
things,
whom you sent as our Savior and Redeemer,
incarnate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the Virgin.
Fulfilling your will and gaining for you a holy people,

he stretched out his hands as he endured his Passion,
so as to break the bonds of death and manifest the resurrection.
And so, with the Angels and all the Saints we declare your glory,
as with one voice we acclaim:

Sanctus;

A : Holy, Holy, Holy Lord God of hosts. Heaven and earth are full of your glory.
Hosanna in the highest.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Invocation of the Holy Spirit;

C : You are indeed Holy, O Lord, the fount of all holiness.
Make holy, therefore, these gifts, we pray, by sending down your Spirit upon them
like the dewfall,
so that they may become for us the Body + and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rd's Supper;

C : At the time he was betrayed and entered willingly into his Passion,
he took bread and, giving thanks,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this, all of you, and eat of it, for this is my body, which will be given up for
you."**

In a similar way, when supper was ended, he took the chalice and,
once more giving thanks, he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this, all of you, and drink from it,
for this is the chalice of my blood, the blood of the new and eternal covenant,
which will be poured out for you and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Do this in memory of me."**

Memorial Acclamation:

C : The mystery of faith.

A : ① We proclaim your Death, O Lord, and profess your Resurrection until you come again.
② When w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we proclaim your Death,
O Lord, until you come again.
③ Save us, Savior of the world, for by your Cross and Resurrection you have set us
free.

Memorial Prayer;

C : Therefore, as we celebrate the memorial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offer you, Lord, the Bread of life and the Chalice of salvation, giving thanks that you have held us worthy to be in your presence and minister to you. Humbly we pray that, partaking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we may be gathered into one by the Holy Spirit.

For the Church;

C : Remember, Lord, your Church,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bring her to the fullness of charity, together with N. our Pope and N. our Bishop and all the clergy.

For the Dead

C : Remember also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fallen asleep in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and all who have died in your mercy: welcome them into the light of your face.

In Communion with the Saints;

C : Have mercy on us all, we pray, that with the Blessed Virgin Mary, Mother of God,
with the blessed Apostles, and all the Saints who have pleased you throughout the
ages,
we may merit to be coheirs to eternal life,
and may praise and glorify you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In Praise of God;

C : Through him, and with him, and in him, O God, almighty Father,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all glory and honor is yours, for ever and ever.

A : Amen.

COMMUNION RITE

Lord's Prayer;

C : ① At the Savior's command and formed by divine teaching, we dare to say:

A :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C : Deliver us, Lord, we pray, from every evil, graciously grant peace in our days,

that, by the help of your mercy, we may be always free from sin and safe from all distress,

as we await the blessed hope and the coming of our Savior, Jesus Christ.

A :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Sign of Peace

C : Lord Jesus Christ, who said to your Apostles: Peace I leave you, my peace I give you, look not on our sins, but on the faith of your Church, and graciously grant her peace and unity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Who live and reign for ever and ever.

A : Amen.

C : The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 always.

A : And with your spirit.

C : Let us offer each other the sign of peace.

A : Peace be with you.

Breaking of the Bread

Lamb of God;

A :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Lamb of God, you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grant us peace.

C : May this mingling of the Body and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bring eternal life to us who receive it.

May the receiving of your Body and Blood, Lord Jesus Christ, not bring me to judgment and condemnation,

but through your loving mercy be for me protection in mind and body and a healing remedy.

Communion;

C : Behold the Lamb of God, behold him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Blessed are those called the supper of the Lamb.

A : Lord, I am not worthy that you should enter under my roof, but only say the word and my soul shall be healed.

C : May the body(blood) of Christ keep me safe for eternal life.

C : The body of Christ.

A : Amen.

Prayer After Communion:

C : Let us pray.

CONCLUDING RITE

Blessing;

C : The Lord be with you.

A : And with your spirit.

C : May almighty God bless you,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 : Amen.

Dismissal;

C : ① Go forth, the Mass is ended.

② Go and announce the Gospel of the Lord.

③ Go in peace, glorifying the Lord by your life.

④ Go in peace.

A : Thanks be to God.

라틴어 미사 통상문(ORDINARIUM MISSAE)

RITUS INITIALES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1

Gratia Domini nostri Iesu Christi, et caritas Dei,
et communicatio Sancti Spiritus sit cum omnibus vobis.
Et cum spiritu tuo.

2

Gratia vobis et pax a Deo Patre nostro et Domino Iesu Christo.
Benedictus Deus et Pater Domini nostri Iesu Christi.
(or) Et cum spiritu tuo.

3

Dominus vobiscum.
Pax vobis
Et cum spiritu tuo.

1

Fratres, agnoscamus peccata nostra, ut aptissimus
ad sacra mysteria celebranda.
Confiteor Deo omnipotenti et vobis, fratres,
quia peccavi nimis
cogitatione, verbo, opere et omissione:
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
Ideo precor beatam Mariam semper Virginem,
omnes Angelos et Sanctos,
et vos, fratres, orare pro me
ad Dominum Deum nostrum.
Misereatur nostri omnipotens Deus
et, dimissis peccatis nostris,
perducat nos ad vitam aeternam.
Amen.

2

Miserere nostri, Domine.

Quia peccavimus tibi.

Ostende nobis, Domine,
misericordiam tuam.

Et salutare tuum da nobis.

Misereatur nostri omnipotens Deus

et, dimissis peccatis nostris,

perducat nos ad vitam aeternam.

Amen.

3

Qui missus es sanare contritos corde:Kyrie eleison.

Kyrie eleison.

Qui peccatores vocare venisti:

Christe, eleison.

Christe, eleison.

Qui ad dexteram Patris sedes,
ad interpellandum pro nobis:

Kyrie eleison.

Kyrie eleison.

Misereatur nostri omnipotens Deus

et, dimissis peccatis nostris,

perducat nos ad vitam aeternam.

Amen.

Kyrie eleison.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Christe eleison.

Kyrie eleison.

Kyrie eleison.

Gloria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

Laudamus te, benedicimus te,
adoramus te, glorificamus te,
gratias agimus tibi propter
magnam gloriam tuam,
Domine Deus, Rex caelestis,
Deus Pater omnipotens.
Domine Fili unigenite, Iesu Christe,
Domine Deus, Agnus Dei, Filius Patris,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qui tollis peccata mundi, suscipe
deprecationem nostram.
qui sedes ad dexteram Patris, miserere nobis.
Quoniam tu solus Sanctus,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Amen.

Oremus.

(...)

Amen.

LITURGIA VERBI

Lectio Prima

Verbum Domini.

Deo gratias.

Psalmus

Lectio Secunda

Verbum Domini.

Deo gratias.

Alleluia

Evangelium

Dominus vobiscum.

Et cum spiritu tuo.

Lectio sancti Evangelii secundum N.

Gloria tibi, Domine.

Verbum Domini.

Laus tibi, Christe.

Credo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factorem ca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Et in unum Dominum I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 Deo, lumen de lumine,

Deum verum de Deo vero,

genitum, non factum,

consubstantialem Patri:

per quem omnia facta sunt.

Qui propter n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aelis.

Et incarnatus est d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homo factus est.

Crucifixus etiam pro nobis sub Pontio Pilato:
passus et sepultus est, et resurrexit tertia die,
secundum Scripturas, et ascendit in caelum,
sedet ad dexteram Patris.

Et iterum venturus est cum gloria,
iudicare vivos et mortuos,
cuius regni non erit finis.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ilioque procedit.

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r
et conglo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rophetas.
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
Confiteor unum baptisma
in remissionem peccatorum.
Et exspecto resurrectionem
mortuorum, et vitam venturi saeculi.
Amen.

Credo in unum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Et in Ie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Passus sub Pontio Pilato, crucifixus,
mortuus, et sepultus:
Descendit ad inferos;
tertia die resurrexit a mortuis:
Ascendit ad caelos; sedet ad dexteram
Dei Patris omnipotentis:
inde venturus est indicare vivos et mortuos.
Credo in Spiritum Sanctum,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m,
remissionem peccatorum,
carnis resurrectionem, vitam aeternam.
Amen.

LITURGIA EUCHARISTICA

Benedictus es, Domine, Deus universi,
quia de tua largitate accepimus panem,
quem tibi offerimus, fructum terrae
et operis manuum hominum,
ex quo nobis fiet panis vitae.
Benedictus Deus in Saecula.

Benedictus es, Domine,
Deus universi, quia de tua largitate accepimus vinum,
quod tibi offerimus, fructum vitis et operis
manuum hominum, ex quo nobis fiet potus spiritalis.
Benedictus Deus in Saecula.

Orate, fratres: ut meum ac vestrum
sacrificium acceptabile fit apud
Deum Patrem omnipotentem.
Suscipiat Dominus sacrificium de manibus tuis
ad laudem et gloriam nominis sui,
ad utilitatem quoque nostram
totiusque Ecclesiae suae sanctae.

(...)
Amen.

PREX EUCHARISTICA II

Dominus vobiscum
Et cum spiritu tuo.
Sursum Corda.
Habemus ad Dominum.
Gratias agamus Domino Deo nostro.
Dignum et iustum est.

Vere dignum et iustum est,
aequum et salutare, nos tibi, sancte Pater,
semper et ubique gratias agere
per Filium dilectionis tuae Iesum Christum,
Verbum tuum per quod cuncta fecisti
quem misisti nobis Salvatorem et Redemptorem,
incarnatum de Spiritu Sancto et ex Virgine natum.
Qui voluntatem tuam adimplens
et populum tibi sanctum acquirens
extendit manus cum pateretur, ut mortem solveret
et resurrectionem manifestaret.
Et ideo cum Angelis et omnibus Sanctis

gloriam tuam praedicamus, una voce dicentes:

Sanctus,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a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Vere Sanctus es, Domine,
fons omnis sanctitatis.
Haec ergo dona, quaesumus,
Spiritus tui rore sanctifica,
ut nobis Corpus et Sanguis fiant
Domini nostri Iesu Christi.

Qui cum Passioni voluntarie traderetur,
accepit panem et gratias agnes fregit,
deditque discipulis suis, dicens:

**ACCIPITE ET MANDUCATE EX HOC OMNES:
HOC EST ENIM CORPUS MEUM,
QUOD PRO VOBIS TRADATUR.**

Simili modo, postquam cenatum est,
accipiens et calicem,
iterum gratias agens
dedit discipulis suis, dicens:

**ACCIPITE ET BIBITE EX EO OMNES:
HIC EST ENIM CALIX SANGUINES MEI
NOVI ET AETERNI TESTAMENTI,
QUI PRO VOBIS ET PRO MULTIS EFFUNDETUR
IN REMISSIONEM PECCATORUM.
HOC FACITE IN MEAM COMMEMORATIONEM.**

Mysterium fidei:

Mortem tuam annuntiamus, Domine,
et tuam resurrectionem confitemur,
donec venias.

Memores igitur mortis et resurrectionis eius,
tibi, Domine, panem vitae,
et calicem salutis offerimus, gratias agentes
quia nos dignos habuisti astare coram te
et tibi ministrare.

Et supplices deprecamur
ut Corporis et Sanguinis Christi
participes a Spiritu Sancto
congregemur in unum.

Recordare, Domine, Ecclesiae tuae
toto orbe diffusae,
ut eam in caritate perficias
una cum Papa nostro N. et Episcopo nostro N.
et universo clero.

Memento etiam fratrum nostrorum,
qui in spe resurrectionis dormierunt,
omniumque in tua miseratione defunctorum,
et eos in lumen vultus tui admitte.
Omnium nostrum, quaesumus, miserere,
ut cum beata Dei Genetrice Virgine Maria,
beatis Apostolis et omnibus Sanctis,
qui tibi a saeculo placuerunt,
aeternae vitae mereamur esse consortes,
et te laudemus et glorificemus

per Filium tuum Jesum Christum.
Per ipsum, et cum ipso,
et in ipso, est t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Amen.

RITUS COMMUNIONIS

Praeceptis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a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a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c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Libera nos, quae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 peccato 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s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Jesu Christ.
Quia tuum est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Domine Iesu Christe, qui dixisti Apostolis tuis:
Pacem relinquo vobis, pacem mean do vobis;
ne respicias peccata nostra, sed fidem Ecclesiae tuae;
eamque secundum voluntatem tuam
pacificare et coadunare digneris.
Qui vivis et regnas in saecula saeculorum.
Amen.

Pax Domini sit semper vobiscum.
Et cum spiritu tuo.
Offerte vobis pacem.
Invicem benedicimus corde sincero.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miserere nobis.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nobis pacem.

Ecce Agnus Dei, ecce qui tollit peccata mundi.
Beati qui ad cenam Agni vocati sunt.
Domine, non sum dignus, ut intres
sub tectum meum, sed tantum dic
verbo et sanabitur anima mea.

Corpus Christi.
Amen.

Sanguis Christi.
Amen.

Oremus
(...)
Amen.

RITUS CONCLUSIONIS

Dominus vobiscum.
Et cum spiritu tuo.
Sit nomen Domini benedictum.
Ex hoc nunc et usque in saeculum.
Adiutorium nostrum in nomine Domini.
Qui fecit caelum et terram.

Blessing

1

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Amen.

2

Inclinate vos
ad benedictionem.

(...)

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Amen.

3

(...)

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Amen.

Ite, missa est.

Deo gratias.

이탈리아어 미사 통상문(RITO DELLA MESSA)

RITI DI INTRODUZIONE

CANTO D'INGRESSO

Quando l'assemblea si ☐ radunata, il sacerdote con i ministri si reca all'altare, mentre si esegue il canto d'ingresso. Giunto all'altare, il sacerdote con i ministri fa la debita riverenza, bacia l'altare in segno di venerazione, poi con i ministri si reca alla sede. Se non ha luogo il canto, l'antifona d'ingresso ☐ letta o dal popolo o dal lettore, o dallo stesso sacerdote dopo il saluto ai fedeli.

Nel nome del Padre e del Figlio e dello Spirito Santo.

Amen.

La grazia del Signore nostro Ges☐ Cristo,
l'amore di Dio Padre
e la comunione dello Spirito Santo sia con tutti voi.
E con il tuo spirito.

Oppure:

Il Signore, che guida i nostri cuori nell'amore e nella pazienza di Cristo, sia con tutti voi (Cf 27-S 3,5)

Il Dio della speranza, che ci riempie di ogni gioia e pace nella fede per la potenza dello Spirito Santo, sia con tutti voi. (Cf Rm 15,13)

La pace, la carit☐ e la fede da parte di Dio Padre e del Signore nostro Ges☐ Cristo sia con tutti voi. (Cf Ef 6,23)

Fratelli, eletti secondo la prescienza di Dio Padre mediante la santificazione dello Spirito per obbedire a Ges☐ Cristo e per essere aspersi del suo sangue, grazia e pace in abbondanza a tutti voi. (Cf 1Pt 1, 1-2)

Fratelli, per celebrare degnamente i santi misteri, riconosciamo i nostri peccati.

Oppure:

Il Signore Gesù, che ci invita alla mensa della Parola e dell'Eucaristia, ci chiama alla conversione. Riconosciamo di essere peccatori e invochiamo con fiducia la misericordia di Dio.

Oppure, specialmente nelle domeniche:

Nel giorno in cui celebriamo la vittoria di Cristo sul peccato e sulla morte, anche noi siamo chiamati a morire al peccato per risorgere alla vita nuova. Riconosciamoci bisognosi della misericordia del Padre.

Confesso a Dio onnipotente e a voi, fratelli,
che ho molto peccato in pensieri, parole, opere e omissioni,
per mia colpa, mia colpa, mia grandissima colpa.
E supplico la beata sempre vergine Maria,
gli angeli, i santi e voi, fratelli,
di pregare per me il Signore Dio nostro.

Dio onnipotente abbia misericordia di noi, perdoni i nostri peccati e ci conduca alla vita eterna.

Amen.

Altra Formula

Signore, mandato dal Padre a salvare i contriti di cuore, abbi pietà di noi.

Signore, pietà. Kyrie, elison

Cristo che sei venuto a chiamare i peccatori, abbi pietà di noi.

Cristo, pietà. Christe, elison

Signore, che intercedi per noi presso il Padre, abbi pietà di noi

Signore, pietà. Kyrie, elison

KYRIE

Signore, pietà.

Signore, pietà.

Cristo, pietà.

Cristo, pietà.

Signore, piet□.

Signore, piet□.

GLORIA

Gloria a Dio nell'alto dei cieli
e pace in terra agli uomini di buona volont□.

Noi ti lodiamo, ti benediciamo,
ti adoriamo, ti glorifichiamo,
ti rendiamo grazie per la tua gloria immensa,
Signore Dio, Re del cielo, Dio Padre onnipotente.

Signore, Figlio unigenito, Ges□ Cristo,

Signore Dio, Agnello di Dio, Figlio del Padre;

tu che togli i peccati del mondo, abbi piet□ di noi;

tu che togli i peccati del mondo, accogli la nostra supplica;

tu che siedi alla destra del Padre, abbi piet□ di noi.

Perch□ tu solo il Santo, tu solo il Signore, tu solo l'Altissimo:

Ges□ Cristo, con lo Spirito Santo

nella gloria di Dio Padre.

Amen.

ORAZIONE

LITURGIA DELLA PAROLA

PRIMA LETTURA

SALMO RESPONSORIALE

SECONDA LETTURA

ALLELUIA

VANGELO

Il Signore sia con voi.

E con il tuo spirito.

Dal Vangelo secondo...

Gloria a te, o Signore.

Parola del Signore.

Lode a te, o Cristo.

OMELIA

Il sacerdote o il diacono spiega la parola di Dio appena letto. Si deve tenere nelle domeniche e nelle feste di precetto. Negli altri giorni ☐ raccomandata specialmente nelle feste dell'Avvento, di Quaresima e nel Tempo Pasquale. Dopo l'omelia ☐ opportuno un breve silenzio.

CREDO

Credo in un solo Dio,

Padre onnipotente, creatore del cielo e della terra,

di tutte le cose visibili e invisibili.

Credo in un solo Signore, Gesù Cristo,

unigenito Figlio di Dio, nato dal Padre prima di tutti i secoli.

Dio da Dio, Luce da Luce, Dio vero da Dio vero;

generato, non creato; della stessa sostanza del Padre;

per mezzo di lui tutte le cose sono state create.

Per noi uomini e per la nostra salvezza discese dal cielo;

e per opera dello Spirito Santo

si ☐ incarnato nel seno della Vergine Maria e si ☐ fatto uomo.

Fu crocifisso per noi sotto Ponzio Pilato, morì e fu sepolto.

Il terzo giorno ☐ risuscitato, secondo le Scritture;

☐ salito al cielo, siede alla destra del Padre.

E di nuovo verrà, nella gloria, per giudicare i vivi e i morti,

e il suo regno non avrà fine.

Credo nello Spirito Santo, che ☐ Signore e da la vita,

e procede dal Padre e dal Figlio

e con il Padre e il Figlio ☐ adorato e glorificato

e ha parlato per mezzo dei profeti.

Credo la Chiesa, una, santa, cattolica e apostolica.

Professo un solo battesimo per il perdono dei peccati.

Aspetto la risurrezione dei morti e la vita del mondo che verrà.

Amen.

PREGHIERA DEI FEDELI

E' detta anche preghiera universale, perché in essa si prega per tutti gli uomini, nel

seguinte ordine: per le necessit  della Chiesa, per i governanti e per la salvezza di tutto il mondo, per tutti quelli che si trovano in particolare necessit , per la comunit  locale. Il sacerdote invita a pregare con una semplice monizione e conclude con un'orazione .

LITURGIA EUCARISTICA

Si esegue il canto di offertorio, mentre i fedeli presentano il pane ed il vino ed eventualmente altre offerte per le necessit  dei poveri. Il sacerdote riceve i doni e depone sull'altare, il pane e il vino per la celebrazione dell'Eucaristia. Tenendo leggermente innalzata la Patena con il pane, il sacerdote dice:

Benedetto sei tu, Signore, Dio dell'universo:
dalla tua bont  abbiamo ricevuto questo pane,
frutto della terra e del lavoro dell'uomo;
lo presentiamo a te, perch  diventi per noi cibo di vita eterna.
Benedetto nei secoli il Signore.

Benedetto sei tu, Signore, Dio dell'universo:
dalla tua bont  abbiamo ricevuto questo vino,
frutto della terra, e del lavoro dell'uomo;
lo presentiamo a te, perch  diventi per noi bevanda di salvezza.
Benedetto nei secoli il Signore.

Pregate, fratelli, perch  il mio e vostro sacrificio sia gradito a Dio, Padre onnipotente.

Oppure, una di queste altre formule:
Pregate, fratelli e sorelle,
perch  questa nostra famiglia, radunata nel nome di Cristo,
possa offrire il sacrificio gradito a Dio Padre onnipotente.

Pregate, fratelli e sorelle,
perch  portando all'altare la gioia e la fatica di ogni giorno,
ci disponiamo a offrire il sacrificio gradito a Dio Padre onnipotente.

Pregate, fratelli e sorelle,
perch  il sacrificio della Chiesa,
in questa sosta che la rinfranca nel suo cammino verso la patria,
sia gradito a Dio Padre onnipotente.

Il Signore riceva dalle tue mani questo sacrificio
a lode e gloria del suo nome,
per il bene nostro e di tutta la sua santa Chiesa.

ORAZIONE

Amen.

Il Signore sia con voi.
E con il tuo spirito.
In alto i nostri cuori.
Sono rivolti al Signore.
Rendiamo grazie al Signore, nostro Dio.
 cosa buona e giusta.

PREGHIERA EUCARISTICA II

Padre veramente santo,
fonte di ogni santità,
santifica questi doni con l'effusione del tuo Spirito
perché diventino per noi il corpo
e + il sangue di Gesù Cristo nostro Signore.
Egli, offrendosi liberamente alla sua passione,
prese il pane e rese grazie,
lo spezzò, lo diede ai suoi discepoli, e disse:

**PRENDETE, E MANGIATENE TUTTI:
QUESTO IL MIO CORPO
OFFERTO IN SACRIFICIO PER VOI.**

Dopo la cena, allo stesso modo, prese il calice e rese grazie, lo diede ai suoi discepoli, e disse:

**PRENDETE, E BEVETE NE TUTTI:
QUESTO IL CALICE DEL MIO SANGUE
PER LA NUOVA ED ETERNA ALLEANZA,**

**VERSATO PER VOI E PER TUTTI
IN REMISSIONE DEI PECCATI.
FATE QUESTO IN MEMORIA DI ME.**

Mistero della fede.

Annunciamo la tua morte, Signore,
proclamiamo la tua risurrezione,
nell'attesa della tua venuta.

Celebrando il memoriale della morte e risurrezione del tuo Figlio,
ti offriamo, Padre, il pane della vita e il calice della salvezza,
e ti rendiamo grazie per averci ammessi alla tua presenza
a compiere il servizio sacerdotale.

Ti preghiamo umilmente:
per la comunione al corpo e al sangue di Cristo
lo Spirito Santo ci riunisca in un solo corpo.

Ricordati, Padre, della tua Chiesa diffusa su tutta la terra:

rendila perfetta nell'amore
in unione con il nostro Papa N.,
il nostro Vescovo N.,
e tutto l'ordine sacerdotale.

Ricordati dei nostri fratelli, che si sono addormentati
nella speranza della risurrezione
e di tutti i defunti che si affidano alla tua clemenza:
ammettili a godere la luce del tuo volto.

Di noi tutti abbi misericordia:
donaci di aver parte alla vita eterna,
insieme con la beata Maria, Vergine e Madre di Dio,
con gli apostoli e tutti i santi,
che in ogni tempo ti furono graditi:
e in Gesù Cristo tuo Figlio canteremo la tua gloria.

Per Cristo, con Cristo e in Cristo,

a te, Dio, Padre onnipotente,
nell'unita dello Spirito Santo,
ogni onore e gloria, per tutti i secoli dei secoli.
Amen.

RITI DI COMUNIONE

Obbedienti alla parola del Salvatore e formati al suo divino insegnamento, osiamo dire:

PATER NOSTER

Padre nostro, che sei nei cieli,
sia santificato il tuo nome,
venga il tuo regno, sia fatta la tua volontà,
come in cielo così in terra.
Dacci oggi il nostro pane quotidiano,
e rimetti a noi i nostri debiti
come noi li rimettiamo ai nostri debitori,
e non ci indurre in tentazione, ma liberaci dal male.

Liberaci, o Signore, da tutti i mali,
concedi la pace ai nostri giorni;
e con l'aiuto della tua misericordia,
vivremo sempre liberi dal peccato e sicuri da ogni turbamento, nell'attesa che si compia la
beata speranza,
e venga il nostro Salvatore Gesù Cristo.

Tuo è il regno, tua la potenza
e la gloria nei secoli.

Signore Gesù Cristo, che hai detto ai tuoi apostoli:
"Vi lascio la pace, vi do la mia pace",
non guardare ai nostri peccati,
ma alla fede della tua Chiesa,
e donale unita e pace secondo la tua volontà.
Tu che vivi e regni nei secoli dei secoli.
Amen.

La pace del Signore sia sempre con voi.
E con il tuo spirito.

AGNELLO DI DIO

Agnello di Dio, che togli i peccati del mondo, abbi piet  di noi.
Agnello di Dio, che togli i peccati del mondo, abbi piet  di noi.
Agnello di Dio, che togli i peccati del mondo, dona a noi la pace.

Il sacerdote dice:

Signore Ges  Cristo, figlio di Dio vivo,
che per volont  del Padre e con l'opera dello Spirito Santo
morendo hai dato la vita al mondo,
per il Santo mistero del tuo Corpo e del tuo Sangue,
liberami da ogni colpa e da ogni male,
fa che sia sempre fedele alla tua legge
e non sia mai separato da Te.

Oppure:

La Comunione del Tuo Corpo ed il Tuo Sangue,
Signore Ges  Cristo,
non diventi per me giudizio di condanna,
ma per tua misericordia,
sia rimedio di difesa dell'anima e del corpo.

Quindi prosegue mostrando l'ostia consacrata:

Beati gli invitati alla Cena del Signore.

Ecco l'Agnello di Dio, che toglie i peccati del mondo.

Assieme all'assemblea, il sacerdote dice:

O Signore, non sono degno di partecipare alla tua mensa: ma di' soltanto una parola e io sar  salvato.

Il Corpo di Cristo.

Amen.

ORAZIONE

RITI DI CONCLUSIONE

Il Signore sia con voi.

E con il tuo spirito.

Vi benedica Dio onnipotente, Padre e Figlio e Spirito Santo.

Amen.

La Messa □ finita: andate in pace.

Rendiamo grazie a Dio!

Oppure:

- La gioia del Signore sia la nostra forza. Andate in pace.
- Glorificate il Signore con la vostra vita. Andate in pace.
- Nel nome del Signore, andate in pace.

Nelle domeniche di Pasqua:

- Andate e portate a tutti la gioia del Signore risorto.

Rendiamo grazie a Dio.

주(註)

1) 원문에는 골로 10,31로 되어 있으나, 1고린 10,31로 올바르게 교정했다.

2) AD 160: 이 신심을 통해 인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정복된다. 신앙심은 충만해지고 수도자도 사제도 지혜, 나이,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완성된 나이에까지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십니다.” 하고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서 혹은 인간을 대신하기까지 성장한다. 신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모든 신심은 이 신심으로 수렴된다. 이 사상은 설립자의 생애를 통해 더욱 발전되어 갔으며 그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에는 무척 감동적이었다.

AD 352: 무한한 가치, 생명과도 같은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은 수도적 완성과 사도직을 두루 비추어줄 것이다.

3) 이 기도는 삼위일체적인 기도로 티없는 마리아의 성심과 예수님의 성심을 통해 성령의 은총으로 천상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활동, 기쁨과 고통을 예수님의 희생제물, 즉 in unione al sacrificio eucaristico에 합쳐서 바쳐야 한다.

4) 한국어로 unione al sacrificio eucaristico를 번역하기는 어렵다. 직역으로 하면 ‘감사의 희생제물에 합쳐서’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감사, Eucaristia’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냥 ‘미사의 희생제물’이라고 번역한다.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표현되어 있다.

5) 이 기도의 전반부는 신앙고백문처럼 되어 있고, 후반부는 주님의 기도처럼 끝을 맺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기도는 천상 아버지께 드리는 신뢰에 찬 기도이다. 설립자는 세 가지 점에 대해 특히 감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과 밤에 무사히 지켜 주신 것, 그리고 바오로 가족으로 인도하신 점이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주시기를 빌며, 자신만이 아니라 친지들까지도 죄와 악에서 보호해 주길 청한다.

6) 설립자께서 이탈리아 교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인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나의 하느님(mio Dio)이라는 표현은 성서적인 근거(요한 20,28: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를 지닌 중요한 말이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리스도께 고백을 드릴 때 “나의 주님”(필립 3,8)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형식은 우리 기도서의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

7) ‘지난 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본에서는 ‘이 밤 in questa notte’이다.

8) 바오로 가족(Famiglia Paolina): AD 1, 25, 27, 32, 64, 65, 74, 88, 90, 104, 110, 123, 128-130, 133, 136, 146, 163, 176, 180, 184, 196, 200, 201, 218, 307, 334, 341, c355.

9)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은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에서는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받들고”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10) 은총(Grazia)은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저술에서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말이다. 특히 AD에서는 제목부터 “당신 은총의 풍성한 결실임을 보여 주고, 그 밖의 글에서는 은총(성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나이에까지 성숙해 가며 “이미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AD 160)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밖에도 많은 해설들이 있다. 관련되는 AD는 182, 196, 201, 223, 249, 279, 287, 289, 306, 313, 319, 321.

11) 설립자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믿음의 기도, 희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영성체 준비’에도 삽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고유한 기도를 바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12) 바오로 가족이 오래 전부터 바치던 이 기도문은 처음에 두 개의 기도문이었다.

13) ‘저희의 신뢰가’라고 번역해야 되지만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고쳤다.

14) ‘인간적인 활동, non si fonda sulle azioni umane’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형태를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AD 180, 201에서 잘 말하고 있다. “천상 스승의 의향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바오로 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가족, 수도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AD 307 참조).

15) 원본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만 되어 있으나 ‘바오로’를 삽입하였다.

16) 이 기도는 1938년 알베리오네 신부의 첫번째 꿈 이야기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의 기도와 다른 점은 마지막 부분에 “제게는 멸시를 허락하소서”가 “제게는 천국을 허락하소서”로 바뀐 점이다(AD 158의 각주 8 참조).

17) ‘Atto di abbandono, 맡김의 기도’ 라는 제목이 붙은 바오로 가족의 고유한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찬양이며 두 번째는 청원,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다. 먼저 주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것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를 받아들일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계획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나의 일상의 희생을 구세주의 희생 제물에 합쳐 아버지께 봉헌하고자 하는 원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는 영광을 드리게 되며 자신은 성성에 도달하게 된다.

18) 하느님과 내가 맺은 계약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성서의 계약을 상징하기도 한다.

19) 하느님의 섭리에 의탁하는 깊은 신앙을 말한다. 이러한 설립자의 태도는 그의 저술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다. “나는 섭리의 손길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AD 45; 58; 78; 112; 131; 133).

20) ‘I tuoi disegni eterni’(당신의 영원한 도안, 도면, 설계도, 기획, 의도, 의안)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그 뜻을 최선을 다해 받아들여야 한다(로마 8,28; 에페 1,10-11 참조).

21) 원어는 ‘Ti offro il sacrificio di tutto il mio essere’로 되어 있다.

22) 이 구절은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연상하게 한다.

23) 마태 1,21-25; 마르 9,38; 사도 3,6; 4,7-12; 5,31; 13,23; 9,34 참조.

24) 이 기도는 자카르도 신부님께서 정리하신 것이다. 이탈리아어 원어는 ‘passione predominante’로 되어 있다. ‘passione’란 낱말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갈구로 보통 ‘욕정, 걱정, 갈망, 고통’이라고 번역한다. 그리고 predominante는 ‘우세한, 지배적인, 압도적인, 능가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이 말을 사상과 연결시켜 사용할 때는 ‘지배적인 이념, 혹은 사상’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간에서 설립자는 그냥 ‘가장 큰 결점’(difetto predominante)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어 우리도 제목을 ‘지배적인 결점을 이기기 위하여’라고 수정해 보았다.

25) 원본에는 ‘남녀 총장을 위하여 Per il Superiore/a generale’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지침에 따라 총장이라는 말 대신 ‘총원장’을 사용한다.

26) 이 부분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시어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이 세상에 현존할 수 있도록 사도의 모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소서.”

27) 루가 10,2 참조.

28) 마리아의 이 호칭은 Alberione 신부에게 친숙한 것으로 거의 자신의 전생애를 통틀어 하나의 금줄처럼 이어지는 실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첫번째 책자를 B. M. Vergine delle Grazie di

Cherasco(1912)께 바친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마리아께 감사드리기 위해 1909년 「은총의 모후」라는 소책자 저술로써 사도직을 시작했다. 천상 스승께서 구원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녀는 천상 은총을 특별히 보장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 가는 길을 여시고, 예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다.”

29) 바오로 가족 기도서에 없지만, 교회 기도서 75면에 나오므로 첨가하였음.

30) 이 기도문의 유래는 꼬틀랭고 수도원에서 잠들기 전에 바치던 것을 설립자께서 바오로 가족에게도 도입하였다고 한다.

31)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 가족 신심행위에 '신학교에서 매일의 영성체, 월피정, 그 달 첫 금요일에 거룩한 성체조배 시간을 마련하고 주일에는 미사에 두 번 참여하는 것을 도입하였다.'(AD 184)라고 증언한다.

32) '예수 - 호스티아'라는 카리스마적인 이 말은 AD에서도 여러 번 나온다(AD 15; 16; 82; 159; 286; 307 참조).

33) 이 부분은 설립자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계약인 '성공의 비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34) 이 기도는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설립자는 성좌의 발상으로 모든 성소계발을 위해 일하는 '사도의모후수녀회'(1959)를 시작하였다. 사도의 모후 수녀들은 1961년 9월 15일 알바 신학교의 '성소의 날 전시회' 개막식에서 설립자께서 한 설교를 「프리모 마에스트로 설교집」이라 부르는 책에 정리하였는데 AD 338에 이 기도의 원본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바치고 있는 기도와는 약간 다르다.

35)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요한 6,51).

36) 마태 9,13; 11,28; 요한 6,45.

37)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요한 6,53-54).

38) 이 기도는 '겸덕을 구하는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39) “바오로 가족이 지상에서 행하는 성체조배로 성체이신 천상 스승으로부터 모든 은총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고, 기대하고, 겸손하게 신앙을 가지고 일하자”(AD 196). “성체조배 때 하느님과의 교류를 통해 성숙해 가며 동화되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긴다. 진취적 정신과 자유를 서로 잘 조화시키자”(AD 146).

40) “나는 너희 가족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원했고 가장으로 있으면서 양육했으니 나의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 비록 어려움이 많더라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여라. 죄를 범하지 마라”(AD 156; 153).

41) 프리모 마에스트로 시대에는 묵주기도를 미사 때도 하는 사람이 많았고 많은 이들이 묵주를 놓지 않고 기도하던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성체조배 셋째 부분에도 삼입한 것 같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전례에 의해 많이 시정되었기에 이 기도 대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

42)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서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신학생들에게 당시 가장 좋은 출판물인 몬도비 판 성서를 보급하였다. 그는 1921년부터 계속 복음서를 품에 지니고 다니며(AD 145), 교리적인 주석이 달린 복음서를 출판하였다(AD 140).

43) 성체방문, 성체조배로 번역되는 Visita Eucaristica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성체흡승으로 번역되는 Adorazione Eucaristica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

44) 이 기도는 설립자께서 알바 신학교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다. 그는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를 해석해 주는 이 기도를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 진리부분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였다. 마태오 복음의 ‘참된 행복’은 둘째 부분인 길에서,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셋째 부분인 생명에서 사용하였다. 요한복음 서론은 입문부분(1-3장)과 성찰부분(4-11장) 그리고 결심부분(12-18장)으로 나눌 수도 있다.

45) 이 기도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바치던 것이다.

46) 설립자는 알바 신학교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성체방문의 셋째 부분인 생명, 즉 은혜를 구하는 부분에서 사용하고자 했다

47) 이 시편의 후렴들은 바오로 가족이 전통적으로 바치던 것이나 본문은 후대에 삽입하였다고 한다.

48) 묵주기도는 1922년도에 만들어졌다. 설립자는 10월에 먼저 ‘고통의 신비’를 만들고 이를 협력자들이 바치게 했다.

49) 알베리오네 신부는, “나는 묵주기도 없이 한 마디의 격려도 할 수 없다.”(AD 31)라고 말했다.

50)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에서는 삭제되었음(93항-100항 참조). ‘기도합시다’에서부터 성체강복 후의 기도문까지는 98항 224항 227항 229항을 참조 바람. 바오로 가족 기도서 원문에는 없지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관습적인 기도이기에 삽입한 것이다.

51)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AD 63; 93; 97; 98; 159; 182; 338; 352).

52) 요한 6,68.

53) 모든 이가 예수를 알고, 예수로부터 비추어지고, 어느 곳이나 거룩하신 천상 스승께서 계실 수 있도록 성부께서 위로부터 선포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만일 성바오로가 살아 계신다면 어디서나 늘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실 것이다(알베리오네).

54) 요한 10,10; 10,28 참조.

55) 마르 12,30-33 참조.

56) 코론치나 4번은 교회의 무류성과 사목자들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발전된 교회론(교회헌장 25항 참조)과 좀 맞지는 않지만, “infallibilit□ e infetibilit□ 그르칠 수 없고 결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제1차 바티칸공의회(1869-1870)에서 선언한 것으로 “교회와 교황은 하느님의 능력, 덕(virt□)에 의해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결코 잘못 하거나 속일 수 없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인류의 길’ 18-19항 참조.

57) 요한 14,6 참조.

58) 요한 17,11; 에페 4,5-6 참조.

59)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의 일부는 지상교회의 군단이며, 일부는 천상교회의 승리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다”(AD 24).

60) 원본에는 ‘a partecipare al medesimo tuo aposolato, 당신과 같은 사도직에 참여시켜 주소서.’라고 되어 있다.

61) 1929년 설립자 신부님은 참된 위임장처럼 보이는 회람지를 FSP에게 보낸다. 거기에 바로 이 구절이 들어 있다. “7월에 있었던 대피정 기간 동안에 천상 스승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점화된 여러분의 열렬한 마음이 받아들여진 결심이 있었습니다. 몇 년 안에 각 가정에 예수님의 삶, 복음, 천상 스승이 소개된 책을 보급하고자 합니다.”(CVV 14) 또 “만일 성바오로가 살아 계신다면 그 이중의 불꽃, 하느님과 주 그리스도, 인류와 모든 나라에 대한 열정인 같은 불로 연소시키며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차지도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CISP 1152).

62) 1910년경 결정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한층 더 밝은 빛 속에서 저술가, 기술자, 보급하는 이들은 남녀 수도자라는 것을 보며, 한편에서는 ‘최고의 완력으로 들어높여주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도적 생활의 공적에까지 이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도직에 더욱 굳은 일치, 안정성, 지속성, 초자연성을 부여한다. 조직을 만들되 수도자일 것. 여기서는 힘이 하나로 집결되고, 헌신은 전면적인 것이 되며, 교의는 더 순수해질 것이다. 지성, 힘,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단체의 사람들은 “너희는 백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마태 19,20, AD 24 참조).

63) 알베리오네 신부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마르 12,30)는 마르코 복음을 수정하여, 첫번째 자리에 놓여 있던 마음이란 낱말을 세 번째 자리로 이동시켜 지성, 의지, 마음이란 구조를 만들었다.

64) 이 코론치나는 스승 예수께 드리는 코론치나보다 먼저 작성되었다. 1917년 복자 디모테오 사카르도께서 설립자의 권고에 의해 이 기도를 만드셨다. 5조항으로 나누어진 이 기도는 사도 바오로를 사도적 봉헌생활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 이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다. 물론 설립자께서는 이런 말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축성봉헌의 삶을 그리스도화로 이해하는 것은 최근에 열렸던 축성봉헌 생활을 다룬 시노드에서 축성생활 신학으로 정립한 결과이다(VC 18 참조).

1917년 이래로 설립자께서는 이 기도에서 선교와 축성생활을 서로 어떻게 생활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다. 이 코론치나의 의미에 대해서 설립자가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교회가 성바오로 사도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기도문을 관대하게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한 필요성에 적합한 기도는 ‘성바오로께 드리는 코론치나’이다.”

이 코론치나에는 사실 우리의 보호자이신 바오로께 특별히 청해야 하는 3가지 요소(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바오로께 드리는 찬미, 우리가 청원해야 할 것)가 들어 있다. 그리고 이 코론치나에는 사도 바오로께 신심 깊은 이들이 청해야 할 5가지 은총이 짧은 청원 형식으로 들어 있다. 1) 덕행을 거스르는 근본적인 욕정을 이기기 위하여 2) 바오로 사도가 항상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가난의 정신을 배우기 위하여 3) 모든 것에 있어서 재빠르고 기쁜 순명을 하기 위하여 4) 우리의 특별한 신분에 따른 정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5)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열정을 배우기 위하여.

65) 코론치나 1번은 바리사이였던 바오로를 열렬한 사도로 회개시킨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온순하게 응한 바오로 사도께도 찬미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근본적인 결점에서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를 청한다.

66) “내가 전에 유다교 신자였을 때의 소행은 여러분이 다 들었을 터이지만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습니다. 아니,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그 때 내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다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갈라 3,13-14).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필립 3,5-6).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에페 2,4-5; 사도 9,1-19; 22,3-21; 26,9-20; 1고린 15,8 참조).

67) 은총에 온순히 따르는 마음: 2고린 12,7-10 참조.

68) 주요 결점을 이기기 위한 기도 참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금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며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2고린 7,1).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은혜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갈라 2,20).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죽는 것도 나에게서는 이익입니다”(필립 1,21).

69) 코린치나 2번은 주님께서 사도 바오로를 완전한 덕행의 스승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바오로에게 그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드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길 청한다.

70) 동정자들의 모범이라는 말은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이 각각 다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1고린 7,7-8) 라는 말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71) 바오로인에게 설교자, 즉 ‘가르치는 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 설립자께서도 ‘우리 수도회는 가르치는 수도회입니다. 서원은 교단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바오로께는 가장 다정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바오로인의 삼단논법인 지성, 의지, 마음을 다스려 예수님을 알아 뵈도록 청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청한다. 여기서 다섯 개의 동사 ‘지키다, 알다, 사랑하다, 섬기다, 사용하다’를 특히 주목해 보자(1디모 1,11 참조).

72)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1고린 6,19-20; 필립 1,20; 필립 2,5; 3,6-8 참조).

73) 코린치나 3번은 바오로 사도께 완전한 순명의 덕을 주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고 이 덕에 있어서 완전한 모델이신 사도를 찬미한다. 바오로 사도께 이 완전한 순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빌며 순명을 통하여 악에 승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청한다.

74)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립 2,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필립 2,12; 1고린 15,10-11 참조).

75) 알베리오네 신부는 AD 29에서 “더 많은 평온과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오로 가족의 초창기로부터 이 일을 계속해 오는 동안 언제나 나는 이중의 순명을 하였다. 호스티아이신 예수께로부터 영감(靈感)을 받고, 영성 지도신부의 승인을 얻어 교회 장상들이 명시한 뜻에 순명하면서 하였다.”라고 증언한다(디도 3,1-2; 골로 3,12-13 참조).

76)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2디모 4,17).

77) 코론치나 4번은 지상의 재물에 초탈한 자세로 살았던 바오로 사도에 대해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가난의 정신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를 찬미한다. 우리도 바오로 사도의 전구로 같은 덕을 얻을 수 있도록 청한다.

78)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 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사도 9,15; 2디모 4,5; 루가 6,20; 필립 4,12; 2고린 6,10; 8,9 참조).

79) “성바오로의 정신은 그의 생애, 그의 서간, 그의 사도직에서 드러나고 있다. 바오로는 언제나 교의, 윤리, 예배, 교회 조직 속에 살아 있다”(AD 94). “성바오로의 정신에 따라 복음의 각 구절을 생각하고 그것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명백해야 한다”(AD 95).

80) 2데살 2,14; 1데살 4,14 참조.

81) 코론치나 5번은 사도 바오로께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주시어 많은 영혼을 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바오로의 사도적 노고에 대해 찬미를 드린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복음화 사업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청한다.

82)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2고린 5,14-15)

83) 로마 5,6-10; 8,35-39; 에페 2,4-5; 1고린 9,19 참조.

84) 필립 3,13-14; 2디모 4,6-8; 1고린 9,24 참조.

85) 1데살 3,10-12; 로마 12,1; 골로 4,2-3; 1고린 14,12-26 참조.

86) 바오로 사도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분은 주변 환경에 대해 적의를 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다만 이 환경과 대화하며 무엇이 복음적인 사고인지 가려낼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과거의 이교도적인 주변환경이나 물질만능에 물든 소비주의 성향이 복음적인 경향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반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반 그리스도교적인 요소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정신적 노력, 즉 더욱 나은 상태로 우리를 밀어주는 성령의 능력과 활동에 민감하며 그분이 우리를 개선해 주시도록 자신을 내 맡기는 생활이다”(우고 반니).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1디모 4,7).

87) 성요셉께 드리는 신심 행위는 중세기 때 제르송에 의해 시작된 것이며, 16세기에는 예수의 테레사 성녀에 의해서 그리고 17세기에 와서는 가르멜 수도자들에 의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설립자께서도 성요셉을 당신의 수호성인으로 삼고 각별한 공경을 바치셨다. AD 179, 204, 307 참조.

88)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중세의 성인들(성녀비르지타, 성베르나르도, 성녀마틸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성요한 에우데스에 의해 증대되고, 안센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녀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에게 내려진 계시로 더욱 힘차게 일어났으며 그 후 점점 발전되었다.

89) 원문에는 la stessa sua vita로 되어 있다.

90) ‘pietosissimo, 지극히 자비로운, 동정심이 있는, 친절함, 인정 많은’ 등이 있다.

91) 루가 22,42; 마태 26,42.

92) 알베리오네 신부가 가지셨던 마리아 신심은 아주 특별하다. 그는 “어느 꿈속에서 바오로 가족이

마리아께 존경의 표시로써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가’, 또 역사의 현 시점에서 마리아께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떠한 선물을 기대하고 계신가’ 하고 물어보았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분답게 백금 같은 빛에 싸여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는 천상 은총의 어머니다.’ 하는 말을 하셨다. 이것은 가련한 인류의 오늘의 필요성에 대한 답이요, 마리아는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로서의 임무를 하늘에서도 실제로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잘 알리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AD 201)라고 하시며 작별인사에서는 ‘사도들의 모후요 스승이시며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고 사랑하고 설교하라’고 당부하셨다(AD 354).

93)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una buona volta*).

94) 신심업의 실천(*pratiche di pietà*).

95) 교회에서 바치는 기도는 다음과 같다(기도서 64면 참조).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96) 성모 통고 부속가 참조.

97) 이 기도는 바오로인의 고유한 기도이다. AD 179; 183: 천사들이 성삼의 영광을 노래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대영광송으로 모든 것을 끝맺어야 한다.

98) 이 기도는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1936-37년 대피정 지도 때 만드셨다고 한다.

99) 경솔함, 무지, 망각, 고집, 편견, 오류, 진리의 배척으로 흐려진 지성: 원어는 *la mia mente dalla irriflessione, ignoranza, dimenticanza, durezza, pregiudizio, errore, perversione*. 그러나 여기서 *perversione*를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해석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의지적으로 배반하는 행위’, 즉 ‘모독행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00) 모든 것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감성과 경향을 심어주소서. 이 문장의 원어는 다음과 같다. “*concepisci i gusti, sentimenti, inclinazioni, Gesù Cristo-Vita in tutto.*”

101) 이 기도의 성서적 원천은 잠언 8,15-20이다. 이사야 11,2-3도 참조 바란다. 우리는 이 기도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통달(*Intelligenza*)의 은혜로 지성(*intelletto*)을, 슬기(*Sapienza*)의 은혜로 지혜(*sapienza*)를, 의견(*Consiglio*)의 은혜로 현명함(*prudenza*)을, 효경(*Pieta*)의 은혜로 정의(*giustizia*)를, 지식(*Scienza*)의 은혜로 지식(*scienza*)을, 굳셈(*Fortezza*)의 은혜로 영적 힘(*forza spirituale*)을, 경외심(*Timore di Dio*)의 은혜로 절제(*temperanza*)를 주시어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102) 이 기도는 처음 기도서에는 없었는데 재판집할 때 Don Lamera가 넣었다고 한다.

103) 하느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식별하고 하느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멸시를 돌릴 것이다. 여기에서 ‘계약 혹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신앙의 기도가 생겨났다.

104) 활동의 막바지에 설립자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살고 있는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 긴 여행을 하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전쟁 후 아메리카를(1946)를 다녀온 후 시작되었다. 그 후 다시 지구를 도는 긴 여행에 나섰는데 동양과 아메리카(1949), 그리고 1952년과 1953년부터 다시 동양과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런 여행을 할 때는 언제나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프리마 마에스트라 테클라와 스승예수제자수녀회의 마드레 루치아 리치를 동반하였다. 이때 설립자의

건강은 그의 생애 중 가장 나쁜 때였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오로지 그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할 일만을 걱정하며 다음 여행지를 기다리면서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로를 수정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때 그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런 여행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문서가 남아 있는데, 그가 비행기 속에서 준비했다는 메모 중에서 기도의 초안인 '스승 예수께 바치는 기도'는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을 지나갈 때 썼다고 하며, 또 선교사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각 민족의 종교적 입장에 대해 기록한 메모는 인도 대륙과 히말라야 산맥을 날아갈 때 그 위에서 구상한 것이라고 한다. 이 여행 이야기가 「San Paolo」지에 실려 있다. 그리고 Carissimi in San Paolo, pp. 1007-1043에서도 볼 수 있다(AD 입문 참조).

105) 히브 9,14.

106) 이 기도는 스승 예수제자수녀회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107) 사도 1,12-14 참조.

108) 이 기도는 1957년부터 바치기 시작하였다.

109) 이 기도는 바오로 가족 기도서의 '성소를 위한 봉헌기도'의 원본이며 또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인 *tuttismo*(전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0) 가톨릭 성가 250장을 참조할 것.

111)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

112) 이 기도는 사도 9,1-19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사도행전 본문에서 '이름'이란 단어가 3번(14-16절)이나 사용된다. 루가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바오로를 제시하면서 사도행전 2부를 구성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가 14,27). 그리고 또 9,23-24에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말한다. 루가에게 있어서 바오로는 참 제자의 모델이다. 이 점에 대해서 루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바오로의 고난을 명확하게 대비시키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

이 기도가 참으로 성서적이고 바오로 신학의 근거가 되도록 해주는 내용이 로마서 5,1-5에도 있다. 바오로는 고통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고통은 그에게 속해 있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인내로 참아내는 고통은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해주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체험에서 보면 하느님은 시련 속에서 바오로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통은 영광을 준비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희망하고, 희망이 더욱 견고해지는 이유이다. 인내는 체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현존으로 세워진 내적 힘이다. 성령의 현존은 성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113) 이 기도는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토착화시켰다.

114) 바오로인의 출판 정신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2디모 3,12)와 필립비인들에게 하신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실 것입니다."(필립 4,8-9) 라는 성바오로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AD 70).

115) 바오로 사도에 이어 설립자도 이를 특별히 사용한 성서 용어이다. "성바오로는 위대한 걷는 자이다"(AD 28; 30 참조).

116) AD 4; 287 참조.

117) 「사제의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이란 이 책자에 대한 정보는 AD 40; 280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109에서는 소상히 전해 준다. “수녀들을 위하여 1911년부터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사제와 협력할 때 여성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쇄 사도직과 사회적, 사목적 사도직 분야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만일 그 여성이 하느님께 봉헌된 자, 즉 수녀일 때 특별히 커진다. 이 책은 하느님의 때가 되어 성소가 있는 여성을 보내 달라고 사제들에게 호소하게 될 때 이를 받아들일 환경을 마련하였다. 사실 이탈리아어판이나 여러 외국어판도 좋은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의 초판은 알바에서 1915년에 La Scuola Tipografia에서 출판하였고, 개정판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살아 계실 때 Sr. Cecilia Calabresi가 준비하여 8판, 9판까지 나왔다.

118) 기도와 활동은 정치, 학교, 법률, 가정, 계급과 국제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적 사회활동으로 기울었다. 왜냐하면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바오로 가족은 이 점에 있어 커다란 임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AD 63).

119) ‘인류의 길’ 기도가 만들어진 당대의 신학사조는 오늘의 신학동향과 상당히 다르므로 이 기도를 바칠 때, 더러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역사를 꿰뚫는 설립자의 신학적 영성적 통찰의 심오함이 담겨 있고,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과 보편적인 인간의 운명의 중심에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가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카리스마적인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는 이 기도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바칠 때 설립자가 가르쳐 준 교회에 대한 충실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20) 원문에는 창세 1,4-25로 되어있으나, 창세 2,7-8로 정정하였다.

121) 민수 20,4-9로 되어 있으나, 성서를 확인해 본 결과 민수 21,4-9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2) 루가 12-19로 잘못 인용되어 있는 것을 루가 6,12-19로 바로 잡았다.

편집후기

한국 교회가 전례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오던 기존의 「바오로 가족 기도서」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리하여 한국의 바오로 가족 통솔은 「바오로 가족 기도서」 개정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기도문들만 모아 시험본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 바오로 가족 차원의 번역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 10월까지 번역을 진행해 나갔다.

번역위원회는 이탈리아어 원문에 충실하게 기도서를 번역하였고, 번역이 끝난 후 강독위원회가 교정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성바오로수도회 편집실에서 2차 교정과 편집 작업을 하였고, 다시 번역위원회가 최종 교정을 보았다.

번역 작업 중에 있었던 용어상의 문제점, 이탈리아어 원본을 이해하는 데 있었던 어려움들은 한국을 방문 중이던 요셉 오베르트 수녀(스승예수제자수녀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번역을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설립자의 카리스마적인 기도와 이탈리아 교회의 기도문이 함께 편집되어 있음을 보았고, 설립자가 의뢰한 초기 바오로 회원들(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 로아따 신부, 라메라 신부 등)의 기도문들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세계 홍보의 날’ 기도문이 원문에 있으나, 매년 홍보주일에 교황님이 발표하는 고유 기도문이 있으므로 생략하였다. 이 기도서 안에는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바오로 가족이 원하는 몇 가지 기도문이 첨부되어 있다(예: 성탄 9일기도, 이탈리아어, 영어, 라틴어 미사경문, 찬미가 등). 번역위원회는 기도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석을 붙여 미주로 편집하였다. 번역을 끝내면서 바오로 가족이 살아야 할 영성적 성서적 교의적 전례적 보화가 이 기도서 안에 풍부하게 들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이 카리스마적 기도와 삶을 잘 통합시켜 나갈 때 성덕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번역위원회: 백기태 신부

송복희 수녀

유복남 수녀

김현숙 수녀